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과 과제

백선헤 신인철 라도삼 박민진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과 과제



연구책임

백선헤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실장

연구진

신인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라도삼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실장

박민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호환성·구체성 확보하는 상향식 데이터 구축으로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유네스코·유럽통계청 등이 국가 비교 가능한 문화통계 표준화 작업 진행

유네스코는 1960년대부터 문화통계 표준화 연구를 지속 수행하여 문화통계 프레임 워크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유럽통계청 등을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문화통계를 구축하려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통계는 표준화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이에 많은 국가와 도시가 표준화 체계를 수용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통계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어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통계는 통계청에서 제작관리하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문화 분야의 통계는 주로 문화산업과 문화다양성 측면을 다루고 있음. 문화향유 관련 통계는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 호주의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미국의 국가예술기금위원회(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와 같은 별도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됨

한국 문화통계, 유네스코 열개 토대로 세부영역 등 국내 특성에 맞게 적용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문화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예연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향수실태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화다양성실태조사 등 다양한 문화통계를 구축하고 있음. 각 통계를 살펴보면, 유네스코의 문화분야 하위영역과 문화순환주기 같은 큰 영역은 유지하되 세부영역과 지표 등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통계 생산을 다양한 주체가 담당하고 있어, 문화의 범위와 조사대상 등 문화통계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각 기관의 목적에 맞추어 통계를 생산함. 그 결과, 개별 통계는 그 자체로 완성도가 높긴 하지만, 통계나 조사결과 간 비교와 해석에

제한이 발생하게 됨

서울시 문화통계는 중앙정부 통계에 의존해 市 문화생태계 파악에 한계점

서울시 문화통계는 주요 데이터를 전국단위 통계에 의존하는 구조임. 서울시 전체 현황과 전국비교 또는 국제비교는 가능하지만, 서울시내 지역(자치구) 간 비교는 어려움. 이는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에 문화통계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됨. 또한 서울시 문화통계는 생산주체의 역할구분이 불명확하고 사후관리 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구원에서 문화 관련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필요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음. 서울연구원은 문화자원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기성을 결여한 일회성 조사임.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격년 조사 체계를 갖추어 가는 중이지만,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활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한편,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계를 관리하는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통계목록을 담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 문화통계, 호환성·구체성 모두 확보 가능한 지표체계 개발이 필요

서울시 문화통계는 호환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함. 즉, 국제비교와 도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고려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체계 개발이 필요함. 또한 문화통계체계가 효과성을 가지려면 문화지표체계 설정 과정에서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

서울시 문화통계의 범위는 협의의 문화개념인 '예술'에서 광의의 문화개념인 '문화'로 확대되어야 함.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문화통계는 협의의 문화개념(예술활동) 중심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15.2%, 광의의 문화개념(생활문화, 지역문화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4.8%로 확인됨. 단기적으로는 지역문화나 생활문화 같은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의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 문화통계 대상은 서울시민에서 서울시 생활인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문화통계가 서울 거주민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지만, 서울거주민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방문객 등 문화통계 대상을 다양하게 넓혀야 한다는 응답은 95.7%로 밝혀짐

서울시 문화통계의 보완 위해 문화분야 필수통계·필요통계 구축이 바람직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계에 의존하는 구조로,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 관련 활용성이 부족함. 향후 창작(생산, 제작), 유통(발표, 전시), 소비(인식, 참여)를 균형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가 필요함

기본계획과 조례상 지정된 필수통계로는 〈시민문화활동조사〉,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 〈문화다양성실태조사〉가 있음. 전문가조사에서는 이 외에 〈서울예술인활동조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 4가지 통계를 필수로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필수통계 외에도 서울시 주요문화정책과 관련되어 생산이 필요한 통계가 있음. 필수통계를 구축한 후에는 〈서울축제통계〉, 〈서울문화예술교육통계〉, 〈서울생활문화활동통계〉 등의 필요통계 구축도 검토가 필요함

서울시의 문화분야 필수통계와 필요통계가 생산되면, 기존에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계에 의존하던 서울시 문화통계가 보완되어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게 됨

서울시 문화특성 반영한 통계생산, 지속가능한 문화통계체계 구축이 필수

서울시 문화특성을 반영한 통계를 생산하려면 서울시 문화정책 관련 필수통계를 중심으로 구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통계와 호환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통계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한 통계체계를 만들려면 통계생산관리-사후관리-조정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서울문화재단과 자치구(기초문화재단)와 협력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음. 또한 자치구가 효과적으로 생산·활용할 수 있는 상향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수요자 친화적 문화통계 큐레이션을 위해 문화통계와 여타 기초통계 간 연계분석으로 데이터 설명력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와 연계한 분석이 필요함. 또한 문화트렌드와 이슈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시의 문화통계 체계가 수요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생산·축적된다면,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과 실행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문화정책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임

목표

서울시의 다양한 문화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통계체계 구축

전략
방향서울시 문화 특성을
반영한 통계 생산

- 서울시 문화정책 관련 필수통계 중심으로 구축체계 정비(2~3년)
→ 향후 통계 구축범위 확대
- 정부통계와 호환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 통계 설계

지속가능한
문화통계체계

- 통계생산관리-사후관리-조정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서울문화재단 및 자치구(기초문화재단)와 협력체계 구축
- 자치구가 효과적으로 생산, 활용할 수 있는 상황식 플랫폼 구축

수요자친화적
문화통계 큐레이션

- 문화통계와 여타 기초통계 간 연계분석을 통한 데이터 설명력 확대
- 빅데이터 활용
- 문화트렌드·이슈 분석과 제공

기대
효과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과 실행의 방향성과 타당성 제공
서울시 문화정책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효과 검증 기반

[그림] 서울시 문화통계의 기본방향



목차

01 서론	2
1_연구배경과 목적	2
2_연구 내용과 방법	4
02 국내외 문화 분야 통계 구축사례와 시사점	8
1_문화 분야 통계의 해외 사례	8
2_문화 분야 통계의 국내 사례	17
3_시사점	37
03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 체계 검토	44
1_서울시 문화예술 관련 지표와 조사 현황	44
2_문화예술 관련 통계 사이트 구축 현황	52
3_서울의 문화 분야 통계 관련 법령과 계획	55
4_소결	58
04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66
1_FGI와 전문가 자문	66
2_전문가 조사	72
3_소결	95
05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과 과제	102
1_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의 기본방향	102
2_서울시 문화분야 필수통계	104
3_통계구축체계와 역할 분담	108
4_수요자 친화적 문화통계 큐레이션	111
5_향후 과제와 연구의 한계	115

참고문헌	117
부록: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1차)	119
부록: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2차)	125
Abstract	133



표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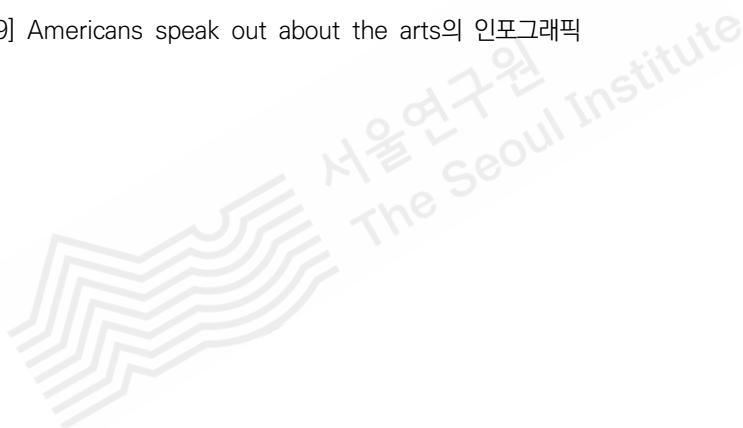
[표 2-1] 유네스코 문화지표 매트릭스	10
[표 2-2] 문화발전지표 지표	10
[표 2-3] 유럽통계청의 문화활동 지표 체계	11
[표 2-4] 캐나다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12
[표 2-5] 국가예술기금위원회 홈페이지의 문화예술 통계	16
[표 2-6] 국내 문화예술분야 통계생산과 프레임에 관한 연구	18
[표 2-7]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19
[표 2-8] 자료수집방법	20
[표 2-9] 문예연감 주요 지표	21
[표 2-10] 문화기반시설 자료	23
[표 2-11] 문화향수 실태 조사내용	24
[표 2-12] 국민여가활동 조사내용	26
[표 2-13] 공연예술실태조사 조사대상	27
[표 2-14] 공연예술실태 조사내용	28
[표 2-15] 예술인실태 조사내용	29
[표 2-16] 미술시장실태 조사내용	30
[표 2-17] 문화다양성실태 조사내용	32
[표 2-18] 사업체 부문 조사내용	33
[표 2-19] 종사자 부문 조사내용	34
[표 2-20] 문화예술 관련 통계 제공 사이트	36
[표 3-1] 서울문화지표 지표체계	45
[표 3-2] 세계도시 문화리포트 지표	46
[표 3-3] 서울서베이 문화영역 변화	48
[표 3-4] 서울서베이 중 문화와 여가 분야 지표(2017~2018년)	48
[표 3-5] 희망서울생활지표 체계	49

[표 3-6] 희망서울생활지표 중 문화와 관광 영역	49
[표 3-7]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조사내용	50
[표 3-8]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 조사내용	51
[표 3-9] 서울통계서비스 중 문화예술 분야	52
[표 3-10] 조사개요	57
[표 3-11] 서울문화지표 자료출처	59
[표 4-1] 설문내용	73
[표 4-2] 직위	73
[표 4-3] 연구경력	74
[표 4-4] 연령	74
[표 4-5] 서울시민 대상 필요 통계	81
[표 4-6] 예술인 대상 필요 통계	81
[표 4-7] 사업체 대상 필요 통계	82
[표 4-8] 시설과 자원 대상 필요 통계	82
[표 4-9] 다른 광역지자체의 문화통계 중 향후 서울시도 생산할 필요가 있는 통계	83
[표 4-10] 설문내용	86
[표 4-11] 직위	87
[표 4-12] 연구경력	87
[표 4-13] 연령	87
[표 4-14] 직군별 목표의 중요도	89
[표 4-15] 서울시 문화통계 수요(전체 평균과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비교)	99
[표 5-1] 서울시 문화분야 필수통계(안)	106
[표 5-2]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	107
[표 5-3] 회원 가입 절차	11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내용의 구성	5
[그림 2-1] 문화통계 영역 프레임워크	9
[그림 2-2] 영국 통계청 제공 통계 중 사람·인구·지역사회 분야	13
[그림 2-3] 문예연감 조사항목 분류체계	21
[그림 2-4] 유네스코 프레임워크	37
[그림 2-5] 문화 참여 모델의 과정	39
[그림 2-6] 중앙정부의 문화 프레임워크	41
[그림 3-1] 서울서베이 지표체계	47
[그림 3-2] 유네스코 문화지표 매트릭스로 살펴본 서울시 문화통계 조사체계	58
[그림 3-3] 중앙정부 문화통계의 작성·관리체계	61
[그림 3-4] 통계 관리체계 개관	62
[그림 3-5] 문화정책 과정과 데이터	64
[그림 4-1] 중앙정부 문화통계 활용 순위	75
[그림 4-2] 중앙정부 문화통계 중 가장 유용한 통계	75
[그림 4-3] 서울시 문화통계 활용 순위	77
[그림 4-4] 서울시 문화통계 중 가장 유용한 통계	77
[그림 4-5]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시, 서울시 문화통계의 장점	79
[그림 4-6] 워드클라우드를 통한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의 도출	80
[그림 4-7] 워드클라우드를 통한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 도출	80
[그림 4-8] 서울시의 향후 문화통계 생산·관리 시 중점 고려사항	85
[그림 4-9] 서울시 문화통계 활용도	88
[그림 4-10]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	89
[그림 4-11] 서울시가 고유한 문화통계를 드러내는 방법(중요도, 시급성)	90
[그림 4-12] 서울시 문화통계의 방향성	91
[그림 4-13] 문화통계 분야별 통계생산의 필요성	92

[그림 4-14] 문화통계 분야별 통계생산의 시급성	93
[그림 4-15]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문화통계	94
[그림 4-16] 문화 분야 통계체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필요성)	94
[그림 4-17] 문화 분야 통계 구축 매핑	97
[그림 4-18] 향후 문화통계를 자체 생산할 예정인 기초문화재단(전문가 조사 결과)	98
[그림 5-1] 서울시 문화통계의 기본방향	102
[그림 5-2]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에 기반한 서울시 문화통계	107
[그림 5-3] 서울시-서울연구원-서울문화재단 간 협력 체계	108
[그림 5-4] 상향식 데이터 형성체계	109
[그림 5-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 조직도	109
[그림 5-6] (가칭) 서울문화통계센터의 역할	110
[그림 5-7] CNAL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112
[그림 5-8] CNAL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지역별 정보	113
[그림 5-9] Americans speak out about the arts의 인포그래픽	114



01

서론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 내용과 방법

01. 서론

1_연구배경과 목적

- 정부와 서울시는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중. 이에 문화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통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국가 단위에서는 〈문예연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등이 주기적으로 생산되고 있음
 - 서울시 단위에서는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 〈서울문화지표〉, 〈세계도시문화리포트〉 등이 생산되고 있음
-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임. 다만 문화 분야는 ‘문화’의 개념 정의가 포괄적이고, 산업/여가/관광/예술 등과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통계 생산이 어려움. 또한 중앙/광역/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황 파악이나 성과 측정이라는 목적에 따라 각기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김해보, 2016)
- 이처럼 기존의 문화통계가 체계적인 설계와 기준 없이 개별 기관의 관점과 수요에 따라 생산되면서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 기준의 차이 등으로 통계 간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
 -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 분야 통계생산과 관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통계체계를 검토하는 연구가 부족
-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문화통계가 정책결정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용성’을 가져야 하지만,

현재 체계는 활용도 측면에서 한계

- 문화통계의 기본 체계는 문화정책의 전략적 목표 달성 과정을 측정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는 문화정책 수립방향과 효과분석의 활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예술 관련 현황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
- 또한 통계체계 설계와 더불어 문화통계 조사방법을 점검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시의적절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
 - 통계자료는 정책의 실행과 효과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신뢰성·타당성·시의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박근화 외, 2013)
 - 서울시는 문화통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이 주체별로 다양하게 생산되는 통계를 수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마저도 생산주체에 따라 같은 대상 조사결과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
 - 관람객 수나 매출액 등은 <공연예술실태조사>나 <미술시장실태조사> 등 정부통계에 의존하고 있지만, 자치구별 분석 등에 한계
- 한편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¹⁾, 지역문화 등 문화 분야의 중심 이슈가 변하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신규 조사가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2014.1.28.제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과 문화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에관한법률(2014.5.28.제정)」은 <문화다양성실태조사>를 의무화
 - 문화민주주의 확대로 시민의 문화 참여를 더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됨. 우리나라는 문화향수실태조사 등으로 시민의 문화참여 현황을 보는 데 집중하는 반면, 호주의 <국가예술참여조사(National Arts Participation Survey)>는 문화 참여의 원인과 현황, 사회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조사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문화 분야 관련 통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국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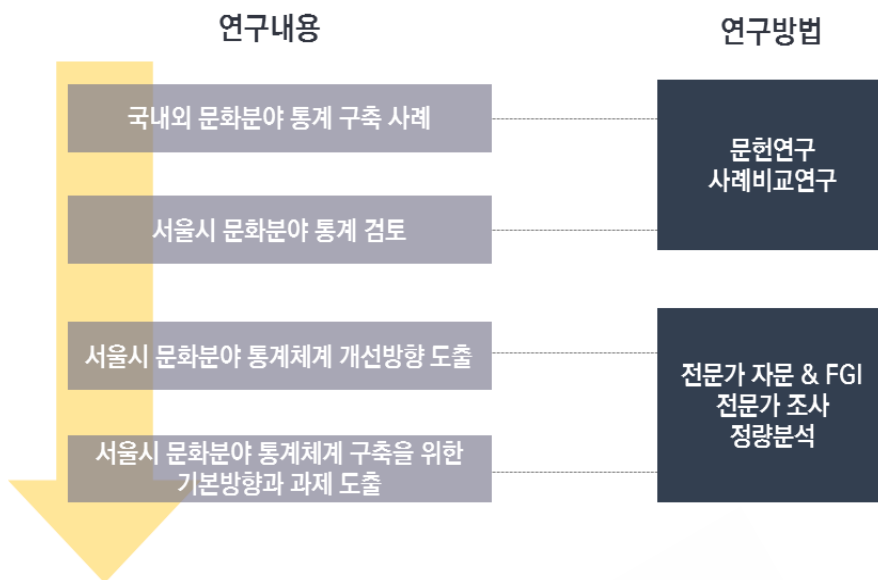
1)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문화로 설명되는 것, 문화가 발생하는 장소,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예술과 문화 접근방식을 의미함. 기존에 문화와 예술의 '민주화(democratising)'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 혜택은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일부 인종에게만 해당됨. 또한 티켓 판매율(약 43%)은 일부 문화 향유자에게 편중됨. 따라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의 초기 선정부터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하고, '참여'를 조직의 가치로 삼으며, 참여자로서의 시민(국민)을 강조하는 문화민주주의의 개념이 중요해짐(Henley, 2018)

및 전문가 조사 등을 토대로 서울시 문화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통계 및 통계생산 주체와 방법 등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과 효과 검증의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2_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국내외 문화 분야 통계 구축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현황을 검토함.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FGI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내용은 SPSS를 활용하여 정량 분석함. 이후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문화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문화통계 관련 초기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문화영역에 한정
 - 관광, 여가, 스포츠 등 문화 관련 영역은 제외
-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와 정부에서 조사하는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는 어떠한 지표체계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서울시에 새롭게 요구되는 조사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 해외 주요 도시는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주안점으로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통계의 생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문화통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서울시에서 새롭게 생산해야 하는 문화통계는 무엇인가?
 -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는 어떻게 구축되고 관리되어야 하는가?



[그림 1-1] 연구내용의 구성

2) 연구 방법

- 문헌과 사례 연구
 - 서울시 문화관련 조사(통계) 현황과 체계 분석
 - 문화 분야 통계 구축과 관리방안을 다룬 국내외 이론 연구 검토
 - 해외 주요 도시의 문화예술통계 지표체계와 관리방안 조사
- 전문가 조사
 - 서울시에 적합한 문화예술통계 구축체계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2회 실시
 - 1차 전문가 조사는 2019년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으며, 문화통계의 활용여부(중앙정부,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 문화통계의 장단점,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와 차별성, 향후 서울시가 문화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데 중점 고려해야 할 점을 조사함
 - 2차 전문가 조사는 2019년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문화통계의 활용도,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와 차별성, 분야별 문화통계 생산의 필요성, 문화통계 운영 및 협력체계 등을 조사함

○ 전문가 FGI

-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문화 분야 통계체계의 문제점과 효과적 구축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울시 문화본부 담당자, 서울문화재단 담당자, 서울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한 FGI를 2회 실시
- 제1차 FGI는 2019년 6월 문화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서울시 문화예술통계체계의 실태>를 논의하고, 제2차 FGI는 2019년 7월에는 광역·기초문화재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문화 분야에서 생산하는 통계와 서울시-자치구 통계 생산 협력 구조>를 논의

02

국내외 문화 분야 통계 구축사례와 시사점



1_문화 분야 통계의 해외 사례

2_문화 분야 통계의 국내 사례

3_시사점

02. 국내외 문화 분야 통계 구축사례와 시사점

1_문화 분야 통계의 해외 사례

1) 문화통계프레임워크 관련 연구

(1) 유네스코, 문화통계프레임워크 연구

- 유네스코의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연구는 유네스코 문화 분야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는 다음의 목적으로 시작됨
 - 문화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최근 문화는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고 있으며 개별 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 특히 정책설계 시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그 영향을 측정·평가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함(UNESCO·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9)
-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통계 체계(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지표체계 개발 및 표준화 작업이 시작됨
 - 표준화 연구과정에서 유네스코는 1981년 「문화지표체계 권고서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는 문화통계를 ‘문화지표’ 수준으로 이해하고자 한 시도로서 세계 각국의 문화통계와 지표체계의 근간이 됨(안인자, 2002; 양혜원 외, 2011)
 - 1986년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²⁾와 유네스코 문화 분야가 새로운 문화흐름과 개념을 반영(예: 새로운 기술 기반 등)해 문화통계 체계를 재구성함(UNESCO·UNESCO Institute for

²⁾ 유네스코 통계연구소는 표준정의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산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임(UNESCO·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9)

Statistics, 2009)

- 2009년 유네스코는 새로운 정보기술과 관련된 사회변화, 문화실무와 정책 영역을 고려하여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
 - 유네스코가 새롭게 제시한 문화통계 영역 프레임워크는 문화영역과 관련 영역(관광·스포츠·레크리에이션)을 구분하여 [그림 2-1]과 같이 제시
 - 문화순환주기에 따라서는 창작, 생산, 보급, 전시, 소비·참여의 5단계로 구분



출처: UNESCO-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09): 24

[그림 2-1] 문화통계 영역 프레임워크

- 지표체계는 '문화 영역'과 '관련 영역'으로 구분하며, 문화순환주기(culture cycle)에 따라 창작, 생산, 보급, 전시, 소비·참여로 구분
 - 창작: 원작성을 갖는 아이디어 콘텐츠 창작(작가, 조각가 등 문화인력), 유일성을 갖는 상품제작(공예, 미술품 등)
 - 생산: 복제가 가능한 문화상품(TV프로그램), 창작에 사용되는 물건, 인프라, 프로세스의 생산(악기제작, 신문인쇄 등)
 - 보급: 대량생산된 상품을 소비자 혹은 작가에게 전달(영화배급, 음악이나 컴퓨터 게임의 도소매 등)
 - 전시: 현장성에 기반을 둔 문화체험 제공(축제, 이벤트 등)
 - 소비·참여: 문화상품의 소비행위, 문화 활동 경험

[표 2-1] 유네스코 문화지표 매트릭스

	문화 영역					관련 영역	
	역사문화 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예술	영상예술	관광	스포츠·오락
창작							
생산							
보급							
전시							
소비·참여							

출처: NESCO-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09)

- 지표체계는 제도적 범주, 거버넌스 방식, 문화의 범위에 따라 구축
 - 제도적 범주(공식통계 vs 비공식통계)
 - 거버넌스 방식(공공생산 vs 민간생산)
 - 문화의 범위(사회성 vs 경제성)

(2) 유네스코 문화발전지표(CDIS :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s)

- 유네스코의 문화발전지표는 단순통계생산이 아니라 문화 분야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함
 - CDIS의 방법 매뉴얼(Methodology Manual)은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지표 구성, 국가적 상황에 따른 지표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며, CDIS 실행 툴킷(CDIS Implementation Toolkit)과 함께 통계 능력의 향상, 문화와 발전의 상호작용 확인,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 수립, 문화발전 전략 등을 제시
- 문화발전지표는 7개 영역(경제·교육·거버넌스·사회참여·성·커뮤니케이션·문화유산), 22개 지표로 구성

[표 2-2] 문화발전지표 지표

영역	지표	
경제	- GDP 대비 문화활동 기여율 - 문화에 대한 가구 지출	- 문화고용
교육	- 통합교육 - 예술교육	- 다언어교육 - 문화 분야 전문가 양성
거버넌스	- 문화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설정 - 문화기반시설의 분포	- 문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프레임워크 설정 -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참여
사회참여	- (외부) 문화활동 참여 -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 - 자기결정의 자유	- (등록을 통한) 문화활동 참여 - 대인관계 신뢰도
성	- 성별 격차	- 성평등 인식
커뮤니케이션	- 표현의 자유 -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 인터넷 이용
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출처: 유네스코 문화발전지표 홈페이지(<https://en.unesco.org/creativity/activities/cdis>)

(3) 유럽통계청(Eurostat) 문화통계

- 유럽통계청은 EU차원에서 건전한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비교 가능한 통계를 축적하기 위하여 문화통계 구축 작업을 시작
 - 1995년 유럽 국가 간 문화통계의 표준화를 시도
 - 2000년에 유럽연합 문화통계보고서를 발간
- 유럽통계청의 문화지표는 문화활동 이외에도 문화고용, 문화재정 및 지출, 문화참여 등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문화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양혜원 외, 2011)
- 문화통계는 문화고용, 문화상품의 국제무역, 문화기업, 문화참여, 문화활동, 인터넷 이용, 개인의 문화 지출 영역으로 구분
 - 문화활동은 문화기능인 보존, 창작, 생산, 보급, 관리·규제, 교육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문화활동과 문화참여를 교차시켜 지표 제안
 - 문화고용은 ILO에서 제안한 국제표준직업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분류하며, 영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고용형태별, 종사상 지위별, 근무시간별, 직업안정성별 문화인구 비율을 통해 제시(양혜원, 2011)
 - 문화참여는 참여의 유형을 참여수용, 공연·아마추어 제작,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문화활동 영역과 참여유형을 교차시켜 지표 제안

[표 2-3] 유럽통계청의 문화활동 지표 체계

	문화유산	기록 보관소	도서관	도서·출판	조형예술	건축	공연 예술	시청각 멀티미 디어
보존								
창작								
제작								
보급								
관리, 규제								
교육								

출처: EU(2018)

(4) 캐나다, 문화통계프레임워크 연구

- 캐나다 통계청(CFCS: Canadian Framework for Culture Statistics)은 캐나다의 문화 측정과 관련된 개념적 문제를 논의하고, 표준 정의와 기준을 사용해 문화 통계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문화통계프레임워크 연구를 진행
 - 2004년 캐나다 통계청은 문화통계의 첫 번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전

국의 많은 조직과 정부가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활용해 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축·사용함

- 2011년 변화하는 문화 환경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프레임워크 구축을 시도함. 문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틀임. 또한 문화의 영역을 구분하고 핵심 영역과 하위 영역을 구분하여 [표 2-4]와 같이 제시함

[표 2-4] 캐나다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문화 영역(Culture Domains)					
A. 유산 및 도서관	B. 라이브 공연	C. 시각 및 응용예술	D. 문학 및 출판물	E. 시청각 및 쌍방향 미디어	F. 녹음
핵심 문화의 하위 영역(Core Culture Sub-domains)					
· 기록보관소 · 도서관 · 문화 유산 · 자연 유산	· 공연 예술 · 축제 기념행사	· 시각예술 · 예술품 복제 · 사진 · 공예	· 도서 · 정기 간행물 · 신문 · 기타 출판물	· 영화, 비디오 · 방송 · 쌍방향 미디어	· 소리 녹음 · 음악출판
부수적 문화의 하위 영역(Ancillary Culture Sub-domains)					
		· 광고 · 건축 · 디자인	· 수집된 정보*		
다영역(Transversal domains)					
G. 교육 및 훈련					
H. 거버넌스, 재정 및 전문적 지원					
인프라 영역					
I. 중재품(Mediating products)					
J. 물리적 인프라					

*카탈로그와 디렉터리의 설계·개발, 기타 저작권에 따라 수집된 정보 출판물을 포함

출처: Statistics Canada(2011)

2) 국가별 통계 구축 현황

(1) 영국의 문화통계³⁾

- 국가 통계는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제, 사회, 인구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문화 분야 통계는 〈사람, 인구 및 지역사회(People,

3) 문화센터의 해외통계 현황과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population and community)》영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문화관련 통계는 [그림 2-2]와 같이 문화정체성과 여가와 관광 분야임

- 문화정체성: 영국인의 민족성, 성 정체성, 종교 및 언어 측면에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제공
- 여가와 관광: 영국 여행자 수, 영국 여행자가 사용한 금액, 해외여행을 한 영국 거주자 및 여행 이유, 지출금액 등에 관한 통계 제공



출처: 영국통계청(<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

[그림 2-2] 영국 통계청 제공 통계 중 사람·인구·지역사회 분야

- 문화체육관광 통계는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에서 담당함
 -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는 영국 문화와 예술 유산을 보호하고 영국이 방문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혁신 투자 기업과 지역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서임.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서에는 〈박물관 및 갤러리 방문 통계(월별)〉, 〈후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간 성과 지표〉, 〈지역사회 생활 조사(Community life Survey)⁴⁾〉, 〈예술, 문화유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참여율(16세이상)〉 등의 통계자료를 제공함

(2) 호주의 문화통계⁵⁾

- 국가통계는 호주 통계청(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종합적으로 작성 및 공급하고 있음. 호주 통계청은 1991년 문화 및 여가 관련 통계를 위해 국립 문화 및 여가 통계 센터(NCCRS: National Centre for Culture and Recreation Statistics)를 설립함

4) 지역사회 생활 조사는 자원봉사, 기부, 소속감, 사회통합 등의 '다양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문화센터의 해외통계 현황,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국립 문화 및 여가 통계센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호주 통계청의 문화예술 관련 통계는 사람(People) 분야 문화와 여가(Culture and Recreation)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통계 목록은 다음과 같음. 「호주의 선정된 문화활동의 참여(Participation in Selected Cultural Activities Australia)」에서는 문화활동의 참여와 참여패턴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의 예술과 문화(Arts and Culture in Australia: A Statistical Overview)」에서는 문화행사 참여, 문화소비, 예술 교육 등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문화와 예술(Arts and Culture: State and Territory Profiles 2012)」에서는 문화 및 여가 활동의 참여, 정부의 문화자금 지원, 문화고용 등에 관한 통계를 제공함
 - Cultural and Creative Activity Satellite Accounts
 - Arts and Culture: State and Territory Profiles
 - Arts and Culture in Australia
 - Participation in Selected Cultural Activities Australia
 - Participation in Sport and Physical Recreation Australia
 - Value of Sport Australia
- 국립 문화 및 여가 통계 센터의 제공 통계는 호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이외에도 아래의 3개 목록에 대한 통계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음
 - Data Pooling of Adult Participation in Sport and Physical Recreation
 - Global Cultural Employment - UNESCO Pilot Survey
 - Cultural Funding by Government
- 호주의 국가예술참여조사(National Arts Participation Survey)
 - 국가예술참여조사는 호주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영향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지역사회를 더욱 강력하고 응집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실시
 - 조사주기는 비정기적이며, 2009년, 2013년, 2016년(비정기 조사)에 실시
 -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으로 2016년 기준 유효응답자 수는 7,537명임
 - 조사내용은 예술의 영향, 예술에 대한 태도, 예술 기부, 예술과 문화 다양성, 예술참여 경험, 예술에 대한 창조적 참여, 감상 및 독서, 온라인 참여 등임

(3) 캐나다의 문화통계⁶⁾

- 국가통계는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 총괄 작성·공급함. 캐나다 통계청은 시민과 의사결정자가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핵심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캐나다는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지하고, 문화산업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캐나다 통계청의 문화예술 관련 통계는 비즈니스 및 소비자 서비스와 문화(Business and consumer services and culture)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문화영역은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비디오 산업>, <음악 및 공연 예술>, <출판>, <문화재와 서비스 무역>, <기타>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제공됨. 문화와 여가 조사에서도 문화 노동력과 문화의 경제 기여라는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캐나다 문화관련 통계로는 「캐나다 문화 위성 체계(Canadian Culture Satellite Account)」가 있음. 캐나다 문화 위성 체계는 국내 총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캐나다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포함) 및 스포츠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측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산업에서의 고용에 관한 상세 정부, 문화산업 및 문화상품에서의 정부 세수 산정 등에 관한 통계를 제공함
- 캐나다 「사회 조사」로 문화와 여가 분야의 문화향유 통계(예: 지난 1년간 문화활동 참여율과 활동비용)를 제공하고 있음

(4) 미국의 문화통계⁷⁾

- 국가통계는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인구와 가구(예: 인구센서스, 주택조사, 인구 예측 등), 산업 분야(예: 경제센서스)의 통계에 집중되어 있음.
- 문화통계는 국가예술기금위원회(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통계목록은 아래와 같음
 - The Arts in Neighborhood Choice
 - U.S. Trends in Arts Attendance and Literary Reading: 2002~2017
 - Rural Arts, Design, and Innovation in America

⁶⁾ 문화센터의 해외통계 현황과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⁷⁾ 미국 통계청과 국가예술기금위원회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함

- Qualitative Analysis Findings: Folk & Traditional Arts Partnerships
-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Guide to Community-Engaged Research in the Arts and Health
- 국가예술기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통계 중 문화향유와 관련된 「공공예술참여도 조사(SPPA: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와 「예술기초조사(AABS: Annual Arts Basic Survey)」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음

[표 2-5] 국가예술기금위원회 홈페이지의 문화예술 통계

조사명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내용
공공예술 참여도조사	미국인의 다양한 예술·문화활동 참여 정도 파악	18세 이상	1982년부터 매년 조사 2012년부터는 5년에 1번 조사 (2002년, 2008년, 2012년,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활동, 라이브 공연, 영화 참여(관람) - 도서·문학(시, 연극, 소설, 단편소설 등) 활동 - 작품제작·공연(전자/디지털 미디어 포함) - 전자/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예술 소비 - 예술수업·강의 참여 - 비예술적 여가 활동 참여 - 인구통계학적 배경
예술기초조사	다양한 예술참여 현황 파악	18세 이상	2013년부터 매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브 음악, 연극, 댄스 공연 참여 - 영화 - 예술전시회 참여 - 시, 스토리텔링 이벤트 등 문학행사 참여 - 독서 - 예술수업·강의 참여 - 악기 연주 - 노래 부르기 또는 연습하기 - 예술적 목적의 영화 또는 사진 - 창조적 글쓰기 - 도자기, 보석류 제작

출처: 국가예술기금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rts.gov/>)

- 미국의 Americans speak out about the arts
 - 조사기관은 미국인을 위한 예술(Americans for the Arts)로, 미국의 예술가 예술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비영리 단체임. 현재 워싱턴과 뉴욕에 위치
 - 1차 연도 조사는 2015년에 진행되었으며, 최근 조사는 2019년 5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됨
 - 조사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3,203명으로 온라인으로 자료 수집
- 미국에는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사회, 교육, 경제적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Americans speak out about the arts는 참여, 교육, 정부 기금,

개인 및 지역사회의 혜택에 대한 심층조사가 차별성을 가진

- 청중과 창작자로서 예술 참여
- 예술 교육 및 정부의 예술 자금 지원
- 예술참여로부터 개인 및 복지 혜택에 대한 의견
- 개인적 혜택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관한 의견조사

2_문화 분야 통계의 국내 사례

1) 국내의 문화 분야 통계 연구

- 국내의 문화예술 통계는 유네스코의 「문화지표체계 권고서안」 이후 1983년 아시아의 문화체계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1986년 「문화통계 및 지표 체계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 1995년 「문화지표체계개선」이 발간됨. 문예진흥원과 문화정책개발원이 출판한 「문화예술통계자료집」은 「문화예술통계」로 제목이 변경되어 1992년 이후 3년마다 수정되어 발행됨(안인자, 2002)
- 국내 문화예술분야 통계생산 및 프레임에 관한 연구로는 김소영 외(2010)의 「문화예술분야 통계생산 및 관리방안 연구」, 고정민(2010)의 「주요 국가 문화예술통계 실태 분석」, 양혜원 외(2011)의 「문화예술통계 증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 변미리(2015)의 「서울문화지표 체계구축 연구」, 장세길·신지연(2016)의 「문화통계 체계구축 연구」, 박근화(2018)의 「문화체육관광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생산 및 활용방안 연구」가 있음. 각 연구의 지표선정 기준과 지표영역을 정리하면 [표 2-6]과 같음

[표 2-6] 국내 문화예술분야 통계생산과 프레임에 관한 연구

학자(연도)	목적	지표(데이터)선정 기준	지표 영역
김소영 외 (2010)	문화예술분야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대표지표를 제안하며, 문화예술분야의 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있음	대표성(정책포괄성) 측정가능성 표준화 가능성	문화시설 문화서비스 문화예술인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콘텐츠 문화복지 전통문화예술 문화예술 국제화
고정민* (2010)	해외 문화예술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기 위함. 또한 국제 통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	문화시설 문화향수 문화인력 문화예술시장 문화재정
양혜원 외* (2011)	문화예술분야 지표체계의 틀을 재구성하고 문화예술분야 주요문화지표의 선정 및 개발하기 위함. 또한 문화예술분야 주요문화지표 생산을 위한 실행방안 모색하고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종합 발전방안 마련하기 위함	-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문화적 환경(인프라) 조성 문화적 삶의 질 개선
변미리 (2014)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측정 체계 구축 및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위함	-	문화기반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참여 문화정책
장세갈· 신지연 (201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변화하고 있는 지역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면서 지역수요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라북도 문화통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정책적 활용가능성 지역 간 비교 지속적 데이터 구축 가능성	문화기반 확충 문화예술 향유 문화복지 증진 문화유산 계승 문화산업 육성
박근화 (2018)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빅데이터의 생산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기준 파일의 대표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데이터 연계 조건 충족 여부	

*지표연구는 구분기준 중에 대분류(영역)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통계체계에 관한 연구는 문화예술통계 체계의 비교 기준을 정리함

출처: 김소영 외(2010), 양혜원 외(2011), 변미리(2014), 장세갈·신지연(2016), 박근화(2018)

-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행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시도연구원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동연 외(2013)의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최영화 외(2017)의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가 있음. 각 연구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음

[표 2-기]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학자(연도)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	지표 영역
이동연 외 (2013)	한국사회에서의 문화다양성의 개념정의 및 분류, 어떠한 문화정책이 필요한지 제시하기 위한 첫 단계로 문화다양성의 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적용과 기초분석을 하는 데 있음	문화다양성의 개념 정의 및 영역 분류,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의 방향 설정, 문화다양성 지표 모델 개발, 지표개발에 따른 시범 적용	사회문화영역(국적, 권역, 종교, 언어) 문화정책성 영역(여성, 성소수자, 장애, 유아아동, 청소년, 노인) 문화예술영역(독립문화예술, 다원문화예술, 커뮤니티 문화예술, 다국적 문화예술)
최영화 외 (2017)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여 인천시 여건에 부합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지표선정 원칙: 상호배타적 지표 영역, SMART 기준 반영, 정량·정성지표 병행, 정책지표·여건지표·인식지표·활동지표 개발	정책(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여건(시설여건, 자원여건, 인력여건) 활동-소수자(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 인식-일반(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 찬반여부)

출처: 이동연 외(2013), 최영화 외(2017)

2) 중앙정부의 문화통계 구축현황

(1) 문화예술 관련 연감(yearbook)

①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

- 문예연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1976년부터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수집·정리하고 그 현황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의 현재 지형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작됨
- 문예연감은 2016년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433001호, 통계명: 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로 지정
- 문예연감은 국내에서 수행된 문화예술활동(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
- 자료는 자체 조사 및 행정 조사의 이원체계를 유지

[표 2-8] 자료수집방법

구분	조사 대상	조사대상 출처
문학 분야	2016년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문학 단행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행정지원)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 도서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대산문화재단 지원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 도서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시각 예술 분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 문화시설기반 총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소속 전시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 문예회관 소개 페이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소속 미술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홈페이지 회원관 페이지
	(사)한국화랑협회 소속 미술관	(사)한국화랑협회 홈페이지 회원 화랑 페이지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소속 전시장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의 홈페이지 멤버스 페이지
	작은미술관	2016년 운영 작은미술관 목록
	2013~2015년 문예연감 시각예술 조사 전시장	2013~2015년 문예연감 편람
	행정조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대상 행정조사
공연 예술 분야	등록공연장 목록 2015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 문화시설기반 총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소속 공연장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홈페이지 문예회관 소개 페이지
	(사)한국소극장협회 소속 공연장	한국소극장협회 홈페이지 회원 소극장 안내 페이지
	대학교 공연장	대학 알리미를 통해 대학 목록 확인 후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조사
	2013~2015년 문예연감 공연예술 조사 공연장	2013~2015년 문예연감 편람
	행정조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대상 행정조사
분야별 잡지	2016년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잡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행정지원)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 조사항목은 문학 분야, 시각예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그림 2-3]과 같음

	문학 분야						시각예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									
조사구분	단행본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도서	문학 잡지	문학 상	문학 행사	문학 학술 행사	문학 소사	시각 예술 활동	시각 예술 잡지	시각 예술 상	시각 예술 전시 행사	시각 예술 학술 행사	시각 예술 소사	공연 예술 활동	공연 예술 잡지	공연 예술 상	공연 예술 전시 행사	공연 예술 학술 행사	공연 예술 소사			
대분류		국내도서		번역도서					시각예술		융합(+공연예술)					공연예술		융합(+시각예술)				
		국내도서		번역도서					융합(+문학)		융합(+공연예술, 문학)					융합(+문학)		융합(+시각예술, 문학)				
중분류		일반도서		아동도서					개인전		단체전					창작초연		재공연				
소분류 1 (장르)		시	소설	수필/ 산문	평론/ 인문 연구서	화곡/ 시나 리오	기타		회 화	서 예	공 예	조 소	판 화	디 자 인	만 화	영 상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사 친	건 축	설 치	행 위	조 형	혼 합	기 타							
소분류 2 (세부장르)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3

[그림 2-3] 문예연감 조사항목 분류체계

- 문예연감 지표는 총괄, 문학, 시각예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으로 구분

[표 2-9] 문예연감 주요 지표

분야	지표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분야별 예술활동 건수 추이 - 지역별 · 분야별 예술 활동 현황 - 지역별 · 분야별 예술활동 지수 순위 - 공연과 전시가 가장 활발하게 열린 문화 시설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세부 장르 출판 종수 추이 - 아동 도서 세부 장르 발간 종수 분포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행 출판 분포
시각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전시 건수 추이 - 세부 장르 전시 건수 분포 - 17개 시·도 전시 건수 분포 - 전시 기간별 전시 건수 분포
국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국악 공연 추이 - 최근 5년간 세부 장르 공연 추이 - 창작 초연/재공연 공연 분포 - 17개 시·도 최근 5년간 공연 추이

[표 2-9 계속] 문예연감 주요 지표

분야	지표
양악	- 최근 5년간 양악 공연 추이 - 최근 5년간 세부 장르 공연 추이 - 창작 초연/재공연 공연 분포 - 17개 시·도 최근 5년간 공연 추이
연극	- 최근 5년간 연극 공연 추이 - 최근 5년간 세부 장르 공연 추이 - 창작 초연/재공연 공연 분포 - 17개 시·도 최근 5년간 공연 추이 - 아동청소년 연극 최근 5년간 공연 점유율 추이
무용	- 최근 5년간 무용 공연 추이 - 최근 5년간 세부 장르 공연 추이 - 창작 초연/재공연 공연 분포 - 17개 시·도 최근 5년간 공연 추이

주: 온라인에 게시된 주요지표는 <2015 문예연감>이 가장 최근 자료임

출처: 문예연감 홈페이지(<http://www.arko-yearbook.kr/?subPage=420>)

②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작
- 200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재단 자료 조사

[표 2-10] 문화기반시설 자료

분류	제공자료	관련부서
도서관	위치, 설립주체, 도서관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개관연도, 시설규모, 소장 자료, 직원현황(현원/정원), 운영예산, 이용현황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박물관	기본현황(소재지, 구분, 박물관 명칭, 주소, 연락처, 개관연월일, 등록현황,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온라인서비스 현황(온라인 주소, 서비스 제공), 시설현황(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시실, 수장고, 사회교육시설면적 등), 소장박물관(미술)관 자료 현황(소장유물, 지정문화재 등), 전시 및 프로그램 현황 등(기획/특별전, 운영프로그램), 개관(연 개관일수, 일평균 개관시간), 관람인원, 관람료, 인력현황	문화기반과
미술관	소재지, 구분, 명칭, 주소, 연락처, 개관연월일, 등록현황,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온라인서비스 현황,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시실, 수장고, 사회교육시설 면적, 사무실면적, 자료·도서실, 기획/특별전, 프로그램 총계, 연개관일수, 연관람일수, 연관람인원, 일평균관람인원, 관람료, 인력현황, 자원봉사자	문화기반과
문예회관	사군구, 건립주체, 시설명, 주소, 연락처, 운영주체, 홈페이지, 개관연월일, 연면적,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교육장, 회의시설 등, 야외공연장, 총직원 수, 전문직원 수, 공연일수, 전시일수, 공연유료관객, 총이용자 수, 연간운영비, 공연 및 대관수입	공연전통예술과
지방문화원	사군구, 문화원명, 원장, 설립일,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회원수, 인력현황, 예산현황, 시설현황, 주요 운영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의집	사군구, 문화의집명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개관일, 운영형태 및 운영주체, 연간 이용자 수, 운영 인력 수, 휴관일, 개관시장, 문화의집 총면적, 운영시설 현황, 프로그램 내용, 동아리 현황, 예산총액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재단	사군구, 재단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설립일, 설치조례, 이사장, 최초출연금, 기금규모, 주요사업, 조직현황, 인력현황, 예산현황, 사업현황, 사무실	지역문화정책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 문화예술 관련 실태(설문)조사

①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 실시
 - 1988년 1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 능력실태조사」 실시(미승인)하였으며, 1991년 통계청 승인 후 문화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향수실태조사」 실시, 2005년 3년 주기 2,000명 조사에서 2년 주기 3,000명 대상 조사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표본

크기를 확대하여 현재 10,000명 조사 실시

-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 활동 향유의 필요성 및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문화향수 진흥을 도모, 문화수요 파악과 실태 분석 및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그간 문화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
- 조사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0,000명이며, 2018년 기준 유효응답 자수는 10,558명, 서울할당 표본 수는 1,227명임
- 조사주기는 2년(2005년 3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변경)이며 전국 17개 시·도(제주도와 세종시 포함)를 1:1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조사함
- 조사내용은 [표 2-11]과 같이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 문화관련 활동, 역사문화 유적지 및 축제임

[표 2-11] 문화향수 실태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 직접 관람횟수 - 직접 관람 만족도 - 향후 1년 이내 직접 관람 의향
	복합문화예술 관람 실태	- 복합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직접 관람 실태	- 관람 지역 - 관람 방법 - 관람 시 동행인 - 문화예술행사 참여 시간대 - 문화예술행사 정보 습득 경로 - 문화예술행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 관람할 문화예술행사 선정 시 중요한 기준 -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움
	매체이용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 매체를 통한 이용 경험 - 이용 매체 및 주 이용 매체 - 매체 이용 만족도
	문화예술행사 참여실태	- 참여 경험 - 참여 활동 만족도 - 향후 1년 이내 참여 활동 의향
	문화예술 관련 지출	- 항목별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항목 -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

[표 2-11 계속] 문화향수 실태조사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경험	- 유아기 및 청소년기에 문화예술교육 경험 - 1년 이내 학교교육 외에 강좌나 강습 경험 - 1년 이내 경험한 강좌나 강습 만족도 -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
	문화예술교육 실태	- 교육 시설 - 문화예술교육 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 - 선호하는 교육 방법 -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 교육 시 어려움점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 1년 이내 이용 횟수 - 이용 공간 위치 및 만족도 - 문화행사 참석 횟수 및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공간방문의향	- 문화행사 참여시 어려운 점 - 향후 1년 이내 문화행사에 참여할 의향과 선호 프로그램 - 참여할 문화예술행사 선정 시 중요한 기준
문화관련 활동	문화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 활동 경험 및 참여 횟수 - 금전 기부 경험 여부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 참여 경험 - 참여한 동호회 성격 및 활동 공간, 참여 빈도
역사문화 유적지 및 축제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실태	- 최근 1년 이내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및 만족도 - 향후 방문 의향
	축제 관람 실태	- 최근 1년 이내 축제 경험 및 만족도 - 향후 참여 의향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tat.mcst.go.kr>)

② 국민여가활동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
 - 2006년 제1차 국민여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통계청 승인을 받음. 2012년 표본 수 2,000명에서 5,000명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4년 10,000명 조사로 재 확대함
-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 파악하기 위해 실시
- 조사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0,000명으로 2018년 기준 유효응답 자수는 10,498명, 서울할당 표본 수 1,220명임
- 조사는 2년마다 실시되며 조사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제주도와 세종시 포함)임
- 1:1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여가활동 참여 실태, 평일 및 휴일의 여가활동, 여가공간, 다양한 여가활동 유형, 여가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함

[표 2-12] 국민여가활동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여가활동 참여 실태	한번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 여가활동 유형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 여가활동 유형	- 여가활동 소요 시간
		- 여가활동 동반자	- 여가활동 비용
		- 여가활동 빈도	-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목적	-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	
	여가활동만족도	-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여가 경력	- 지속적 여가활동 유무	
		- 지속적 여가활동 분야	
		- 여가활동 지속기간	
		- 여가정보 습득 여부	
	여가 비용	-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 및 만족도	
		- 희망하는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	
평일 및 휴일 (휴가, 연휴) 여가활동	평일 여가 활동	- 평일에 참여한 여가활동	
		- 평일에 참여한 여가활동 만족도	
		- 평일에 희망하는 여가활동	
	휴일 여가 활동	- 휴일에 참여한 여가활동	
		- 휴일에 참여한 여가활동 만족도	
		- 휴일에 희망하는 여가활동	
	여가 시간	- 평일 및 휴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 평일 및 휴일의 여가시간 충분정도	
		- 평일 및 휴일의 여가시간 활용정도	
		- 평일 및 휴일의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휴가 활용	- 휴가 유무	
		- 휴가기간 및 휴가 일수	
		- 휴가기간 동안의 여가활동	
	연휴 활용	- 연휴기간 동안의 여가활동	
여가공간	여가공간	-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	
		- 향후 이용하고 싶은 여가공간	
		- 공공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	
		- 여가산업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다양한 여가활동	동호회 활동	- 동호회 활동 여부	
		- 동호회 활동 유형	
	사회성 여가활동	- 자원봉사 활동 경험	
		- 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 분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	
여가인식 및 만족도	여가인식	- 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	
		- 일(학업)과 여가의 균형	
		- 향후 여가시간 활용	
		-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여가에 대한 인식	
	행복수준	- 현재 행복 수준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tat.mcst.go.kr>)

③ 공연예술실태조사

- 공연예술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수행
 - 2005년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2007년 통계청 승인을 받음
- 공연예술실태조사는 공연예술분야의 현황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파악하고,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
- 조사대상은 전년도 조사모집단을 기반으로 등록공연장 리스트, 지역문예회관과 한국소극장협회 소속 공연장 리스트, 주요 공연행정기관의 지원 실적 리스트 등을 포함하여 최종 조사모집단 구축하여 선정

[표 2-13] 공연예술실태조사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범위 및 모집단 수집 경로
공연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공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년도 공연예술실태조사 모집단 - 공연법 상의 전국 등록 공연장 - 한국소극장협회 소속 공연장 - 전국 문예회관
공연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년도 공연예술실태조사 모집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단체 - 한국뮤지컬협회 가입 단체 - 전국예술법인단체

- 공연시설은 2008년부터 공연행정기관과 공연단체는 2016년부터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유효응답은 공연시설 723개, 공연단체 2,861개임
- 자료는 멀티조사(대인면접 조사가 원칙이나 현장방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응답자가 선호하는 방식 병행)로 수집하며, 공연단체 운영현황, 공공지원현황, 공연시설 운영현황 등을 조사함

[표 2-14] 공연예술실태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공연단체 운영현황	단체 기본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명, 창립연도, 인터넷 주소, 주소(소재지), 대표자명, 주요활동 장르 - 설립주체명, 설립주체 형태 - 운영주체명, 운영주체 형태
	단체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제도 운영, 회원제도별 현황 - 부대시설 보유 현황
	단체 인력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및 지원인력별 직원 현황 - 성별 및 고용형태별 직원 현황 - 분야별(업무별) 직원 현황 - 4대 보험 가입 여부
	단체 재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 총액 및 세부 수입현황 - 지출 총액 및 세부 지출현황
	공연실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기획/제작 공연 현황(장르별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 횟수, 총관객 수) - 행사참가/초청 공연 현황(장르별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 횟수, 총관객 수)
공공지원현황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명(자치단체명/인터넷 주소) - 주소
	공연예술 관련 예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공연예술예산 -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예산 - 문예진흥기금 및 지역기금 공연예술분야 지원실적
공연시설 운영현황	시설 기본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개관연도, 인터넷 주소, 주소(소재지), 대표자명, 등록유형 - 설립주체명, 설립주체 형태 - 운영주체명, 운영주체 형태 - 기본시설 보유 현황, 편의시설 보유현황, 체육시설 및 기타시설 보유현황
	시설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제도 운영, 회원제도별 현황 - 입주 공연예술단체, 입주단체별 현황 - 인터넷 입장권 판매 시스템 현황
	시설 인력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및 고용형태별 직원 현황 - 분야별(업무별) 직원 현황 - 4대 보험 가입 여부
	시설 재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총액 및 세부 수입현황 - 지출 총액 및 세부 지출현황
	공연장 규모 및 가동, 공연실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공연장 수 - 공연장 명 - 객석 현황: 총객석 수, 장애인 객석 유무, 장애인 객석 수 - 가동일수: 공연일수, 공연준비일수, 기타행사 일수 - 기획(제작)공연: 장르별 공연실적 - 대관공연: 장르별 공연실적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2017);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tat.mcst.go.kr>)

④ 예술인실태조사

- 예술인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
 - 1988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3년 주기)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 「예술인복지법」개정으로 예술인실태조사의 법적근거가 신설됨. 2015년 명칭, 규모, 방법 등을 전면 개편하여 실시
- 예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예술인 대상 조사로 예술관련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예술인으로 한정
 - 2015년 기준 총 14개 예술분야 131,332명 중 5,008명이 조사에 응답
-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3년 기준으로 실시하며, 1:1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자료를 수집하되, 방문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
- 조사내용은 5개 영역, 24개 항목으로 구성

[표 2-15] 예술인실태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예술활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 및 주 활동 분야 -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현황 - 주 활동 예술분야 입문 경로 및 연도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 현황 - 지난 1년간 외국 예술창작 활동 현황 -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 활동 현황 -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보유 현황
예술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예술분야 자원봉사 참여 현황 - 예술활동 창작 공간 보유 현황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및 비예술활동 수입, 지출 현황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주 수입원 현황 -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 현황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겸업 예술인 종사 현황 - 예술활동 및 비예술활동 직업 고용형태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계 현황
생활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 가입현황 - 실업급여 수혜 경험 - 업무상 상해 발생 경험 - 예술활동 경력단절 경험
예술정책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지원금 수혜 경험 - 예술활동 및 생활만족도 - 예술정책 및 지원만족도 - 예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책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tat.mcst.go.kr>)

⑤ 미술시장실태조사

- 미술시장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수행
- 2009년 처음 실시된 미술시장실태조사는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하는 미술시장 유통영역의 운영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술작품 유통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미술시장실태조사는 유통영역(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과 공공영역을 전수조사하며, 2017년 기준 유효표본은 유통영역 308개, 공공영역 180개임
- 조사는 대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인면접조사가 어려우면, 팩스·이메일·전화 조사 병행함. 조사내용은 [표 2-16]과 같음

[표 2-16] 미술시장실태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유통 영역	화랑	일반 현황 - 기본현황: 화랑유형/지역/설립연도/법적성격/지점 - 시설현황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세부 현황: 고용형태/담당업무/4대 보험 가입
		사업 운영 현황 - 전시개최현황 - 관람객 현황 - 아트페어 참가 현황 - 전속작가 제도 운영 현황
		작품 판매 현황 - 작품 세부 현황: 국내·외/판매방법/고객/장르
		재정 현황 - 매출현황 - 지출현황
	경매 회사	일반 현황 - 기본현황: 경매형태/지역/설립연도/법적성격 - 시설현황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세부 현황: 고용형태/담당업무/4대 보험 가입
		사업 운영 현황 - 경매 개최 현황 - 경매 외 사업 운영 현황 - 회원 현황
		작품 판매 현황 - 작품 낙찰 현황 - 경매 외 작품판매 현황 - 작품판매 세부 현황: 작품가격대/고객/장르/온라인/해외개최경매
		재정 현황 - 매출현황 - 지출현황
	아트 페어	일반 현황 - 기본현황: 참가방법/작품 장르 및 시대/지역/최초 개최년도/법적성격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세부 현황: 고용형태/담당업무/4대 보험 가입
		사업 운영 현황 - 아트페어 참가 현황: 참가화랑/참가작가/참가국 - 국제 아트페어 개최 현황 - 관람객 현황
		작품 판매 현황 - 작품판매 세부 현황: 판매방법/장르
		재정 현황 - 수입 현황 - 지출현황

[표 2-16 계속] 미술시장실태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공공 영역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작품설치 현황	- 작품설치 세부 현황: 설치부문/지역/작품가격대/건축물 용도/장르
	미술은행	작품구입 현황	- 작품구입 현황
		작품대여 현황	- 작품대여 현황
		정부미술은행 현황	- 작품구입 현황 - 작품대여 현황
	미술관	일반 현황	- 기본현황: 운영주체/등록/지역/설립연도/법적 성격/분관 - 시설현황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세부 현황: 고용형태/담당업무
		사업 운영 현황	- 전시개최 현황
			- 관람객 현황
			- 기타 사업 운영 현황
			- 회원 현황
		작품 판매 현황	- 작품판매 세부현황: 국내·외/판매방법/장르
		작품 수집 현황	- 수집방법별 현황 - 기증 작품 현황
		재정현황	- 수입 현황 -지출 현황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2017: 23~24)

⑥ 문화다양성실태조사

- 문화다양성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
 -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연구결과를 보완하여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
- 문화다양성실태조사는 문화다양성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지원정책과 기반 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작
-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소수자,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조사로 구분됨
 - 일반국민: 만 19세 이상 남녀 2,100명
 - 소수자 인식조사: 외국인근로자 300명, 결혼이주민 300명, 북한이탈주민 300명
 -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조사: 17개 시·도
- 일반국민은 온라인 조사, 소수자 인식조사는 대면조사로 실시하며 조사내용은 [표 2-17]과 같음

[표 2-17] 문화다양성실태 조사내용

구분	지표항목	세부지표항목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관심도	-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사회 현상 문제 인식 정도
	수용도	-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포용도	-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 사회차별 개선 필요 정도
	필요도	-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 -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 실태조사	친밀도	-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수용도	- 구성원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포용도	- 구성원에 대한 사회 포용 정도
	만족도	- 구성원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친밀도	-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수용도	- 구성원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포용도	- 구성원에 대한 사회 포용 정도
	만족도	- 구성원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사도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조례·규칙	- 해당사항별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와 규칙의 총개수
	지원사업	- 최근 2년 동안 해당 사항별 지원을 위해 실시한 사업
	예산	- 최근 2년 동안 해당 사항별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총액
	공공기관	- 해당사항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과 정보
	민간단체	- 해당사항별 문화예술 관련 민간활동단체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⑦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
 -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이 시행되고 그 법률적 근거에 의해 2015년 대중문화예술사업 실태조사가 최초로 시행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
- 조사는 2년주기로 실시하며 사업체와 종사자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 실시
 - 사업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952개,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541개 전 수조사
 - 종사자: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총 1,000명(목표) 표본조사

[표 2-18] 사업체 부문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기획업	제작업
기본 정보	사업체 일반 정도	- 사업체 형태/주소/설립연도	○	○
	사업체 세부 정보	- 코스닥 상장 여부	○	○
		- 벤처기업 지정 여부	○	○
		- 사업 분야/주요 사업 분야	○	○
		- 인원현황	○	○
		- 자본금 및 매출액	○	○
		- 해외지사 현황	○	○
세부 인력 현황	대중문화 예술인	- 세부 인력 현황	○	
		- 청소년 연예인 소속 현황	○	
		-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서 포함내용	○	
		- 최소/최대/평균/최빈 계약기간	○	
		- 가장 주된 구인 경로	○	
	소속 연습생	- 세부인력현황	○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 교육의 종류 및 방식	○	
		- 교육 횟수 및 시간	○	
		- 인당 투자비용	○	
		- 평균 계약기간	○	
		- 최소/최대/평균 데뷔기간	○	
	소속 직원	- 연습생 데뷔비중 및 비자발적 탈락 비중	○	
		-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여부 및 사용 계획	○	○
		- 세부 인력 현황	○	
		- 4대 보험 가입 현황	○	
		- 프리랜서 현황		○
		- 가장 주된 구인 경로	○	○
		- 신규 직원 채용 시 평가하는 항목		○
		- 신규 직원 채용 시 고충사항		○
사업 현황	매출 규모	- 분야별 매출액 구성 내역	○	○
		- 국내·외별 매출액 구성 내역	○	○
		- 분야별 매출액 증감 현황	○	○
		- 분야별 제작 완료 건수		○
	해외 진출 현황	- 해외 진출 주요 국가	○	○
		- 최초 해외 진출 경로	○	○
		- 향후 진출 희망 국가	○	○
기타 사항	국내 대중문화 예술 산업에 대한 평가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우위 분야	○	
		-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	○	
		- 해외 진출 시 고충사항	○	
	정부 지원 사항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	○	
		- 해외 진출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	○	
	기타	- 계약서 관련 법적 분쟁 사례 건수 및 분쟁 내용	○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인지도	○	
		- 관련 가입단체 현황	○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표 2-19] 종사자 부문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대중문화 예술인	대중문화 예술제작물 스태프
일반정보	기본정보	- 성별/연령	○	○
		- 거주 지역	○	○
		- 결혼 여부/자녀 여부	○	○
대중문화 예술 활동사항	대중문화예술 활동 분야	- 활동 분야/주 활동 분야	○	○
		- 데뷔 분야	○	
		- 해당분야 최초 입문경로	○	○
		- 총활동경력	○	○
		- 최근 2년간 참여 작품 수		○
		- 최근 2년간 월평균 근로일 수		○
		- 수입이 없는 평균 공백 기간	○	
	교육 현황	- 최종학력	○	○
		- 문화예술분야 전공 여부	○	
		- 세부 전공 분야	○	
		- 정규교육과정 외 대중문화예술 교육 경험	○	
		- 대중문화예술 관련 교육 과정 만족도	○	
	전업예술인 여부	-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직업 유무	○	
		- 대중문화예술분야 이외에 직업 활동	○	○
	소득 현황	- 평균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	○
		- 대중문화예술활동 관련 소득	○	○
		- 대중문화예술분야별 수입 비중	○	○
	대중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공 조건	○	
		-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평판	○	
고용 및 수입 현황/근로 환경	고용/수입 현황	- 연예기획사 소속 여부	○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
		- 표준계약서 내용	○	○
		- 최근 갱신 계약연도	○	
		- 작품활동 시 계약 형태		○
		- 주 계약 상대/주 계약 단위		○
		- 주 계약 주기/임금 지급 주기		○
		-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
		- 임금 수준		○
	4대 보험 가입 여부	-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형태	○	
		-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	○	
	근로 환경	- 상해사고 및 질병에 따른 조치		○
		- 임금체불 경험 및 관련 내용		○
		- 개선사항		○
		- 작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
	경력 관리	- 작품 참여를 위한 탐색 경로		○
		- 무보수로 제작에 참여한 경험		○
		- 경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향후 직업을 바꿀 의향 및 이유		○
기타		- 법적 분쟁 사례	○	
		- 대중문화예술 관련 가입단체	○	○
		- 대중문화예술 분야 활동 시 고충사항	○	○

출처: 이현우·허지영(2018)

(3) 문화예술 관련 통계 제공 사이트

- 국내 통계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
 - 통계청은 국내 통계를 비롯해 국제·북한통계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통계는 주제별·기관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 문화예술 관련 통계포털 시스템 구축사업은 2007년 시작되었으며, 문화센터의 운영 서비스는 2015년에 시작
 - 문화센터에서는 국내 문화예술 관련 승인통계뿐만 아니라 해외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Korea Performing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은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의 입장권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집계해 산업통계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하는 시스템
 - 2011년 문화체육관광포럼에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필요성이 제안되었고, 2014년 7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4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함. 이후 2016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데이터 전송기관은 2017년 기준 총 31개(누적)임
 - 데이터 전송기관(31개): NHN티켓링크, 예스24, 옥션, (주)인터파크, 클럽서비스주식회사, ㈜하나투어, 경기도문화의전당, 구로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대전예술의전당, 유니버설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투어, 대구문화예술회관, 플레이 티켓, 강동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악원, 국립극단,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용, 두산아트센터, 마포아트센터,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LG아트센터, 나눔티켓, 대학로티켓닷컴

[표 2-20] 문화예술 관련 통계 제공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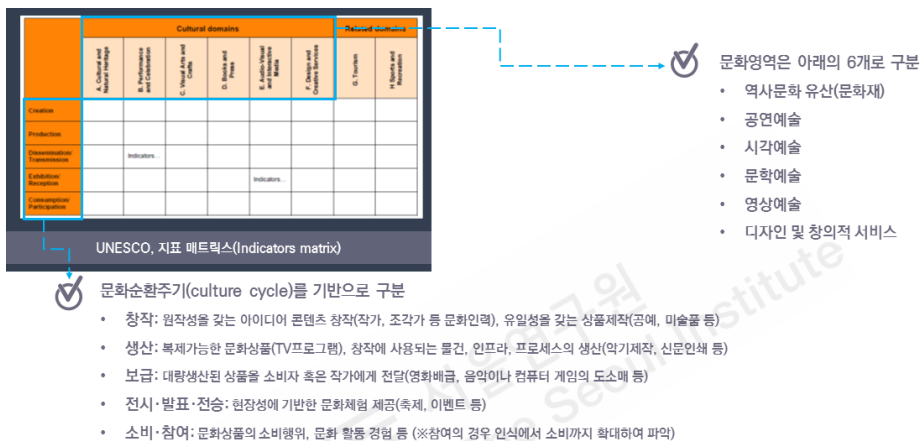
분류	관리주체	제공통계목록	
통계청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실태조사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 광고산업통계조사 - 국립공원기본통계 - 국민독서실태조사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 국민여행실태조사 - 국민체력실태조사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 문화재관리현황 -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 문화향수실태조사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방송산업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광고비조사 - 스포츠산업실태조사 -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 여행사 국제관광객 유치·송출 통계 - 예술인실태조사 -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저작권통계 - 전국도서관통계 - 정기간행물등록현황 -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 콘텐츠산업통계조사 - 한국관광통계 - 한국미디어패널조사 - 호텔업운영현황
문화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통계	공연예술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예술인실태조사 전국도서관통계 한국수어사용실태조사
		문화산업 통계	광고산업통계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정기간행물등록현황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관광 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호텔업운영현황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체육 통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국민체력실태조사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공연예술통합 전산망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통계는 기간별/지역별/장르별/가격대별/국내·내한별/공연시설별로 제공 예시) 지역별 통계는 개편편수, 상연횟수,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 관객점유율 파악 가능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tat.mcst.go.kr>),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홈페이지(<http://www.kopis.or.kr>)

3_시사점

1)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통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통계체계 표준화 시도

- 문화통계는 유네스코가 1960년대부터 문화통계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 문화통계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문화생태계적 관점으로 다양한 문화영역을 포괄하려는 시도임



[그림 2-4] 유네스코 프레임워크

- 유네스코의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해당 국가나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통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편적임
 - 캐나다는 2004년 유네스코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문화통계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011년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 유네스코의 문화지표는 문화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문화순환주기(culture cycle)에 따라 창작, 생산, 보급, 전시, 소비·참여로 구분하여 통계 제시
- 유럽통계청(Eurostat)은 1995년 유럽 국가 간 문화통계 표준화를 시도하였으며, 문화활동 이외에 문화고용, 문화재정 및 지출, 문화 참여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문화지표체계 구성을 시도함

2) 표준화 체계를 수용하되, 국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통계체계 구축이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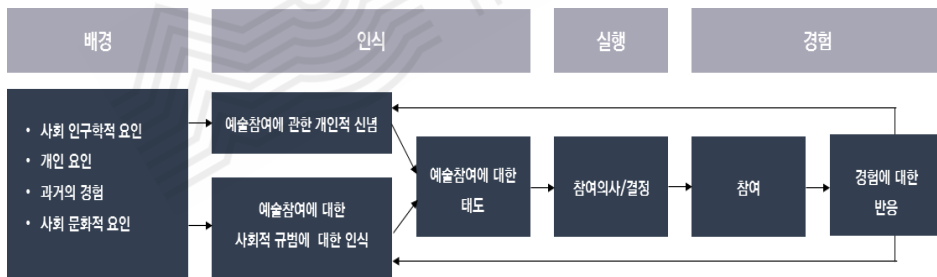
- 문화통계는 표준화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개별 국가나 도시에 적합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영국은 통계청이 국가 통계를 총괄 관리하며, 문화체육관광통계는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에서 기초통계 생산에 중점을 둠
 - 영국의 통계청에서 제공되어 있는 문화 분야통계는 <사람, 인구 및 지역 사회(People, population and community)> 영역에서 제공
 -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에서 생산하는 통계로는 <박물관 및 갤러리 방문 통계(월별)>, <후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간 성과 지표>, <지역 사회 생활 조사(Community life Survey)>, <예술, 문화유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의 참여율(16세 이상)> 등이 있음
- 호주는 통계청이 국가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 및 공급
 - 호주 통계청은 1991년 문화 및 여가 관련 통계를 위해 국립 문화 및 여가 통계 센터(NCCRS: National Centre for Culture and Recreation Statistics)를 설립하여 운영 중
 - 호주 통계청의 문화예술 관련 통계는 사람(People) 분야 문화와 여가(Culture and Recreation)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호주의 선정된 문화 활동의 참여(Participation in Selected Cultural Activities Australia)」에서는 문화활동의 참여와 참여패턴에 관한 통계를 제공
 - 「호주의 예술과 문화(Arts and Culture in Australia: A Statistical Overview)」에서는 문화행사 참여, 문화소비, 예술 교육 등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공
 - 「문화와 예술(Arts and Culture: State and Territory Profiles 2012)」에서는 문화 및 여가활동의 참여, 정부의 문화자금 지원, 문화고용 등에 관한 통계를 제공
- 캐나다는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지하고 문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공
 - 캐나다 통계청의 문화영역 통계는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비디오 산업>

〈음악 및 공연 예술〉, 〈출판〉, 〈문화재와 서비스 무역〉, 〈기타〉 등 5개 분야

- 「캐나다 문화 위성 체계(Canadian Culture Satellite Account)」에서 문화산업에서의 고용에 관한 상세 정부, 문화산업 및 문화상품에서의 정부 세수 산정 등에 관한 통계를 제공
- 미국의 문화통계는 국가예술기금위원회(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국가예술기금위원회에서는 「공공 예술참여도 조사(SPPA: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와 「예술기초조사(AABS: Annual Arts Basic Survey)」를 통해서 문화관련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

3)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파악과 함께 시민의 문화 참여를 세분화하여 조사

- 문화 참여 모델은 단계별(배경-인식-실행-경험)로 포괄적 조사가 필요
 - 호주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참여조사, 미국의 미국인을 위한 예술(Americans for the Arts)은 시민의 문화참여에 대한 심층조사 뿐만 아니라 문화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를 실시



출처: McCarthy, Kevin F. and Jinnett, Kimberly(2000: 24)

[그림 2-5] 문화 참여 모델의 과정

- 호주의 국가예술참여조사에서는 지난해 예술분야에 참여한 경험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하거나 공연 또는 전시를 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 예술분야 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은 시각예술(그림, 사진, 라이트아트, 디지털아트, 거리예술, 공예, 목공예, 직물예술), 연극(연기, 서커스, 제작에 참여), 무용(고전무용, 현대무용, 사회무용), 문학행사 또는 창의적 글쓰기(업무 또는 학업 제외), 음악(악기 연주, 노래, 작곡, 공연 참석)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음

- 전통예술과 문화(아보리진과 토레스 해협 원주민 예술)에 대한 태도와 인식, 호주 교육과정이나 예술에 대한 이해를 조사함
- 미국의 미국인을 위한 예술(Americans for the Arts)은 문화시설과 지역 경제, 문화시설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조사뿐만 아니라 문화참여 활동 장소와 경험을 세분화하여 파악
 - 문화시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문화시설이 지역 비즈니스와 경제에 중요한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예술기금을 늘리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조사하는 인식조사도 포함
 - 지난해 방문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소를 질문할 때, 음악공연, 오페라/뮤지컬, 시각예술과 같이 순수예술뿐 아니라 동물원, 수족관 또는 식물원, 역사적인 장소, 음악 공연(클래식 또는 대중가요), 역사 또는 과학박물관(어린이 박물관 포함), 미디어 아트(기술, 영화, 애니메이션, 로봇 등을 사용한 작품) 등과 같이 광의의 문화 개념이 포괄된 영역을 조사
 - 지역사회에서 예술과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하고, 지난해 공원, 공공장소 또는 광장, 거리 또는 보도, 학교, 쇼핑몰, 커뮤니티 센터, 공항, 병원,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 직장 등에서 예술 활동을 실제로 접했는지 조사

4) 우리나라 역시 유네스코 프레임워크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

- 중앙정부 문화통계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성
 - 보고통계는 <문예연감>, <전국문화반시설총람>이 대표적이며, 조사통계로는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인실태조사>,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화다양성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실태조사>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중앙정부 문화통계 역시 유네스코 문화분야에 따라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문화순환주기 등의 큰 영역을 유지함. 다만 세부영역 및 지표 등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적용
 - 생산되고 있는 통계들을 살펴보면, 공연, 미술, 문화산업, 지역문화 등의 문화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창작, 생산, 유통, 소비, 인프라, 기타 등으로 구분 가능([그림 2-6] 참고)
 - 이들 통계는 전국(시군) 단위에서 문화시설 분포나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비교하는 데 유용

문화순환주기	분야	공연	미술	문화산업	지역문화
창작	공연예술실태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미술시장실태조사	콘텐츠산업통계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사업실태조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지역문화현황통계 국가도서관통계
생산					
유통 (보급·전시·발표·전송)					
소비	문화향수실태조사 / 국민여가실태조사(일부)				
인프라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예연감, 문화재 관리현황				
기타(주체, 인식 등)	예술인실태조사				
	문화다양성조사				

[그림 2-6] 중앙정부의 문화 프레임워크

- 다만, 통계의 생산을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각기 담당하고 있지만 문화통계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기관의 목적에 맞추어 통계를 생산하는 상황
 - 예를 들어 <문예연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개별 발표물에 대한 전수조사 리스트를 담고 있는데, 그중 공연예술 분야를 살펴보면 국악(기악, 성악, 합창, 연희, 기타, 복합), 양악(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기타, 복합), 연극(연극, 뮤지컬, 기타, 복합), 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기타, 복합) 등으로 구분
 - <예술인실태조사>는 예술활동 분야를 문학, 미술(디자인 포함), 공예, 사진, 건축, 음악(양악,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뮤지컬, 오페라 포함),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만화(웹툰 포함), 기타(다원예술, 생활예술, 예술일반, 문예일반 등)의 14개로 구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문화활동을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등 9대 장르로 구분
 -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문화예술활동을 문학행사, 글짓기/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노래교실, 전통예술, 사진촬영, 춤/무용 등 7개 영역으로 구분
- 각 통계는 현상을 보여주는 데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책 활용을 위해 조사 결과를 해석하거나 서로 다른 조사를 비교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일부 조사는 중복성을 보여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 존재

- 예를 들어 <문예연감>과 <문화향수실태조사>의 문화영역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 프로그램 실태와 국민의 문화향수 실태를 연계하여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이는 예술인실태에서도 마찬가지.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의 시설 및 인력현황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담고 있는데, 일부 공공공연장과 문예회관이 중복되어 <공연예술실태조사>와 중복 조사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들 통계는 주로 보고자료 또는 면접조사로 자료가 수집되는데, 대부분의 자료를 생산해야 하는 기초 단위의 문화시설 담당자는 유사한 자료를 서로 다른 기준에 맞추어 생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함
- 한편, 해외 사례에서 시민문화참여를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향수 및 활동 조사 중심으로, 문화참여에 대한 심층조사나 문화인식조사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 예를 들어 국민의 문화참여 조사로 대표적인 <문화향수실태조사>는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 관련 활동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반면 문화예술참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의 항목은 부재
 - 또한 호주 국가예술참여조사를 보면, 예술참여경험 또한 매우 시각, 연극, 무용, 문학 등 대분류에 그치지 않고 그림, 사진, 라이트아트, 디지털아트 등 장르별 세부장르까지 파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분류에 그치고 있는 상황
- 전국 단위 통계는 통계 간 비교나 연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문화지형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본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나 자치구 등 지역 차원에서 활용하기에는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함. 그러나 서울시 문화통계의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통계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함. 다음 장에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함

03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 체계 검토



- 1_서울시 문화예술 관련 지표와 조사 현황
- 2_문화예술 관련 통계 사이트 구축 현황
- 3_서울의 문화 분야 통계 관련 법령과 계획
- 4_소결

03.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 체계 검토

1_서울시 문화예술 관련 지표와 조사 현황

1) 서울시 문화 분야 관련 지표

(1) 서울문화지표

-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문화지표 체계구축 연구(2014년 기준)」를 통해 53개의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시범조사를 실시해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조사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2015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⁸⁾」로 세부지표를 재조정하고 첫 조사를 실시
 - 서울문화지표는 유네스코 2009 FCS(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에서 제시된 문화영역의 분류 및 해외 주요국의 분류기준, 그리고 국내법 규정,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 영역을 정의하고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포함하여 문화예술영역을 분류함(서울문화재단, 2018)
 - 조사주기는 2년(2015년, 2017년)이며, 행정자료(서울시 내부 자료, 외부 통계자료)와 설문조사(서울서베이와 문화향유 실태조사 참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 서울문화지표의 지표체계는 5개 대분류, 20개 중분류, 53개 세부지표로 구성 ([표 3-1] 참조)

⁸⁾ 2015년 조사는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 및 분포 특성 연구」와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함

[표 3-1] 서울문화지표 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문화기반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정 문화재 수 - 시·도 지정 문화재 수 - 등록문화재 수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자 수 - 서울미래유산 수
	법정 문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지구와 문화도시 지정 수
	공공문화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문화기반 시설 수 - 생활문화공간 수 - 공공 문화기반 시설 규모 - 공공 문화기반 시설 종사자 수 - 공공 문화기반 시설 가동일 수 - 공공 문화기반 시설 프로그램 수 - 공공 문화기반 시설 이용자 수
	민간문화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문화기반 시설 수 - 민간 문화공간 수 - 민간 문화기반시설 규모 - 민간 문화기반 시설 종사자 수 - 민간 문화기반 시설 가동일 수 - 민간 문화기반 시설 프로그램 수 - 민간 문화기반 시설 이용 자수
문화인력	문화예술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고등교육기관 수 - 문화예술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및 졸업생 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및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 -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 수 - 문화예술 사업체 고용률 - 예술교육 강사 수
문화시장	문화예술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사업체 수 -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사업체 수
	문화예술 유통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규모
	문화예술작품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작품 유통량
	문화예술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사업체 매출액 - 공연상품 티켓 판매액
문화참여	여가와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휴일 여가시간 - 여가에서의 문화활동 비중 - 휴가기간 중 문화예술 활동 비중 - 여가공간 중 문화시설 이용률
	문화예술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람률 - 문화예술 관련 지출 비용
	문화예술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문화예술 자원봉사 경험률 -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율 - 지역문화예술 참여율
	문화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 수혜건수
	문화생활 및 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환경 만족도 - 문화예술 관심도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표 3-1 계속] 서울문화지표 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문화정책	문화정책 법체계	- 문화정책 조례 수와 제·개정 수
	문화예술 예산	-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 예산 비율 - 지역문화재단 민간 기부금 및 후원금액
	문화예술 창작 지원	-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산 총액
	문화정책 기구	- 지역문화 진흥기관 수 - 지역문화 진흥기관 인력 수

출처: 서울문화재단(2018)

(2) 세계도시 문화리포트(WCCR: World Cities culture Forum)

- 세계도시 문화리포트는 밥 컨설팅(Bob Consulting)이 주관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세계도시문화포럼⁹⁾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세계 주요 도시와 공통 문화정책 지표별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
- 세계도시 문화리포트 통계지표는 3개 영역, 75개 지표로 구성([표 3-2] 참조)

[표 3-2] 세계도시 문화리포트 지표

영역	지표
문화 인프라 및 생산영역 (42)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수
	-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수
	- 공공 도서관 수
	- 인구10만 명당 공공도서관 수
	- 사립 도서관 수
	- 공공도서관의 연간 도서대출 권수
	- 공공도서관 연간 1인당 도서대출 권수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건수
	- 공공지정 문화유산 및 유적지
	- 녹지공간 비율
	- 연극 공연장 수
	- 연간 연극공연 횟수
	- 음악공연장 수
	- 주요 콘서트 홀 수
	- 연간 음악공연 횟수
	- 코메디클럽 수
	- 연간 코메디쇼 공연 횟수
	- 연간 무용 공연 횟수
	- 갤러리 수
	- 국공립 문화예술전문가 교육기관 수
	- 사립 문화예술전문가 교육기관 수
	- 공립예술 및 디자인 전문가 양성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 일반대학교 내 예술 및 디자인 전공 학생 수
	- 비전문인 무용학교 수
	- 영화관 수
	- 스크린 수
	- 인구 백만 명당 스크린 수
	- 연간 전국 개봉 영화편수
	- 연간 전국 외화 개봉편수
	- 영화제 수
	- 서점 수
	- 희귀본 및 중고서점 수
	- 연간 전국 도서출판 건수
	- 나이트클럽 디스코, 댄스홀 수
	- 바 숫자
	- 인구 천 명당 바의 수
	- 음식점, 레스토랑 수
	- 미술점 별점 음식점 수
	- 토산·공예품시장 수
	- 축제 및 기념행사 수
	- 외국인 대학생 수
	- 비디오게임 아케이드 수

9) 세계도시문화포럼은 영국 런던시청이 주도하여 2012년에 발족하였고, 2013년 기준 22개 회원도시들이 가입되어 있음

[표 3-2 계속] 세계도시 문화리포트 지표

영역	지표
문화소비 및 참여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회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자 중 성인비율 - 상위 5개 박물관, 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수 - 상위 5개의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1인당 방문 횟수 - 상위 5개 미술전시회의 하루 평균 관람객 수 -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개방 행사 참가자 수 - 모든 공연장에서의 연간 입장권 판매 수 - 연간 1인당 공연 관람 수 -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 총계 - 연간 1인당 공연 티켓 구매액 총계 - 연간 영화 입장권 판매 수 - 연간 1인당 영화입장권 판매 수
도시 일반현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총인구수 - 국가 인구 대비 도시 인구 비율 - 노동연령인구 - 가구수 - 해외출생 인구비율

출처: 서울문화재단(2013)

(3) 도시정책지표(서울서베이) 중 문화와 여가 분야

- 도시정책지표는 서울연구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행정자료와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함. 조사는 매년 실시되나 문화와 여가 분야 설문조사는 짝수 연도에 진행(2년에 1번)¹⁰⁾
- 서울서베이 지표체계는 12개 분야, 32개 영역, 209개 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 문화관련 지표는 3개영역, 21개 지표로 구성([표 3-4] 참조)



[그림 3-1] 서울서베이 지표체계

¹⁰⁾ 문화와 여가파트 설문조사는 2011년 지표영역의 모듈화를 통해 짝수 연도에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서베이의 조사모듈은 다음과 같음

[표 3-3] 서울서베이 문화영역 변화

연도	분야	영역			
2010년 ~2016년	문화	시민문화 활동	시민문화 진흥	문화기반 환경	문화시장 환경
2017년 ~2018년	문화와 여가	문화활동과 향유		문화기반	문화시장

출처: 서울사서울연구원 각 연도

[표 3-4] 서울서베이 중 문화와 여가 분야 지표(2017~2018년)

영역	지표	출처	분석기간	주기
문화 활동과 향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서울서베이	2012년~2016년	2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용	서울서베이	2012년~2016년	2년
	문화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2006년~2017년	매년
	여가활동 유형	서울서베이	2010년~2016년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4년~2016년	2년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권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07년~2017년	매년
문화 기반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유산 잠정목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1994년~2017년	-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07년~2017년	매년
	전시시설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2002년~2017년	매년
	공연시설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00년~2017년	매년
	공공체육시설	서울시 체육진흥과	2009년~2017년	매년
	영화관람시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2005년~2017년	매년
문화 시장	지역문화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담당관	2010년~2017년	매년
	공연건수 및 전시 횟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00년~2016년	매년
	시 지정 전문예술 단체 수	서울시 문화국 문화예술과	2001년~2017년	매년
	문화관련 사업체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년~2016년	매년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년~2016년	매년
	문화예술지원건수 및 액수	서울문화재단	2008년~2015년	매년
	출판사 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2005년~2017년	매년
	민간문화활동 지원액*	한국메세나협회	2000년~2016년	매년
	문화예술 예산비율*	서울시 예산담당관	2013년~2017년	매년
	외국인 관광객 수*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2000년~2017년	매년

*배경지표

출처: 서울사서울연구원(2017)

(4) 희망서울생활지표 중 문화와 관광 분야

- 2011년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과 시민보고서 발간을 민선5기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행정투명성, 주민참여도, 재정건전성 등 새로운 삶의 질, 시정운영 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희망서울생활지표를 개발하여 2012년 1월 공표
- 희망서울생활지표체계는 3대 영역, 9개 분야, 88개 지표로 구성되며, 이중 문화와 관광영역 지표는 [표 3-6]과 같음

[표 3-5] 희망서울생활지표 체계

개인과 가정생활			사회와 사회활동			환경		
주거와 생활	가족과 가정	건강과 보건	경제 생활	교육과 보육	안전과 교통	문화와 관광	자연과 생태	인구 거버넌스

출처: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서울통계서비스(<http://data.seoul.go.kr>)

[표 3-6] 희망서울생활지표 중 문화와 관광 영역

지표	출처	분석기간	주기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2014~2016년	2년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4~2016년	2년
시민 1인당 공공 체육시설 면적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13~2017년	매년
거주지역 문화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2013~2017년	매년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13~2017년	매년
외래관광객 재방문 의향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13~2017년	매년
한양도성 탐방로 정비 길이	서울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2015~2017년	매년

출처: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서울통계서비스(<http://data.seoul.go.kr>)

2) 문화예술 관련 조사 현황

(1)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

-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는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 문화관심집단의 문화향유 실태 파악 및 일반시민과의 특성 비교, 지역문화특성에 맞는 진단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둠
- 조사대상은 문화관심집단(서울시 문화행정 서비스 이용자)과 일반시민이며, 2016년 기준 유효표본은 문화관심집단 5,706명, 일반시민 2,000명임

-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진행(2014~2015년 매년, 2016년부터 2년 주기)되며, 온라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시민 조사 중 50~60세 이상의 50%는 면접조사 병행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은 문화/여가활동 관심도 및 행태, 문화예술 관람 경험 및 만족도, 문화예술 참여 경험 및 만족도,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관람지역, 삶의 행복 등으로 구성

[표 3-7]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문화/여가활동 관심도 및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평균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성 - 주로 하는 여가활동 및 여가활동 동반자 -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 - 문화예술 관심도
문화예술 관람 경험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활동 관람(총횟수/본인 지불 횟수/총비용) - 관람 만족도 - 향후 관람 횟수/지불 비용 증감 의향 - 문화예술 관람(참석) 동반자 - 문화예술 행사 주 관람 지역 - 문화예술 활동 고충사항
문화예술 참여 경험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참여 경험/참여 형태 - 문화예술 참여 만족도 - 향후 관람 횟수 및 지불비용 증감 의향(문화예술 교육 수강, 문화예술 취미 활동, 문화예술관련 자원봉사활동) - 문화예술 교육 장소 - 문화예술 교육 고충사항 - 문화예술 교육 비참여 이유 -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고충사항 - 문화예술 취미활동 고충사항 - 문화예술 취미활동 미참여 이유 - 자원봉사활동 비참여 이유 - 문화관련 동호회 비참여 이유 - 문화예술 주 활동 지역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관람지역, 삶의 행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활동 전반적 만족도 - 서울 문화환경 전반적 만족도 - 자치구 문화환경 전반적 만족도 - 문화예술 중요도 - 삶의 만족도(행복도)

출처: 서울문화재단(2016)

(2)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

-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는 서울연구원이 비정기적(2007년, 2015년)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행정자료와 직접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함
- 조사는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영상예술자원, 생활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축제로 구분하여 실시

[표 3-8]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 조사내용

분류			조사내용
역사 문화 자원	문화재	국모,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문화재(보유자), 중요 민속자료, 지방문화재, 등록문화재	위치, 지정일, 소유자, 관리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세계유산 목록
		서울 미래유산	위치, 영역구분
	그외	박물관, 전통문화보전 전수 시설	위치, 연혁, 개관일, 규모, 전시내용, 홈페이지, 전화번호
예술 문화 자원	종합예술시설		위치, 설립/운영주체, 개관일, 시설(공간구성), 운영프로그램, 홈페이지, 전화번호
	공연예술	공연장	위치, 설립/운영 주체, 개관일, 객석수, 공연내용, 홈페이지, 전화번호, 공연 건수 및 횟수
	시각예술	미술관	위치, 운영주체, 개관일, 규모, 전시내용, 홈페이지, 전화번호, 미술관 인력, 연평균 관람객 수, 전시회 개최건수
		화랑	위치, 설립/운영주체, 개관일, 전시장 규모, 전시내용, 홈페이지, 전화번호, 전시 횟수
		갤러리카페	위치, 설립/운영주체, 개관일, 전시장 규모, 전시내용,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매소	위치, 운영주체, 경매 종류, 홈페이지, 전화번호
	문학예술	문학관	위치, 운영주체, 설립일, 문학작품 발표 건수
		출판사/인쇄소	위치, 종사자 수
		서점	위치, 규모, 홈페이지, 전화번호
영상 예술 자원	영화예술	영화관	위치, 개관일, 규모, 스크린 수, 객석 수, 예술 전용관 보유 여부, 홈페이지, 전화번호
		영화 제작 관련 업체	위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방송예술	방송사, 방송 제작 관련 업체	위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활문화자원		도서관	위치, 개관연도, 규모, 열람석, 보유 도서 수,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용자 수, 대출책 수, 운영 인력
		구민회관/문화예술회관	위치, 대표자, 객석 수, 규모 주요시설
		문화의집	위치, 운영/주체, 설립일, 전화번호, 연간 이용자 수, 운영 인력
		청소년문화시설	위치, 운영주체, 개관일, 시설, 프로그램 홈페이지, 전화번호
		마을예술창작소	위치, 운영주체, 운영프로그램
		마을북카페	위치, 운영주체, 운영프로그램
문화 인력	문화예술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대표자, 설립연도, 법적 형태, 활동유형, 장르, 주소
		정규교육시설	위치, 분야, 설립연도, 관련 전공, 홈페이지, 전화번호
	교육시설	비정규교육시설	위치, 분야, 등록일, 교육내용
문화축제		예술축제, 문화축제	운영주체, 장소, 일시, 주요 프로그램, 홈페이지

출처: 백선혜 외(2015: 9~11)

2_문화예술 관련 통계 사이트 구축 현황¹⁾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는 문화관광 통계¹²⁾를 관광, 문화기반, 생활체육, 사회인식·실태의 4개 범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예술분야 통계목록은 [표 3-9]와 같음

[표 3-9] 서울통계서비스 중 문화예술 분야

분야	통계명	출처	갱신주기	기간
문화기반	문화공간(공연장)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3년~2017년
	문화공간(영화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3년~2017년
	문화공간(전시시설)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3년~2017년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3년~2017년
	문화공간(문화보급 전수시설)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3년~2017년
	문화공연 및 전시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정기(매년)	1998년~2017년
	인구 10만명당 공연횟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정기(매년)	2009년~2017년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정기(매년)	2013년~2018년
	문화예술지원 현황	서울문화재단	정기(매년)	2004년~2015년
	전문예술법인 지정단체	서울시 문화국 문화예술과	정기(매년)	2001년~2017년
	예술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매년)	1997년~2017년
	문화재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정기(매년)	1997년~2017년
	문화공간(공연장)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3년~2017년
	문화공간(영화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3년~2017년
	문화공간(전시시설)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3년~2017년

11)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서울통계서비스(<http://data.seoul.go.kr/dataService/boardList.do#submenu1>)

12) 서울통계연보의 교육 및 문화 파트의 목록과 유사함. 서울통계연보의 문화영역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현황, 문화재, 예술단, 문화공간, 공공체육시설, 신로·등록체육시설, 시립운동장, 청소년 수련시설, 고궁 및 공원 이용현황, 언론매체,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관련업체 현황임

[표 3-9 계속] 서울통계서비스 중 문화예술 분야

분야	통계명	출처	갱신주기	기간
문화 기반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3년~2017년
	문화공간(문화보급 전수시설)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3년~2017년
	문화공연 및 전시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정기(매년)	1998년~2017년
	인구 10만 명당 공연횟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정기(매년)	2009년~2017년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정기(매년)	2013년~2018년
	문화예술지원 현황	서울문화재단	정기(매년)	2004년~2015년
	전문예술법인 지정단체	서울시 문화국 문화예술과	정기(매년)	2001년~2017년
	예술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매년)	1997년~2017년
	문화재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정기(매년)	1997년~2017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착수실적 비율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정기(매년)	2004년~2010년
	박물관 현황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2000년~2017년
	미술관 현황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2016년~2017년
	도서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정기(매년)	2007년~2017년
	공공도서관(구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정기(매년)	2007년~2017년
	공공도서관(설립주체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정기(매년)	2007년~2017년
	언론매체(2009년 이후)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가온	정기(매년, 12월 기준)	2009년~2016년
	언론매체(2008년 이전)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가온	정기(매년, 12월 기준)	1996년~2008년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구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정기(매년)	2007년~2017년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동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정기(매년)	2007년~2017년
	출판관련업체 현황(2006년 이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정기(매년)	1997년~2006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행정안전부	정기(매년)	2012년~2017년

[표 3-9 계속] 서울통계서비스 중 문화예술 분야

분야	통계명	출처	갱신주기	기간
사회 인식· 실태	문화환경만족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매년)	2006년~2017년
	서울축제 관심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2년)	2012년~2014년
	서울축제 참여율 및 만족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2년)*	2003년~2014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인지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매년)**	2008년~2010년
	서울시민 고향 인식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매년)	2003년~2017년
	서울 랜드마크 인식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매년)**	2003년~2010년
	생활여건의 변화(문화·생활여가 향유여건)	통계청, 사회조사	정기(2년)	2005년~2017년
	문화시설 보유가구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정기(5년)***	1970년~1990년
	문화활동 연간 방문횟수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2년)*	2005년~2016년
	문화활동 연간 평균비용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2년)*	2005년~2016년
	문화활동의 어려움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2년)	2012년~2016년
	순수문화활동 참여율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매년)**	2003년~2008년
	대중문화활동 참여율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매년)**	2003년~2008년
	스포츠레저활동 참여율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매년)**	2003년~2006년
	여가 생활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정기(5년)	1999년~2014년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통계청, 사회조사	정기(2년)	2007년~2017년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통계청, 사회조사	정기(2년)	2007년~2017년
	함께 여가활동하는 사람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2년)	2012년~2016년
	주말·휴일 여가활동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2년)	2010년~2016년
	하고 싶은 여가활동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2년)	2012년~2016년
	희망하는 여가활동	통계청, 사회조사	정기(2년)	2007년~2017년
	독서현황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매년)**	2003년~2008년
	한강시민공원 이용 만족도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매년)**	2005년~2010년
	한강시민공원 이용여부 및 주 이유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정기(매년)**	2005년~2010년

*~2010년 매년주기,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변경

**현재 서울서베이 조사문항에서 삭제

***2010년 종료문항

출처: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서울통계서비스(<http://data.seoul.go.kr>)

검색일자: 2019년 3월 19일

3_서울의 문화 분야 통계 관련 법령과 계획

1) 문화 분야 통계·조사 관련 법령

- 서울시는 2014년부터 문화분야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시작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 등 문화 분야의 중심 이슈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 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조사가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2014.1.28.제정)」 제11조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 관한 것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2018.10.16.일부개정)」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문화시설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
으로 지정됨

- 「문화다양성의보호증진에관한법률(2014.5.28.제정)」은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
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제정된 것으로 제8조에 <문화다양성실태조사>를 의무화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7.5.18.제정)」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된 것으로 제10조에 <문화다양성실태조사>를 의무화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기본계획(「2030 서울문화플랜」)에서 제시한 문화지표 조사계획

(1) 문화권 강화를 위한 지표조사 제시

- 서울시는 2016년 시민 개개인의 행복에 중점을 두고 「비전 2030, 문화시
민도시 서울」을 설정하고 다양한 전략을 수립함(서울특별시, 2016)
- 시민의 문화적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정책 환류로 문화권을 강화하기 위

해서 시민의 문화와 활동실태를 측정하는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 문화 활동 기반을 조사하는 〈서울문화생태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측정하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함. 이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

- 각 조사는 3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며, 연차별로 1개 조사가 이루어져 매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

[표 3-10] 조사개요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	문화다양성실태조사
조사내용	시민들의 문화관람 및 향유, 참여·활동, 교육실태 등을 조사	예술·스포츠·관광·여가 등 모든 분야의 문화지표 조사	문화다양성 구성요소, 문화다양성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실태 조사
조사주기	3년	3년	3년

출처: 서울특별시(2016: 27)

(2)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지표의 형성 제안

- 현재 시를 기본단위로 하고 있는 문화지표 체계를 각 자치구 단위 문화지표 체계로 전환하고 자치구별로 문화지표 체계가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
- 각 자치구 단위의 문화지표는 필수지표, 권장지표, 특화지표로 구성하며 각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관리함. 또한 각 지표는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를 통해서 관리
 - 필수지표: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직접 참여하여 활동·관리·운영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 권장지표: 예술시설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주민의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 특화지표: 해당 지역에만 있는 특화된 유형의 자원이나 시설, 프로그램
-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에 기초하여 문화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문화지도 작성

4_소결

1) 서울시 문화통계는 중앙정부 전국단위 통계에 의존하여 서울시 문화생태계 영역별 균형적 접근에 한계

- 서울시 문화통계는 주요 데이터를 전국단위 통계에 의존하는 구조임. 서울시 전체 현황 및 전국(국제) 비교는 가능하나 서울시내 지역(자치구) 간 비교가 어려움
 - 전국단위의 통계는 전국 수준에서 시·도별 문화생태 비교 등에 적합한 자료로, 서울시 문화생태(창작-생산-유통-소비)를 고려하여 조사체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
 - 이 때문에 서울시 주요 문화정책의 효과와 근거자료로 사용하기에 불충분하며 데이터 간 연계분석 및 정책적 의미 해석이 곤란한 한계
-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문화통계를 유네스코 문화지표 매트릭스¹³⁾에 따라 분류한 결과, 문화생태계 각 영역을 균형 있게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참고).

문화순환주기	분야	공연	미술	문화산업	지역문화
창작	공연예	전국단위 조사 활용		콘텐츠산업통계 출판미디어	한통계 한통계
생산					
유통 (보급·전시·발표·전송)				영화관입장권통합 전산망	
소비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서울서베이				
인프라	서울시 문화자원실태조사, 서울서베이				
기타(주체, 인식 등)	예술인실태조사				
	전국단위 조사 활용 문화다양성조사				

[그림 3-2] 유네스코 문화지표 매트릭스로 살펴본 서울시 문화통계 조사체계

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 매트릭스의 가로축은 문화영역과 관련영역으로 구분되며, 세로축은 문화순환주기(창작-제작-보급-전시·발표·전송-소비·참여)로 구분됨

- 소비와 인프라 영역에 해당하는 조사를 제외하고 창작, 생산, 유통, 주체(예술인 등) 및 문화정책 인식 등 기타 문화예술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및 연구가 부족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문화지표」의 자료출처는 전국단위의 조사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표 3-11]과 같이 일부 데이터만이 서울시 제공 자료로 파악이 가능
- 전국단위 조사자료는 전체적인 경향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만, 서울시·자치구단위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하려면 자치구(행정동) 단위의 자료구축이 필요

[표 3-11] 서울문화지표 자료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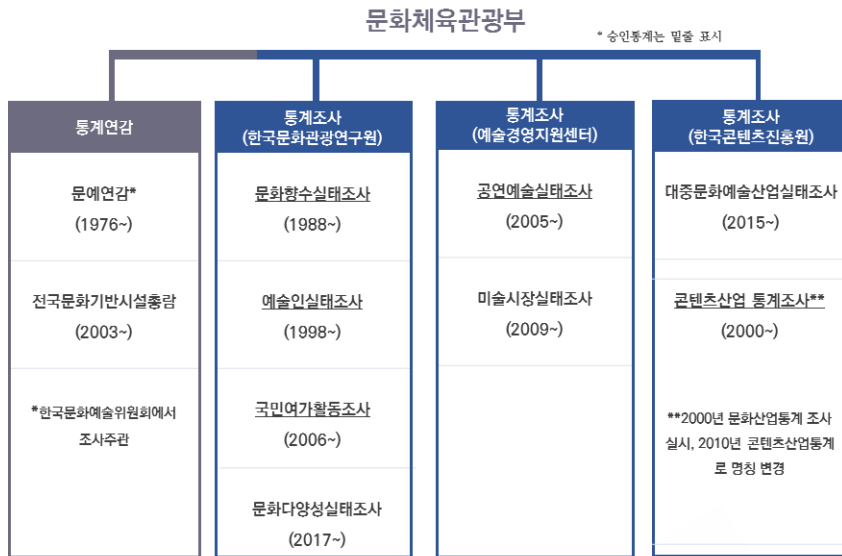
	역사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예술	영상예술	생활예술	기타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계 예술활동증명 예술강사 수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계 예술활동증명 예술강사 수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계 예술활동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통계 예술활동증명 예술강사 수 		
생산(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조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조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조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조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조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조사 보고서 사회적경제 현황
유통(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업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연감 서비스업조사 공연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연감 서비스업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연감 서비스업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서비스업조사 		
유통(전시·발표·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예술실태조사 등록공연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미술시장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상영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방, 공방, 서울문화재단창작 공간운영사업 지역축제 개최계획
소비·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서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예술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서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미술시장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서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여가활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서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국민여가활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서베이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문화유산 포털 한국유네스코 등재현황 미래유산지정 현황 문화지구현황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공연장 현황 공연예술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미술시장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상영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문화공간현황(서울시) 마을정보지도(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법규시스템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지역문화재단 업무보고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주: 밑줄 표시된 부분은 출처가 서울시와 서울시 관련 기관에서 제공된 자료임

-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국단위 통계의 문제점, 즉 문화통계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조사자료 간 연계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서울시 문화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남
 - 예를 들어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는 문화활동을 미술관·전시관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박물관 관람, 음악공연관람(클래식, 오페라 등), 무용공연관람(현대무용, 발레 등), 전통예술공연관람(국악, 민속놀이 등), 연극공연관람(뮤지컬 포함), 문학행사 관람(시낭독회, 도서전시회 등), 극장에서 영화관람(TV, 컴퓨터를 이용한 영화시청은 제외), 대중공연 관람(쇼, 콘서트, 마술쇼 등), 축제(야외행사 포함)관람 등으로 구분. 중앙정부의 <문화향수실태조사>는 문화활동을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등 9대 장르로 구분함.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와 <문화향수실태조사>는 유사한 조사이지만, 조사항목이 미묘하게 달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움
- 또한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역시 <문화향수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문학행사 관람과 활동, 문화예술교육 참여 등 경험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문화 참여와 관련된 배경과 인식, 실행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 문화예술 활동 경험과 인식에 대한 항목이 존재하나, 이 역시 문화예술 활동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의견, 자신의 삶과의 관계성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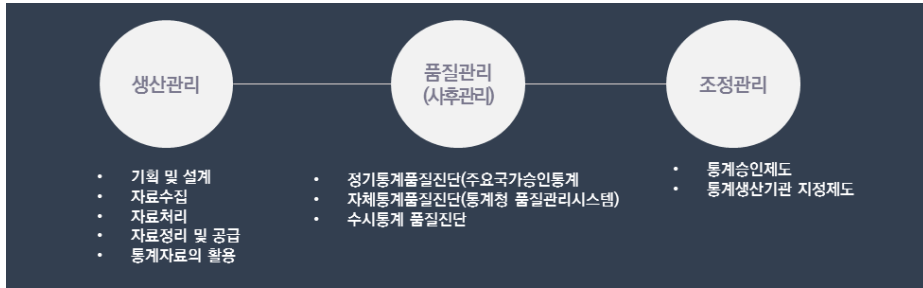
2) 다양한 생산주체가 기관별 필요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여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통계 생산이 어려움

- 통계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통계조직과 통계작성 능력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분산형 통계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양혜원, 2011)
- 중앙정부의 문화통계는 분산형이나 서울시는 집중형임
 - 중앙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하에 보고통계(문예연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와 조사통계(문화향수실태조사, 예술인실태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를 관리하는 분산형
 - 서울시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기초 통계 및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집중형



[그림 3-3] 중앙정부 문화통계의 작성·관리체계

- 그러나 서울시의 통계관리 주체인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화통계를 통합 관리하기는 어려움. 실제로 서울시에서 문화통계를 생산하는 주체는 크게 서울시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서울연구원이며, 이들 생산주체가 일관된 기준이나 계획 없이 기관의 필요에 의해 통계를 생산하는 상황
 - 서울연구원이 <문화자원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기성을 결여한 일회성 조사임.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격년 조사 체계를 갖추어 가는 중임. 다만,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활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서울시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관련 각종 보고통계를 수집하고 있으나, 문화통계 관리가 업무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
- 또한 서울시 문화통계체계를 살펴보면, 데이터 생산주체는 있으나 관리·조정 영역이 부재하여 통계 수요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데이터 축적, 공유, 활용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음, 또한 생산-관리-유통 체계의 부재로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됨
- 이충화·김수경(2018)의 연구에 따르면, 통계 관리체계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조정관리라는 3단계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현재 서울시의 문화통계는 생산관리는 되고 있으나 품질관리 및 조정관리에 한계를 보임



[그림 3-4] 통계 관리체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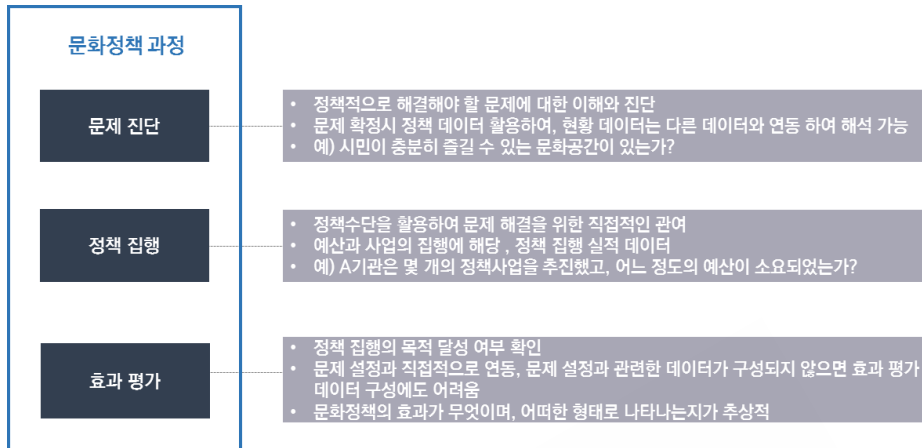
3)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지표체계와 표준화에 대한 연구 필요

- 국제비교가 가능한 동시에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문화지표 설정이 필요
 -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2006)에 따르면, 국가 간 공통의 문화예술 경쟁력 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영역별로 국제 비교 가능한 지표체계가 필요
 - 그러나 유네스코의 문화통계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도시에서 동일한 방식의 문화통계가 집계되지 않음. 이는 정의 및 분류의 차이, 방법론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함(고정민, 2010). 정의 및 분류의 차이는 국가마다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의 범위/범주의 차이가 발생. 가령 각국의 문화예술 통계를 관리하는 주체 기관의 영역 범주에 따라 통계범위가 달라짐. 또한 국가마다 데이터 입수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문화의 수량화, 계량화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세계의 주요 국가/도시별로 자체 기준에 의해 방법론을 설계하고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김소영 외(2010)는 다른 국가들의 문화예술분야 통계작성 기준 또는 통계의 영역을 따라 가기보다 우리의 독창성과 보편성을 발견하고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구상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또한 정부 유사통계와의 관계성과 호환성을 고려해야 함.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향수 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시민문화향유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조사 주체는 상이하지만 조사내용 측면에서는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의 중복성을 낮추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
- 따라서 서울시가 문화통계체계를 갖추고자 한다면, 우선 국제비교 및 도시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고려하는 동시에 서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체계 개발이 필요

- 그동안 서울시는 광역시 차원에서 국제 간/도시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생산하는 성과가 있음. 즉 WCCR 등에 대응하면서 세계 도시 간 비교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지표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문화지표〉 관련 연구는 문화지표 표준화를 시도함
-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지표 표준화 노력은 자치구 차원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수준을 고려할 경우 아직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 예를 들어 생활문화의 범위에 요리나 원예활동이 포함되는가의 여부 등 구체적 지침이 필요
- 또한 문화통계체계가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지표체계 설정 과정에서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한 설계 필요
 - 우리나라 문화통계는 현재 현황을 보여주는 것 중심의 한계가 있음. 물론 현황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가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더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김소영 외(2010)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함. 그에 따르면, 기존 문화예술관련 통계가 실제로 문화예술 정책 기획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책과 예산배분을 위한 주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적절한 통계적 사전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정책사업의 평가 및 통계를 위해서 큰 정책적 맥락 및 전략적 사업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 될 수 있을 만큼 대표성을 지닌 통계지표들이 필요함
 - 또한 모든 정책분야에서 성과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로서는 성과지표와 관련된 지표를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성과지표가 구체적인 단위재정사업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문화통계지표가 문화예술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이는 서울시 문화통계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 데이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대상, 내용 그리고 방향을 갖고 있는 것임. 문화 정책 과정은 [그림 3-5]와 같이 문제 진단-정책 집행-효과 평가라는 3단계를 거침. 문화 정책 과정에서 데이터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진단,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관여, 정책집행의 목적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됨. 문화정책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왜 필요한지 문화정책의 목적의식성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데이터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함(김민규, 2019)



출처: 김민규(2019) 재구성

[그림 3-5] 문화정책 과정과 데이터

04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1_FGI와 전문가 자문

2_전문가 조사

3_소결

04.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1_FGI와 전문가 자문

1) 자문회의

(1) 개요

- 1차 자문회의
 - 일시: 2019년 4월 12일(금)
 - 자문위원: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임학순(카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남미진(서울문화재단)
 - 자문내용: 문화통계의 방향성, 문화통계의 범위, 문화통계의 활용성 등
- 2차 자문회의
 - 일시: 2019년 6월 25일(화)
 - 자문위원: 나운빈(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남미진(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박백웅(서울시 문화정책팀 주무관), 박근화(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관리팀장), 박은선(리슨투데이시티 디렉터),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 자문내용: 문화 통계의 지향점과 목표, 서울시에서 생산해야 하는 문화 통계 등

(2) 주요 논의사항

- 서울시 문화통계(지표)의 방향성을 우선 설정하는 것이 필요
 - 국가(정부) 통계와 서울시 통계를 비교해 연구 방향성 설정하는 것이 필

요함. 예를 들어, 콘텐츠산업 통계(산업장르별로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지가 강한 통계)와 서울시 사업체 통계(문화산업 및 콘텐츠 사업체 조사)를 비교하여 서울시에서 별도 조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통계목록을 파악하고 방향성 설정 필요

- 좋은 지표체계를 위한 ‘철학’이 필요함. 이는 무엇을 위한 지표인가, 누구를 위한 지표인가와 연결됨. 통계가 실태파악을 위한 것인지, 국제비교를 위한 것인지, 사업 평가를 위한 것인지, 정책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체계가 도출될 수 있음. 기존의 지표가 실태파악이나 국제비교를 위한 것이었다면 신규 지표들은 정책비전을 위한 것이어야 함
- 수요자 중심의 통계 구축이 필요함. 자치구에서 하는 사회조사를 강제할 수 없지만 문화영역 통계 구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음
- 특정 집단의 평가(성과)가 되는 통계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정책영역에서 판단의 근거는 비전, 흐름, 방향성을 두고 계획되어야 함. 하지만 통계를 자기 논리의 근거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것이 문제임. 따라서 통계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이나 방향을 도출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순위화하는 것은 불필요함
- 조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성적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 통계와 서울시 통계의 차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전국 문화향수실태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따로 조사하는 이유는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전국 조사는 거시적이고 커다란 구조를 볼 수 있지만 세밀한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 불가능하기 때문임
 -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구분이 필요함. 가령, 중앙은 실태조사의 시계열 분석, 정책공급의 역할을 해야 하고, 광역은 현황파악, 경향파악, 서울에 맞는 정책 도출에 집중해야 함. 또한 권역별 순위는 보이지만 다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가 통계를 생산하는 이유는 경향성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통계의 범위를 예술분야에서 문화 전반으로 확대 필요
 - 문화영역 분야가 예술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영상예술이라는 영역에 모든 콘텐츠를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프로그램)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영역과 실제 일을 하는 행위

자(기업, 인력)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영역별 구분과 요소별 구분에 대한 고민 필요

- 해외 도시 간 순위 비교는 불필요하지만, 해외 도시 간 비교는 필요함

○ 문화통계의 활용성(접근성)에 대한 고민 필요

- 문화통계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인지, 문화기업,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장기반의 통계를 구축할 것인지, 시민의 문화활동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통계의 범위,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문화통계는 정책결정자(공공), 기업(민간), 시민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함

- 자료의 활용성이 중요하며, 문화통계는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 많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 향후 생산해야 하는 문화통계

- 미래지향적인 관객조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가령, 디지털 수용자(digital audience)와 관련된 가상현실, 영상을 활용한 유튜브 등

- 예술인 실태조사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직무 분석이 필요함. 또한 예술가들의 실 거주지, 작업실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서울문화재단 사업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목록은 예술가 지원 수혜자, 수혜비용, 지원 장르, 레지던시 프로그램, 전시, 소장품 소유 여부 파악, 서울문화재단 심사위원 내역, 성비, 연령, 교수 여부 등임

- 공공미술품은 수주 작가가 누구인지, 회사가 어디인지, 소속 갤러리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

- 현재 문화통계는 지출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지출통계와 소비관련 통계가 없음. 따라서 문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만 결과값이 상이함. 문화여가 항목을 정리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예술인 입장에서 지출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은행에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예술인 권리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이 필요함. 즉, 문화지출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필요하며, 이는 민간 데이터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통계담당 직원(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 문체부는 통계담당관 한사람이 중앙집권화 방식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담당관이 통계베이스이기 때문에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예술계 사람들은 통계마인드가 없고, 통계는 정책마인드가 없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부서와 문화담당자의 협력이 중요함

- 문화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통계와의 연계 방안
 - 민간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시스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필요함. 인터파크는 자신들의 자산이자 파워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는 법제도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었음
 - 카드 데이터와 결합이 필요함. 가령 서울시가 제로페이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할인이 더 되거나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함. 만약 제로페이 지출이 늘어난다면 문화 데이터를 자료를 얻는데 유리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제로페이는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현장결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2) 전문가 FGI

(1) 개요

- 1차 FGI
 - 일시: 2019년 7월 12일(금)
 - 자문위원: 김연수(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김진만(중구문화재단 문화협력팀 팀장), 김진환(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문화기획팀 팀장), 남미진(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박상용(동작문화재단 문화정책팀 팀장), 박정호(영등포 문화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박현진(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사영미(도봉문화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임용택(성동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
 - 자문내용: 문화의 범위, 문화 분야 자료 구축 및 활용, 기초 재단 차원에서 생산 및 개선이 필요한 문화통계 등
- 2차 FGI
 - 일시: 2019년 8월 23일(금)
 - 자문위원: 김진환(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팀), 남미진(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우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이병민(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 자문내용: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기본방향, 전략,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문화통계센터의 설립 등

(2) 주요 논의사항

- 문화통계의 대상은 거주민이 아니라 생활인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
 - 주 활동지와 문화활동이 시민에게 어떻게 피드백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로 봐야함. 가령, 문래동은 400명의 예술가 중 거주자는 별로 없음. 하지만 문래동 내 문화예술 활동이 시민들과 피드백 되고 있음
- 문화 분야 자료 구축 및 활용방법을 모색할 필요
 - 데이터 아카이빙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현재 데이터 아카이브는 분권 형으로, 중앙이 가이드를 주면 생산기관이 기준에 따라 입력과 분석이 가능함. 자료도 공개/비공개로 구분 가능함
 - 정성데이터의 아카이빙에 대한 고민: 통계센터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면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 그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를 입력할 수 있음. 또한 정량데이터는 그나마 축적이 가능하나 정성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 인가임
 - 유사조사는 배제하고 지역생산이 필요한 것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울연구원과 기초자치재단과의 협력 연구 필요
- 서울시 문화분야 필요 통계
 - 시민들의 인식조사(문화인식)가 중요하며 이는 지방자율재정 하에서 시의성 있는 조사임
 - 중앙과 중복되는 조사는 매칭펀딩 형식으로 가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수요에 맞는 조사 실시하며, 결과는 종합하여 발표
 - 서울시는 문화의 많은 부분이 민간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화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모두를 포괄하는 조사 필요
- 기초 재단 차원에서 생산 및 개선이 필요한 문화통계
 - 공연장 통계는 기존의 공연실태조사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세분화가 필요하며, 지역기반의 공연장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공연장 통계에서는 사업 형태(순수예술단체 대관, 구청에서 요청하는 행사성 대관, 무료 대관 등), 대관 형태(예술단체 대관, 출연기관

대관), 공연 형태(창작공연), 공연 예산 등을 포함해야 함

-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누구인지 밀착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중앙과 광역단위보다 기초단위에서 가능함. 현재 자치구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이며, 협력형보다 자치구별 예산과 시간에 따라 개별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정의, 거주 및 활동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총 소속이나 취미생활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경우를 예술인으로 볼 것인가? 예술인의 경계를 어디로 둘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청년예술인 통계는 현재 청년사업에 많은 지원금과 지원사업이 몰리고 있지만 어떠한 근거로 사업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청년예술인의 현황조사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매개자와 지원자의 실태조사는 본인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잡아내면 정책 설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자치구 단위의 공간조사가 필요함. 문래동 예술창작촌은 400명의 예술가가 있으나 현황 파악이 어려움. 예술분야, 연령, 공방 분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래동에는 8개의 대안 공간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2년 단위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함. 즉, 예술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사당동은 저렴한 임대료와 교통 편리성으로 다양한 문화공간이 입지하고 있으나 현황파악이 어려움. 80여 개의 공간 중에서 5개 정도만 현황파악이 되어있음.
- 다양성 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무지개다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치구 단위에서 현황파악은 되고 있으나 다른 자치구와 비교가 어려움. 타 자치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할 수 있는 비교 자료가 필요한 실정임
- 공연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에 관한 통계가 필요함.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케팅 관련 자료도 중요하며, 자치구별 공연장 사업 통계를 바탕으로 공연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구축이 필요함
- 서울시 문화통계 구축 기본방향
 -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형태로 가야하는 통계수요 반영 바람직
 - 광역/기초 이원화 표현 방식의 변화 필요
 - 승인통계는 지역통계 기준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도 됨

- 서울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단과의 역할분담이 필요: 가령, 장르별 조사는 문화재단, 정책관련 조사는 서울연구원에서 담당
 - 너무 중앙과 연결하거나 표준화시키는 것은 서울과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중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을 녹여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임
- 서울시 문화통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문화통계센터 설립이 필요
 - 문화영역에 한정되기보다 사회통계의 큐레이션이 가능한 센터가 되어야 함
 - 통계센터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산출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통계생산이 가능함
 - 아카이브 교육이나 컨설팅까지 역할 확대 필요, 지역에서 소소한 조사를 많이 하는데, 방치하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하기도 함. 통계센터에 가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함
- 통계자료에 이용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 문화정보플랫폼 구축 역시 필요
 - 하향식으로 플랫폼이 시도되기보다 지역의 요구에 따라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상향식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정보 플랫폼은 결국 자발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이 필요함

2_전문가 조사

1) 1차 전문가 조사

(1) 조사개요

- 목적: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기간: 2019.05.22.~2019.06.16.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내용: 문화통계의 활용여부, 서울시 문화통계의 장단점,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 등

[표 4-1] 설문내용

구분	조사항목
문화통계의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문화통계 활용 경험 - 중앙정부 통계 중 활용 순위 - 중앙정부 통계 중 유용한 통계와 이유 - 기타 활용하는 중앙정부 통계 - 서울시 문화통계 활용 경험 - 서울시 통계 중 활용 순위 - 서울시 통계 중 유용한 통계와 이유 - 기타 활용하는 서울시 통계
서울시 문화통계의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 비교 시,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의 장점 -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 비교 시,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의 개선점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 -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 -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시가 추가 생성해야 할 문화통계 - 타 광역자치체 생산하고 있는 문화통계 중 향후 필요한 통계
문화통계 생산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통계 유무 - 소속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 분야 자료로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면 유용한 통계 -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문화통계가 없을 경우, 향후 구축할 계획이거나 준비 중인 통계의 유무 - 서울시가 향후 문화통계를 생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점 고려사항
응답자 특성	근무기간, 연령

- 대상 : 40명 내외(문화 분야 교수 및 연구자, 기초·광역문화재단 담당자 등)

(2) 조사결과

① 응답자 현황

- 전문가 조사 응답자는 문화 관련 대학(서울시내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미디어기술콘텐츠 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등) 교수, 연구소(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다문화통합연구소 등) 박사, 서울문화재단 담당자,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예술센터 대표 등 총 40명으로, 재단이 35.0%, 연구직이 30.0%, 교수 27.5%, 기타(예술센터 및 정책센터 대표 등)가 7.5%로 나타남

[표 4-2] 직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수	11	27.5
연구직	12	30.0
재단	14	35.0
기타	3	7.5
합계	40	100.0

- 전문가 조사 응답자 중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 미만(27.5%), 15~20년 미만(20.0%) 순임

[표 4-3] 연구경력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5년 미만	0	0.0
5~10년 미만	6	15.0
10~15년 미만	11	27.5
15~20년 미만	8	20.0
20년 이상	15	37.5
합계	40	100.0

- 전문가 조사 응답자의 연령은 40~49세, 50~59세가 각각 37.5%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30~39세(17.5%), 60세 이상(7.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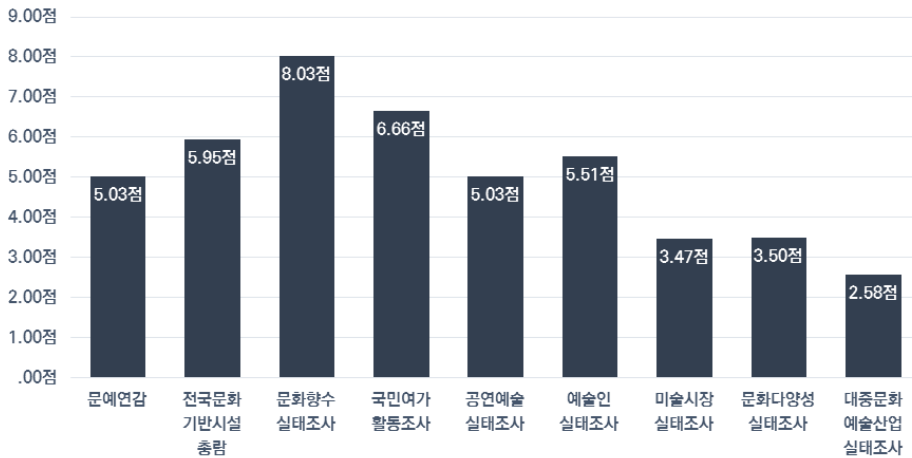
[표 4-4] 연령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20~29세	0	0.0
30~39세	7	17.5
40~49세	15	37.5
50~59세	15	37.5
60세 이상	3	7.5
합계	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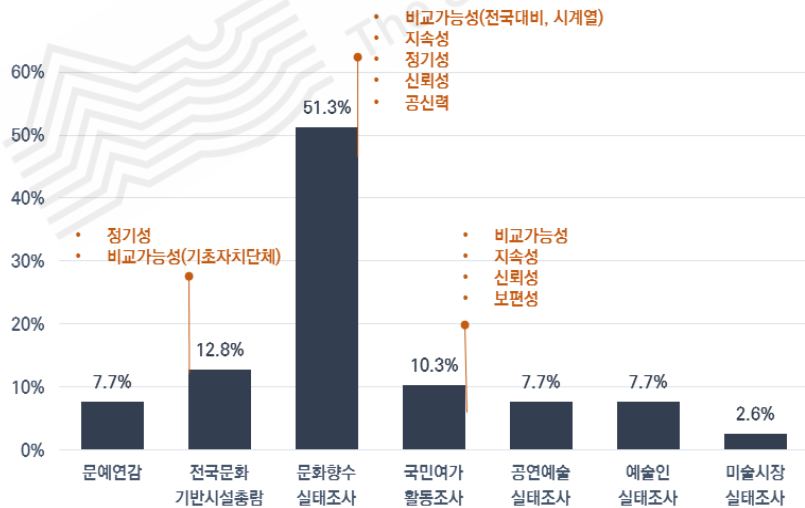
② 문화통계의 활용도

- 전문가의 97.5%가 중앙정부의 문화통계 활용
 - 중앙정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통계 중 문화예술 관련 연감(문예연감,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과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문화향수 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공연예술 실태조사, 예술인 실태조사, 미술시장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총 9개의 통계 관한 활용 경험에 대해 질의함
 - 전문가의 97.5%(39명)가 중앙정부의 문화통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1명)는 활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 문화통계 활용 순위는 문화향수 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순
 - 중앙정부 문화통계 중 가장 많이 참고하는 통계를 순위화한 결과(9점만점), 문화향수 실태조사가 8.03점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국민여가활동조사(6.66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5.95점), 예술인 실태조사(5.51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 중앙정부 문화통계 활용 순위

- 중앙정부 문화통계 중 가장 유용한 통계는 문화향수 실태조사,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순
 - 전문가들은 활용하는 중앙정부 문화통계 중 가장 유용한 통계로 문화향수 실태조사(51.3%)를 꼽았고, 그다음으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이 12.8%, 국민여가활동조사가 10.3%로 나타남



[그림 4-2] 중앙정부 문화통계 중 가장 유용한 통계

- 문화향수 실태조사가 유용한 이유로는 비교가능성(전국대비, 시계열), 지속성, 정기성, 신뢰성, 공신력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1988년 실시된 이후 1991년 통계청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음. 특히 승인 통계로서 문화활동 전반적인 실태뿐 아니라 시민 문화향수권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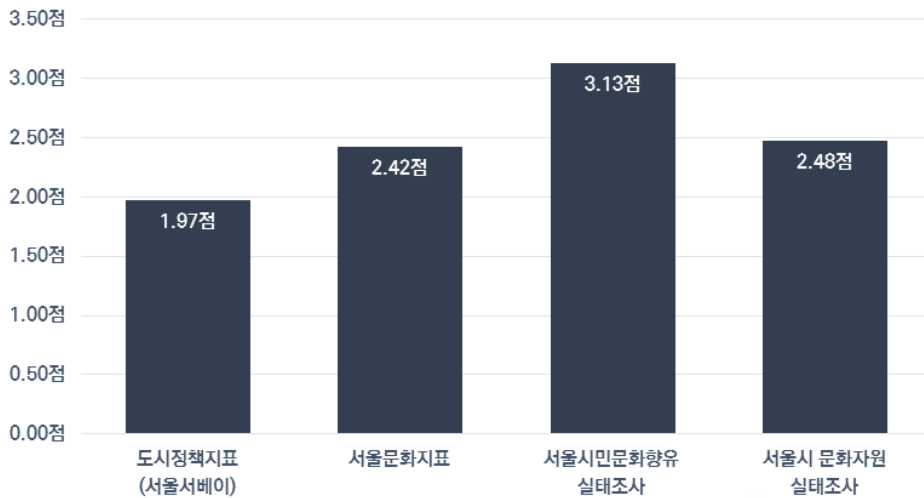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이 유용한 이유는 매년 생산되고(정기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 파악이 가능(지역비교성)하여 지역 간 문화수준 및 문화접근성 조사 시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확인됨
- 국민여가활동조사가 유용한 이유는 비교가능성, 지속성, 신뢰성, 보편성으로 밝혀졌으며, 통계 수치 파악보다는 폭 넓은 문화활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이 있었음
- 위에서 제시된 문화통계 이외에 참고하는 문화통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문화 실태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산업통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트렌드 조사', 통계청의 '사회조사', 통계청의 '인구현황', 통계청의 'e나라지표',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소비자 조사', 저작권 관련 통계, 문화영향평가 결과, KDI 경제전망, 정책보고서 등을 통한 2차 자료 등임

○ 전문가의 77.5%가 서울시 문화통계를 활용

- 서울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통계 중 문화예술 관련 연감(도시정책조사, 서울문화지표,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 총 4개의 통계 관한 활용 경험에 대해 질의함
- 전문가의 77.5%(31명)가 서울시에서 생산한 통계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2.5%(9명)는 활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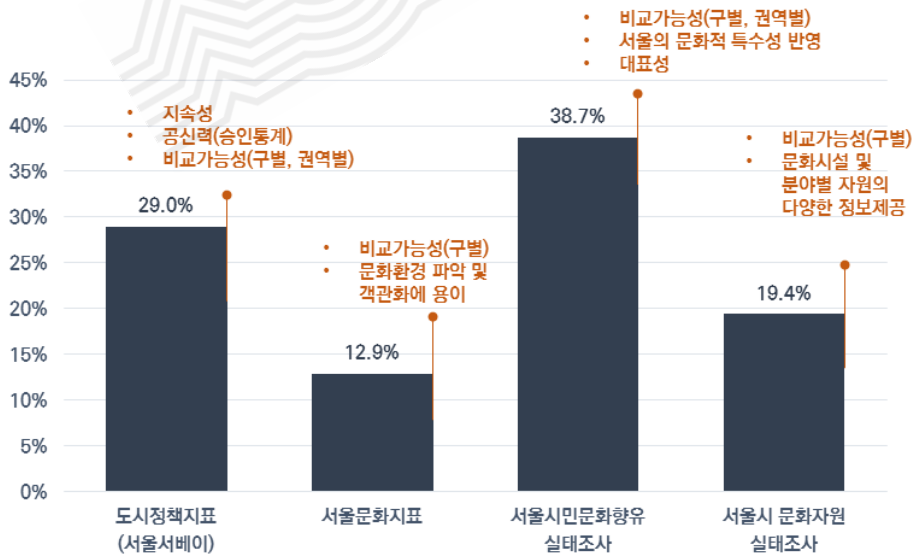
○ 서울시 문화통계 중 가장 많이 참고하는 통계는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 서울문화지표 순

- 서울시 문화통계 중 가장 많이 참고하는 통계를 순위화한 결과(4점 만점),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가 3.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가 2.48점, 서울문화지표 2.42점, 도시정책지표 1.97점 순으로 분석됨



[그림 4-3] 서울시 문화통계 활용 순위

- 서울시 문화통계 중 가장 유용한 통계로는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 도시정책지표,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 순
- 전문가가 활용하는 서울시 문화통계 중 가장 유용한 통계는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시정책지표가(29.0%),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19.4%), 서울문화지표(12.9%)순으로 나타남



[그림 4-4] 서울시 문화통계 중 가장 유용한 통계

-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가 유용한 이유로는 비교가능성(구별, 권역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도시평가, 삶의 만족도 등 문화예술정책과 연동될 수 있는 수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도시정책지표가 유용한 이유는 지속성과 공신력(승인통계)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현황을 구별/권역별로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하고 시계열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정보획득에 용이하기 때문으로 나타남
- 문화자원실태조사는 문화시설 및 분야별 자원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그 분포도를 함께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문화공간 확충,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활용에 유용하고, 자치구별 문화자원에 대한 실태를 비교분석하기에 유용하다고 응답함
- 위에서 제시된 문화통계 이외에 참고하는 문화통계로는 서울축제 통계, 서울시민의 도서관 이용실태조사, 서울시 문화공간 통계, 통계청 인구 및 사회조사,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통계,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자료, 자치구 통계(예: 은평 데이터 광장)로 나타남

③ 서울시 문화통계의 장단점

- 서울시 문화통계의 장점을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서울시 문화통계의 장점은 전국단위의 통계와 비교 가능하고, 세분화된 데이터(서울시 권역별, 구별 등)를 파악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서울시민의 문화 활동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통계라는 점임. 또한 문화예술 주체, 소비자, 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슈별/의제별 통계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가짐
 -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서울시 문화통계는 선진적이고 지속적인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영역을 조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자체 문화지표 및 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문 가운데 시계열적 자료 수준이 잘 정비되어 있고 자료를 찾는 데 용이함. 또한 조사 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져 신뢰성이 담보되며, 전문가집단의 수준이 높아 활용성, 적실성이 있다는 장점을 가짐. 또한 대도시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추이 분석을 통한 기초분석이 가능함

중앙정부와의 비교	타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
<p>비교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 통계와의 비교가능성 <p>구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수집 대상의 차이로 인해 세분화된 데이터(지역별, 구별) 파악 가능 이슈별, 의제별, 세부적(정확한 수혜자 분포와 추이 변화 등) 통계 파악 가능 통계 (조사)내용의 구체성과 실질적 지표 구성 문화활동 항목의 적절성 서울시내 문화재단의 현황분석 활용 가능 민간 단위까지 조사 가능 문화예술주체, 소비자, 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 <p>지역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 서울시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통계 	<p>선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적으로 통계 조사 시행 자체 문화지표 및 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됨 <p>지속성, 신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이고, 다양한 영역 조사 이루어짐 시계열적인 자료의 수준이 잘 정비되어 있고, 자료를 찾기 용이함 전문가집단의 수준이 높아 활용성, 적실성 있음 조사 개선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서 신뢰가 높음 <p>구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이분석등을 통한 기초분석이 가능 조사 분야의 다양성 및 구체성 다양한 통계 제공 상대적으로 체계화, 객관화 되어 있는 통계 <p>지역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 특성 반영

[그림 4-5]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시, 서울시 문화통계의 장점

- 서울시 문화통계의 개선점을 중앙정부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와 비교 시 서울시 문화통계의 개선점은 정기성(최소 2~3년에 한번씩)을 확보하고 공식화(승인통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원자료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고, 문화통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채널 확보가 필요함. 이외에도 문화다양성, 문화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통계 생산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 시 서울시 문화통계의 개선점으로는 중앙 및 타 지역과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활권 통계 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와 연계한 통계를 구축하고 인천의 문화지표와 같은 장기적인 개선과 노력이 추가 필요함. 이외에도 구체성에 기반을 둔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제공이 필요하고 조사결과의 활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④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

-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 ‘지역성’, ‘활용성’, ‘구체성’, ‘호환성’, ‘현장성’이 반영되어야 함
 -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는 서울의 고유한 특성과 서울시내 지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지역 내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 지역별 비교 가능한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하는 것, 중앙정부와의 호환이 되는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성**
 -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통계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수요** 조사
 - 서울시의 고유한 문화 **특성** 부각
 - 서울시의 특수한 **문화**지형 반영 필요
- 활용성**
 - 지역내 통계 **활용성** 제고
 - 통계의 **활용성** 제고
 - 구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통계** 생성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 구체성**
 - 지역별 비교가능한 **세분화**된 통계생산(구별/동별)
 - 세분화**된 자료수집과 공간 분석
- 호환성**
 - 중앙정부와의 **호환성**
- 현장성**
 - 현장성**이 반영된 **통계**

[그림 4-6] 워드클라우드를 통한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의 도출

- 서울시 문화통계는 ‘구체성’, ‘포괄성’, ‘협력’, ‘시민기반’을 통해 차별성을 가져야 함
 -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문화통계를 생성할 경우, 서울시 문화통계가 가져야 할 차별성으로 ‘구체성’, ‘포괄성’, ‘협력’, ‘시민기반’을 제시함. 특히, 서울시 문화통계는 지역별(권역별, 구별, 동별) 비교가 가능한 세분화된 통계 생산, 민간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계, 미래지향적이거나 새로운 시도의 문화 통계 생산, 시민이 체감하는 통계생산이 되고, 문화와 예술분야의 일반화된 지표를 넘어 시민,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검토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응답함



- 구체성**
 -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세분화**된 통계 생산(권역별, 구별, 동별)
 - 다양한 계층의 통계 생산(유아/ 고령층)
- 포괄성**
 - 민간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확대
 - 민간단위의 활동, 공간에 대한 조사 필요
 -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문화 공간, 시설에 대한 **통계** 생산
- 협력**
 - 자치구 문화재단과 **연계**한 통계조사 수행
- 시민기반**
 - 해외 주요도시와의 **비교** 통계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통계**
 - 수요자** 기반의 통계
 -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통계** 생성
 - 문화와 예술분야의 일반화된 지표를 넘어 **시민**,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검토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그림 4-7] 워드클라우드를 통한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 도출

- 서울시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추가 생성해야할 문화통계는 산업, 교육복지, 시설 및 자원관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 서울시 문화 관련 통계는 산업 관점, 교육복지 관점(시민 및 예술가), 시설 및 자원 관점으로 구분지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복지 관점에서 시민과 예술인 대상의 추가 생성해야할 문화 통계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서울시민대상 통계는 문화향유, 예술교육 실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경향에 대한 통계, 서울시민의 감성지수 통계 등이 제시됨

[표 4-5] 서울시민 대상 필요 통계

서울시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거주민 중심보다는 활동중심의 지표 • 서울시민의 감성지수(EQ) 통계: 문화정서의 정기적 파악 • 서울시 축제 현황(축제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 • 서울시민의 생활문화활동 경향에 관한 통계 • 서울시민 동호회 및 결사체 활동 통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인식에 대한 지표 • 서울 근로자의 문화적 삶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와 통계 • 한강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 청계천이나 광화문, 북촌 등 문화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행태나 만족도 등의 통계 • 문화향유자 '한 사람'의 시간, 공간, 콘텐츠, 향유 매체 등의 데이터를 통합 정리하여 '서울도시 안에서의 개인(또는 공동체)'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개발
--------	---

- 예술인 대상은 예술인복지 및 예술활동 실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청년 예술가 실태 또는 문화기획자 실태조사 등이 제시됨. 또한 문화기획 및 활동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영역 및 문화재단 직원 등을 포함한 문화기획 및 활동가에 대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4-6] 예술인 대상 필요 통계

예술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예술인 실태조사(장르별/시설유형별/사업체 유형별) • 청년 예술가 예술작업 및 활동 실태 • 도시재생, 문화재생 분야에서의 문화예술분야 활용 및 협력 실태 • 문화예술 기획 혹은 활동가에 대한 통계 수립- 근속연수, 임금 등 • 문화기획자(소규모 기업포함)의 실태조사 • 예술인 삶의 질 향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와 통계 • 예술인 이동 경로
--------	---

- 산업관점에서 사업체 대상 통계로는 콘텐츠산업실태, 문화 기반 비즈니스 활동 실태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법인 등에 관한 것으로 서울콘텐츠산업 통계, E-스포츠 및 스포츠시장 관련 통계 등이 제시됨

[표 4-7] 사업체 대상 필요 통계

사업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콘텐츠산업통계 • 서울 출판 및 미디어 통계 • E-스포츠 및 스포츠시장 관련 통계 • 서울시 문화예술 관련 상품 소비 통계 • 지역 내 문화 예술 사회적기업의 비중 • 문화향유의 서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트라 현황 등 • 문화시설·법인단체 등의 외국인 활동현황
--------	--

- 시설 및 자원 관점에서의 시설 및 자원 대상(문화예술 공공기관 자산, 시설 및 장소, 인력 자원, 유무형 문화원형 실태 등)통계로는 생활문화(예술)시설 현황 및 운영 통계, 젠트리피케이션을 포함한 서울 도시 공간 문화실태 조사 등이 제시됨

[표 4-8] 시설과 자원 대상 필요 통계

시설과 자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현황 • 기초 단위 수준의 문화공간 현황 • 생활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 서울 도시 공간문화실태 조사(젠트리피케이션 등을 포함한 조사) • 문화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통계 • (역사/문화)경관과 관련한 지표 • 지역문화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와 통계 •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등 문화(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융합 정책 관련 지표와 통계 • 서울시 문화 편차 관련 통계 • 예술분야(문학, 시각, 공연) 이외의 지역문화, 생활문화 관련 세부 지표 • 문화유산 활용 사업 실태 • 자치구 동네마을 축제 실태 및 관심도 • 문화기관(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집) 및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인식도
-----------	---

- 위에서 제시된 통계 이외에 문화 다양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문화다양성실태조사(중앙정부에서 미흡한 성소수자 포함)’, LGBTQ지표, 서브컬처 관련 지표, 예술창작관련 국제성/혼종성지표, 이주민(외국인) 이주 경로, 입국 후 체류 기관에 따른 이동 경로가 제시됨
- 서울시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문화통계를 생산할 경우 타 지역, 타 기관, 타 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다른 지역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서울-경기-인천 간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문화향유 실태, 인프라 이용 현황,

수도권 및 지방과의 연계수요 및 행태분석, 수도권 통합 문화지표 생산이 필요함

- 다른 기관과의 연계 측면에서 서울시 문화 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서울시 문화 분야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관련 비즈니스 모델 통계 조사, 문화 분야의 공유경제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및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민간 기관과의 협력 또한 필요함. 가령, 문화향유조사를 위한 시민의 주생활권역 및 향유콘텐츠 통계 부분은 민간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데이터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다른 조사와의 연계 측면에서는 서울시 문화재단의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경우 문화소비율(관람율), 문화교육과 연계가 필요하며,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관련해서는 문화도시 지표 통계 생성이 필요함이 제시됨
-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통계 중 경기 문화재단의 문화재 생유형분석, 생활문화지표, 인천의 문화예술연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배치와 관련된 통계, 경상북도 한옥조사와 같이 서울시가 보유한 문화자원이나 특징적인 자원에 대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4-9] 다른 광역지자체의 문화통계 중 향후 서울시도 생산할 필요가 있는 통계

통계명	이유 및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가 보유한 문화자원이나 특징적인 자원에 대한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한옥조사 문화제조업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와 관련된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현존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범위, 지역 인구와 연령대, 지자체의 재정의존도를 일정 비율씩 감안해, 어디에 어떤 시설을 확충해야 할지 산출. 단순 통계에는 빠진 '수요' 문제와, 인구 대비 통계가 놓치는 '접근성' 등을 고려 기초지자체에 적용한다면, 문화기반시설을 최우선으로 확충해야 할 지역 등을 선정할 때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구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본격 실행되고 있지 않은 문화다양성실태조사의 수행을 통해 다양성이 강화된 서울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도출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문화재단, 문화재생유형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생활문화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연감(인천 등) 	

(5) 문화통계 생산목록 및 서울시가 고려해야 할 사항

- 전문가의 37.5%는 소속기관에서 문화통계를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속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통계가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37.5%(15명), '없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62.5%(25명)로 나타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제외한 학계 및 연구소에는 별도로 생산하고 있는 문화통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국가 승인 통계(문화향수 실태조사, 국민여가 활동조사, 예술인실태조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문화지표와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문화재단은 생활문화동아리조사, 사업별 관람객 설문조사, 연간 시행하는 공연이나 축제의 참여관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속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문화통계 중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면 유용한 통계로는 지역축제 통계, 지역문화 실태관련 통계(지역문화실태조사), 예술인 통계(예술인 실태조사), 여가활동 통계(여가실태조사), 예술사업체 실태조사, 서울의 문화시설 및 공간 실태조사, 예술창작, 예술교육 지원 및 생활문화지원사업 참가자 DB 등
 - 특히 지역문화실태조사는 2019년부터 '지역문화현황통계'로 국가승인통계(보고통계)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소속 기관에서 생산하는 문화통계가 없다면, 향후 구축할 계획이거나 준비 중인 문화통계가 있느냐를 확인한 결과, 향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9%(9명)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76.9%(30명)로 나타남¹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통계, 성인지 문화활동 통계, 성평등 지표 통계, 콘텐츠 산업 통계, 여가 관련 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나타남
 - 기초재단의 일부는 문화통계를 계획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광진문화재단은 '광진구 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광진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¹⁴⁾ 미응답 1명임

있으며, 동작문화재단은 ‘동작구 문화자원 실태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축제와 예술문화자원 중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사당동 권역 문화예술 공간 및 연습실 실태(약 100여개)를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봉문화재단은 자치구(민)에 대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및 수요 조사, 강북문화재단은 자치구 주민 선호장르 문화통계(연간 1회 시행),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구 문화공간 및 장소 조사,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가 향후 문화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호환성’, ‘구체성’, ‘협력’, ‘전문성과 신뢰성’, ‘자료공유’
 - 호환성 측면에서는 정부통계, 국제통계, 상위통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성 측면에서는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세분화된 통계생산이 필요함
 - 협력 측면에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빅데이터지원센터과의 연계, 서울시-서울문화재단-서울연구원 간의 유기적 협력등지 제시됨
 - 전문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관리와 통계의 시계열성(지속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료 접근성의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음



- | | |
|-----------------|---|
| 호환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통계와의 호환성, 국제통계와의 호환성 • 상위통계와의 호환성 |
| 구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세분화된(구별, 동별) 통계생산 |
|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내 문화통계조사 센터의 설립 • 서울연구원-서울시 빅데이터지원센터등과 문화통계 시스템 운영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 필요 •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서울연구원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통계의 생산 및 관리 |
| 전문성, 신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관리 • 통계의 시계열성(지속성)과 신뢰성 확보 |
| 자료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접근성 개선(로데이터 공유 등) |

[그림 4-8] 서울시의 향후 문화통계 생산·관리 시 중점 고려사항

2) 2차 전문가 조사

(1) 조사개요

- 목적: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기간: 2019.07.23.~2019.08.02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내용: 서울시 문화통계의 활용도,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와 차별성, 분야별 문화통계 생산의 필요성, 문화통계 운영 및 협력체계 등

[표 4-10] 설문내용

구분	조사항목
서울시 문화통계의 활용도	- 서울시 문화통계 활용 경험 - 서울시 문화통계 활용 이유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와 차별성	-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 - 서울시 문화통계의 방법의 중요도와 시급성 - 서울시 문화통계의 방향성
분야별 문화통계 생산의 필요성	- 서울시민 대상의 생산가능 통계(필요성, 시급성) - 예술인 대상의 생산가능 통계(필요성, 시급성) - 문화활동기반의 생산가능 통계(필요성, 시급성) - 문화정책 및 사업의 생산가능 통계(필요성, 시급성) -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문화통계
문화통계 운영 및 협력체계	-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필요성)
응답자 특성	근무기간, 연령

- 대상 : 40명 내외(문화 분야 교수 및 연구자, 기초·광역문화재단 담당자 등)

(2) 조사결과

① 응답자 현황

- 전문가 조사 응답자는 문화관련 대학(서울시내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미디어 기술콘텐츠 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등) 교수, 연구소(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다문화통합연구소 등)의 박사,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예술센터 대표, 서울시 공무원 등 총 46명으로, 재단이 34.8%, 연구직이 30.4%, 교수 21.7%, 기타(예술센터 및 정책센터 대표, 서울시 공무원 등)가 13.0%로 나타났다

[표 4-11] 직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교수	10	21.7
연구직	14	30.4
(광역, 기초) 재단	16	34.8
기타(활동가 등)	6	13.0
합계	46	100.0

- 전문가 조사 응답자 중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가 37.0%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 미만(34.8%), 15~20년 미만(17.4%) 순임

[표 4-12] 연구경력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5년 미만	1	2.2
5~10년 미만	4	8.7
10~15년 미만	16	34.8
15~20년 미만	8	17.4
20년 이상	17	37.0
합계	46	100.0

- 전문가 조사 응답자의 연령은 50~59세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49세(34.8%), 30~39세(15.2%), 60세 이상(6.5%)순임

[표 4-13] 연령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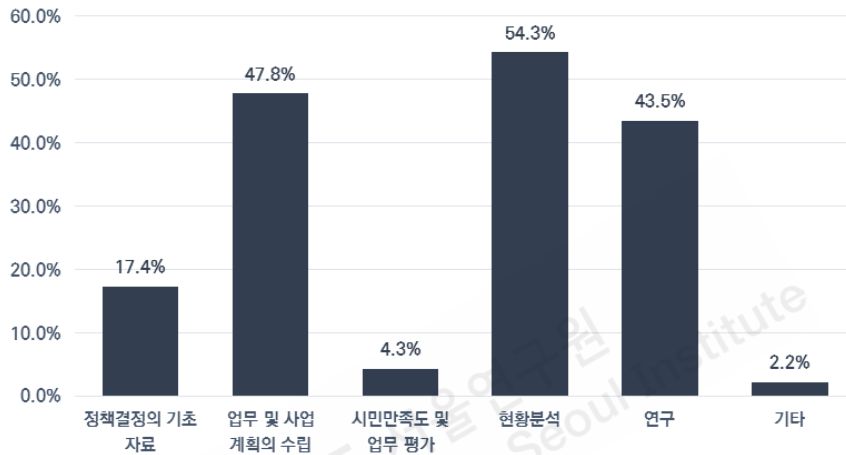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20~29세	0	0.0
30~39세	7	15.2
40~49세	16	34.8
50~59세	20	43.5
60세 이상	3	6.5
합계	46	100.0

② 서울시 문화통계의 활용도

- 전문가의 73.9%가 서울시 문화통계를 활용
 - 서울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통계 중 문화예술 관련 연감(도시정책조사, 서울문화지표,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 총 4개의 통계 관한 활용 경험에 대해 질의함

- 전문가의 73.9%(34명)가 서울시에서 생산한 통계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6.1%(12명)는 활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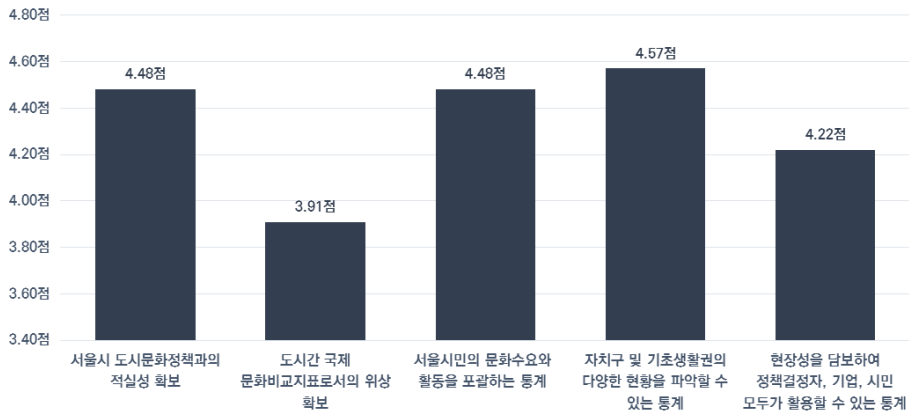
- 서울시 문화통계는 현황분석, 업무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연구 등에 활용
 - 서울시 문화통계를 활용한 이유로는 현황분석(지역간 문화수준 및 접근성 등)이 54.3%로 가장 높았고, 업무 및 사업 계획의 수립 47.8%, 연구가 43.5%가 그 뒤를 이음. 이외에도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가 17.4%, 시민만족도 및 업무평가 4.3%, 기타(강의 및 교육자료)가 2.2% 순이었음



[그림 4-9] 서울시 문화통계 활용도

③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와 차별성

-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는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의 다양한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서울시가 문화 분야의 통계를 생산한다고 할 때, 다음의 목표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설문한 결과,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의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여야 한다는 응답이 4.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서울시 도시문화정책과의 적실성을 확보하는 것과 서울시민의 문화수요와 활동하는 포괄하는 통계여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48점으로 나타남



[그림 4-10]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

- 직군별로 살펴보면, 교수는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가 도시 간 국제 문화비교지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4.20점)과 서울시민의 문화수요와 활동을 포괄하는 통계(4.60점)여야 하는 것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가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의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4.75점)이거나 현장성을 담보하여 정책결정자, 기업,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4.25점)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4-14] 직군별 목표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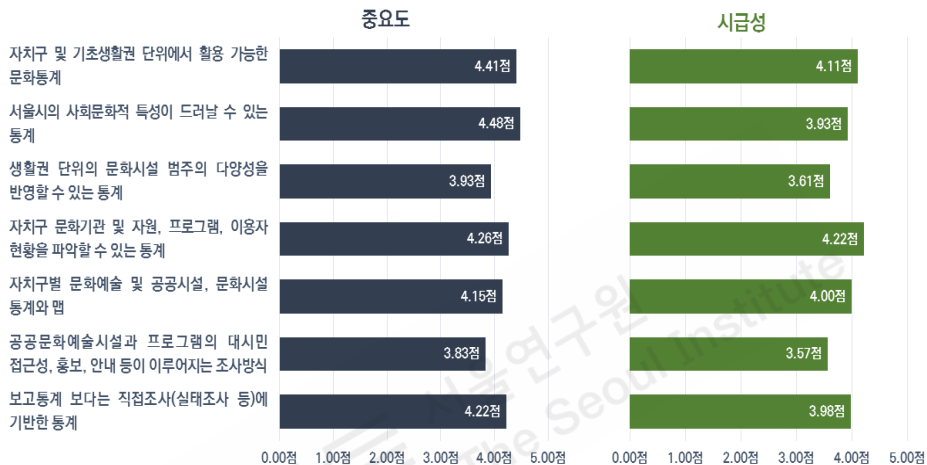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서울시 도시문화정책과의 적실성 확보	도시간 국제 문화비교지표로서의 위상 확보	서울시민의 문화수요와 활동을 포괄하는 통계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의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현장성을 담보하여 정책결정자, 기업,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교수	4.40	4.20	4.60	4.40	4.20
연구직	4.43	4.14	4.21	4.57	4.00
(광역, 기초)재단	4.44	3.56	4.56	4.75	4.25
기타(활동가 등)	4.83	3.83	4.67	4.33	4.67
평균	4.48	3.91	4.48	4.57	4.22

- 서울시 문화통계의 방법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시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문화 분야 통계 생성 시 서울시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한 중요도를 설문한 결과, 서울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통계가 가장 중요하다(4.48점)고 응답함. 그다음으로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통계(4.41

점), 자치구 문화기관 및 자원,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4.26점), 보고통계보다는 직접조사에 기반을 둔 통계(4.22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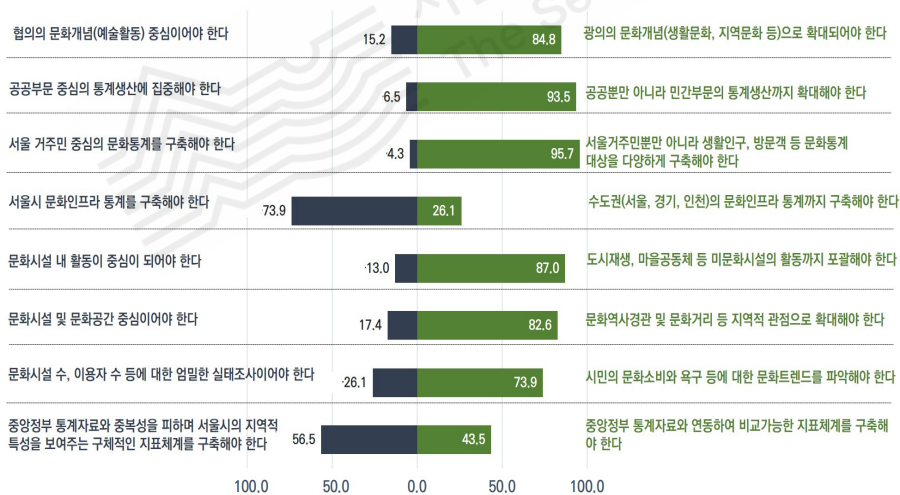
- 서울시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문화 분야 통계 생성 시, 서울시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방법의 시급성을 설문한 결과, 자치구 문화기관 및 자원,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4.22점)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은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활용가능한 문화통계의 생성(4.11점)으로 조사됨



[그림 4-11] 서울시가 고유한 문화통계를 드러내는 방법(중요도, 시급성)

- 서울시 문화통계의 방향성은 광의의 문화개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통계생산으로 확대, 통계 대상 확대, 서울시 문화 인프라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 서울의 문화통계의 범위에 대해 ‘협의의 문화개념(예술활동) 중심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15.2%, ‘광의의 문화개념(생활문화, 지역문화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4.8%로 나타남
 - 서울의 문화통계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통계생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3.5%로 ‘공공부문 중심의 통계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6.5%)’보다 약 14배 정도 높게 조사됨
 - 서울의 문화통계가 ‘서울거주민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방문객 등 문화통계 대상을 다양하게 구축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95.7%로 나타났으며, ‘서울거주민 중심의 문화통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4.3%로 분석됨

- 서울시 문화통계가 ‘서울시 문화 인프라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73.9%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문화 인프라 통계까지 구축해야 한다(26.1%)’보다 약 2.8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서울시 문화통계가 ‘문화시설 내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13.0%로 나타났으며,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 미문화시설의 활동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87.0%로 확인됨
- 서울시 문화통계가 ‘문화역사경관 및 문화거리 등 지역적 관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82.6%로 나타났으며,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 중심이어야 한다’는 17.4%로 조사됨
- 서울시 문화통계가 ‘시민의 문화소비와 욕구 등에 대한 문화트렌드를 파악해야 한다’가 73.9%로 분석됐으며, ‘문화시설 수나 이용자 수 등에 대한 엄밀한 실태조사이어야 한다’가 26.1%로 나타남
- 서울시 문화통계가 ‘중앙정부 통계자료와 연동하여 비교 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가 43.5%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 통계자료와 중복성을 피하며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56.5%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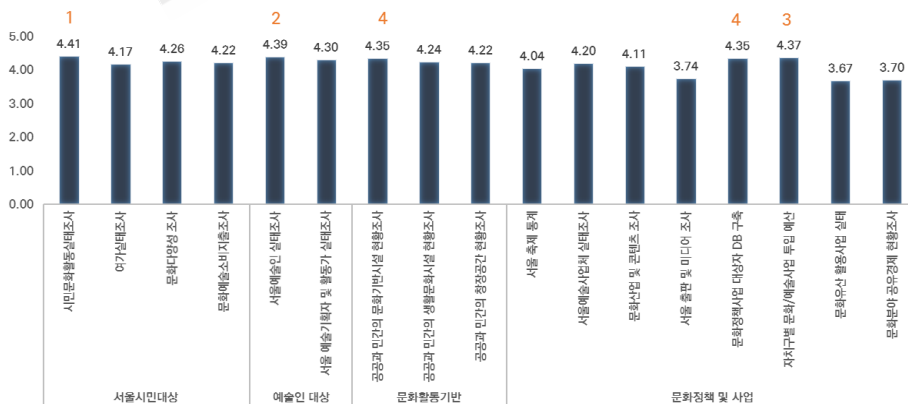
[그림 4-12] 서울시 문화통계의 방향성

④ 분야별 문화통계 생산의 필요성

- 서울시민, 예술인, 문화활동기반, 문화정책 및 사업 분야의 문화통계를 생산한다고 할 때, 각 조사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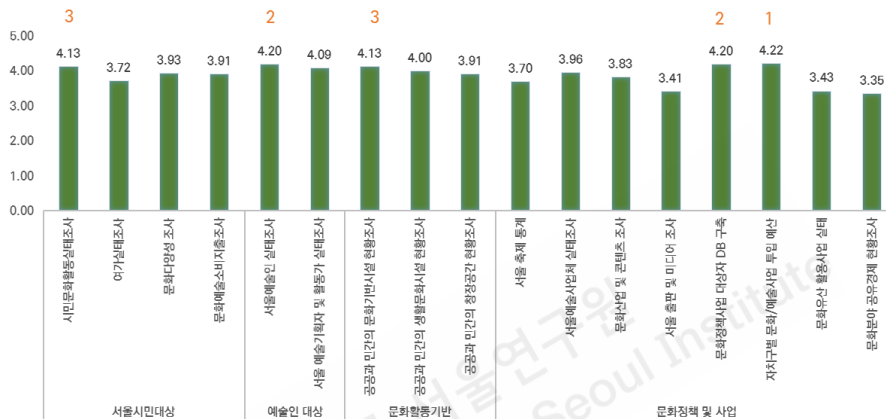
서울예술인 실태조사,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 예산 순

- 서울시민대상의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가 4.41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됨. 그다음은 서울예술인 실태조사(4.39점),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예산(4.37점), 공공과 민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와 문화정책사업 대상자 DB구축이 각각 4.35점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통계목록 이외에 서울시 자체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통계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서울시민대상 조사에서는 서울시민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서울 문화환경 관련 시민 인식조사, 시민(지역) 문화콘텐츠 유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둘째, 예술인 대상 통계는 문화매개자(기획자) 실태조사, 학교 예술강사실태조사, 예술 전공자(졸업생) 실태조사, 서울 문화환경 및 예술행정 관련 예술인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서울예술인 실태조사는 해외도시(뉴욕, 런던, 베를린 등)에 거주하는 예술인 실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소득, 금융상품 가입(보험, 연금 등), 직업선택 등 지속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셋째, 문화활동 기반과 관련된 통계로는 소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이용행태 변화 조사(소득효과, 대체효과와 현황), 대안 공간에 대한 조사, 융복합공간 조사, 창작공간 조사, 유희공간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마지막으로 문화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구별 문화예술 생산자 밀도 조사, 장르별 시장의 현황과 규모 및 실태 조사, 문화재단 및 문화기관의 사업, 인력, 운영 예산 통계,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등 문화(환경)과 직접 연계된 융합정책 관련 지표와 통계, 민간주체의 활성화 및 정책참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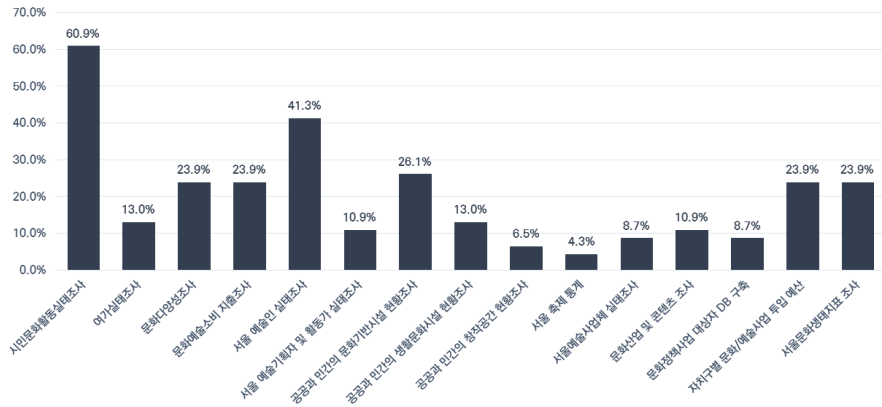
[그림 4-13] 문화통계 분야별 통계생산의 필요성

- 서울시민, 예술인, 문화활동기반, 문화정책 및 사업 분야의 문화통계를 생산한다고 할 때, 각 조사의 시급성을 질문한 결과,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 예산, 서울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정책사업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순 -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 예산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4.22점으로 가장 높았음. 그다음은 서울예술인 실태조사와 문화정책사업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4.20점으로 확인됐으며, 시민 문화활동실태조사와 공공과 민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가 4.13점으로 나타남



[그림 4-14] 문화통계 분야별 통계생산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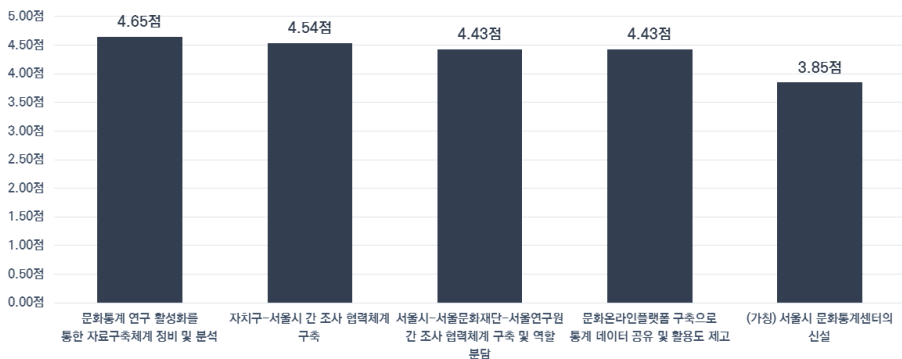
- 서울시가 우선 생산해야 하는 통계로는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가 가장 높고, 서울예술인 실태조사, 공공과 민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 순 - 서울시가 우선 생산해야 하는 문화통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가 60.9%로 가장 많았고,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 (41.3%), 공공과 민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26.1%)순으로 확인됨. 이외에도 문화다양성 조사, 문화예술소비 지출조사, 자치구별 문화/예술 사업 투입 예산, 서울문화생태지표가 각각 23.9%로 나타남



[그림 4-15]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문화통계

⑤ 문화통계 운영 및 협력체계

-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필요성)으로는 문화통계 연구 활성화를 통한 자료 구축 체계 정비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각의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문화통계 연구 활성화를 통한 자료 구축 체계 정비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치구-서울시 간 조사 협력체계 구축(자치구 기초문화재단, 구정연구센터와 연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54점으로 나타남. 또한 서울시-서울문화재단-서울연구원 간 조사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문화온라인플랫폼 구축으로 통계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도 제고가 각각 4.43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칭) 서울시 문화통계센터의 신설은 3.85점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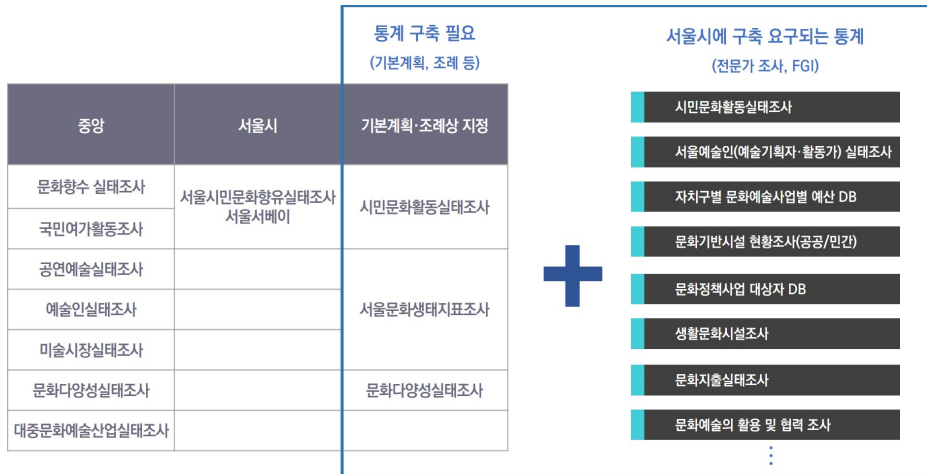


[그림 4-16] 문화 분야 통계체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필요성)

- 전문가 FGI와 전문가 조사 결과로 다음과 같이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와 구축 기본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는 서울시의 다양한 문화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통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
 - 서울시 문화통계는 호환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즉, 광역 차원에서 국제/국가 도시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전체 특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기초 차원에서 자치구별 문화생태와 특성 파악이 가능한 통계여야 함
 - 서울시 문화통계는 엄밀한 실태조사보다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경향성을 드러낼 수 있는 통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 문화통계는 서울시 도시문화정책을 뒷받침하고 검증할 수 있는 통계여야 함
 - 서울시 문화통계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이러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보가 필요
- 서울시 문화통계 구축의 기본방향은 문화의 개념과 범위 확대, 문화생태 관점에서 서울시가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필수통계의 설정,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활용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문화의 개념과 범위 확대: 서울시 문화통계의 대상은 주로 공공 문화정책 영역의 예술활동과 서울시민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음. 문화통계라 할 때도 문화를 주로 예술의 개념으로 사용함. 그러나 문화정책의 대상이 예술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문화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지역화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문화통계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즉, 예술활동 중심에서 더 넓은 의미의 문화로 확대하며,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포괄하고, 서울시 거주민에서 서울시 생활인구로, 문화시설별 활동에서 문화시설, 거리, 경관 등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문화정책뿐 아니라 지역적 관점에서 연관되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존재
 - 문화생태 관점에서 서울시가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필수통계 설정: 창작(생산, 제작), 유통(발표, 전시), 소비(인식, 참여)를 균형적으로 파악

하고 서울시 주요 문화정책 관련 분야별 통계 생산이 필요

- 서울시 문화통계는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첫째, 참여율, 시설현황 등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간 연동 분석 가능해야 하며, 둘째, 지리적 접근성, 분포 등 공간정보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함. 셋째, 기관시설별 프로그램 현황, 이용자 현황 등 관객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서울시-자치구 통계 간 호환성과 구축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였을 때 생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문화통계는 다음과 같음
 - 생산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통계: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 - 서울예술인 실태조사 - 공공과 민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 -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예산 - 문화정책사업 대상자 DB구축 - 서울예술기획자와 문화활동가 실태조사 - 문화다양성 조사 - 공공과 민간의 생활문화시설 현황조사 순
 - 생산의 시급성이 높은 문화통계: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 예산 - 서울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정책사업 대상자 DB 구축 -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 - 공공과 민간의 생활문화시설 현황조사 - 서울 예술기획자 및 활동가 실태조사 - 공공과 민간의 생활문화시설 현황조사 - 서울예술사업체실태조사 - 문화다양성 조사 순
- 전문가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발굴한 문화통계 수요는 서울시민 대상, 예술인 대상, 문화활동 기반, 문화정책 및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서울시(연구원, 재단)가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계와 지역단위에서 필요한 통계를 구분하면 [그림 4-17]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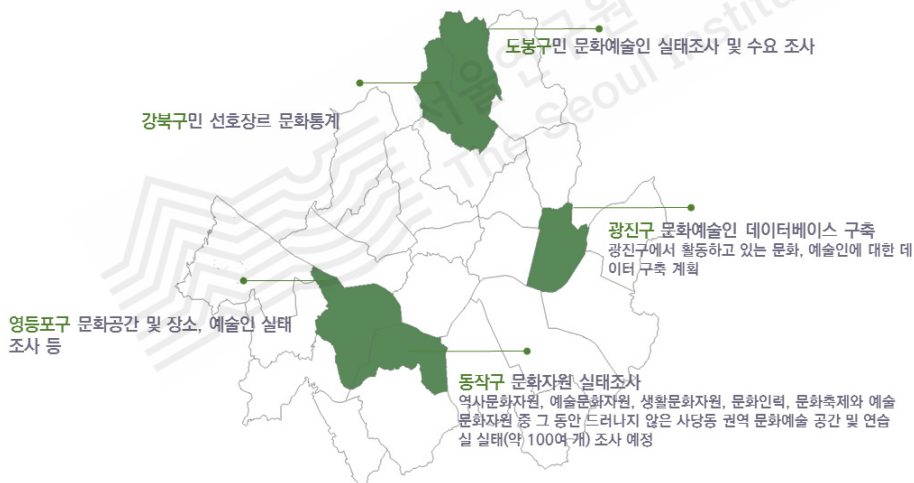


[그림 4-17] 문화 분야 통계 구축 매핑

- 기본계획이나 조례상 필수적인 통계로는 〈서울시민문화활동조사〉,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 〈문화다양성실태조사〉가 있는데, 이들 통계는 전문가 조사에서도 대체로 필요성이 높게 나왔음. 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전문가 조사에서 필요성이 높게 제시된 것으로 〈서울예술인활동조사〉가 있음.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는 이들 통계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필수통계 외에도 서울시 주요 문화정책과 관련되어 생산이 필요한 통계들이 있음. 이들 필요통계의 예로는 〈서울축제통계〉, 〈서울문화예술교육통계〉, 〈서울생활문화활동통계〉 등이 있음
- 한편, 지역단위에서 생산 가능한 통계는 문화예술소비지출조사,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 서울 예술기획자 및 활동가 실태조사, 공공과 민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 서울예술사업체 실태조사, 문화산업 및 콘텐츠 조사,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 예산,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태, 문화 분야 공유경제 현황조사 등 다양함
- 지역단위에서 생산가능한 문화 통계 중 기초 및 문화재단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통계는 서울시민 대상의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 여가실태조사, 예술인 대상의 서울예술인 실태조사, 서울 예술기획자 실태조사, 문화정책 및 사업 분야의 문화정책사업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 예산임. 특히 예술인 대상은 더 구체적인 설문으로 구성되어야 현황 파악과 더불어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
 - 가령,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는 장르별/시설유형별/사업체 유형별/직무유형별 상황, 실 거주지, 작업실, 삶의 질,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예술기획자 및 활동가 실태조사에서는 거주지, 작업실, 삶의 질, 이동경로, 근속연수, 임금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그 외에 자치구의 문화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자치구 차원에서 생산은 가능하지만 자료로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FGI와 전문가 조사로 파악한 결과, 현재 기초문화재단에서 생산하거나 혹은 향후 생산 예정인 통계로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 공간 및 자원 실태조사, 선호 장르 문화통계 등이 있음(그림 4-19) 참고). 그러나 예산의 한계와 인력 부족 등으로 통계생산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며, 일관된 기준 등이 미흡하여 생산된 자료 간 호환성이 낮은 한계가 존재
- 이처럼 실제 문화사업을 실행하는 단위에서 문화통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시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문화통계 생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기초 차원에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림 4-18] 향후 문화통계를 자체 생산할 예정인 기초문화재단(전문가 조사 결과)

[표 4-15] 서울시 문화통계 수요(전체 평균과 기초문화재단 담당자 비교)

(단위: 점)

	통계(조사)명	필요성 (전체)	기초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담당자
서울시민대상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	4.40	4.44
	여가실태조사	4.16	4.19
	문화다양성 조사	4.24	4.12
	문화예술소비지출조사	4.20	4.06
예술인 대상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	4.38	4.44
	서울 예술기획자 및 활동가 실태조사	4.29	4.38
문화활동기반	공공과 민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	4.33	4.31
	공공과 민간의 생활문화시설 현황조사	4.22	4.06
	공공과 민간의 창작공간 현황조사	4.20	4.19
문화정책 및 사업	서울 축제 통계	4.02	3.81
	서울예술사업체 실태조사	4.18	4.06
	문화산업 및 콘텐츠 조사	4.09	4.06
	서울 출판 및 미디어 조사	3.71	3.62
	문화정책사업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예술창작, 예술교육, 생활문화지원사업 등 참가자)	4.33	4.37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 예산	4.40	4.44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태	3.69	3.44
	문화 분야 공유경제 현황조사	3.71	3.56

05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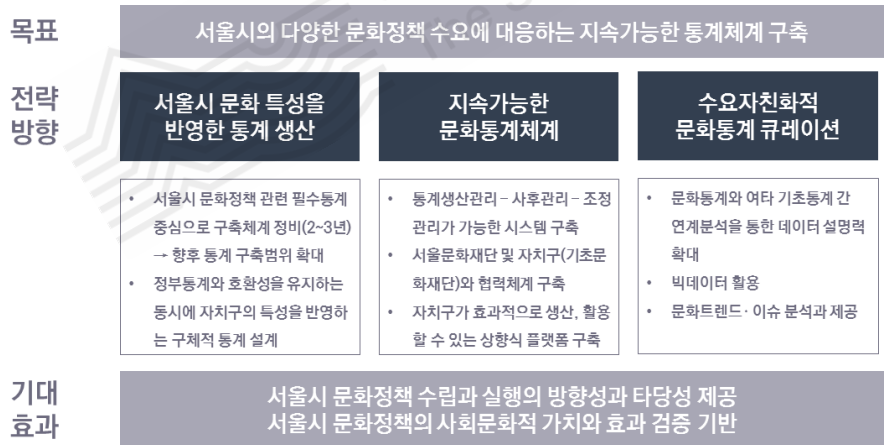
- 1_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의 기본방향
- 2_문화분야 필수통계
- 3_통계구축체계와 역할분담
- 4_수요자 친화적 문화통계 큐레이션
- 5_향후 과제와 연구의 한계

05.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과 과제

1_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의 기본방향

1)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의 방향

- 전문가 조사, 전문가 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를 ‘서울시의 다양한 문화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통계체계 구축’으로 설정함.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향은 [그림 5-1]과 같이 서울의 문화특성을 반영한 통계 생산, 지속가능한 문화통계체계, 수요자 친화적 문화통계 큐레이션으로 제시함



[그림 5-1] 서울시 문화통계의 기본방향

- 첫째, 서울시 문화통계는 서울시의 문화 특성을 반영해야 함. 이를 위해 서울시 문화정책 관련 필수통계를 중심으로 구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통계와 호환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통계를 설계해야 함
- 둘째, 지속가능한 문화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함. 통계 생산관리-사후관리

- 조정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문화재단 및 자치구(기초문화재단)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또한 자치구가 효과적으로 생산·활용할 수 있는 상향식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셋째, 수요자 친화적 문화통계 큐레이션이 필요함. 이를 위해 문화통계와 여타 기초통계 간 연계분석으로 데이터 설명력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함. 또한 문화트렌드와 이슈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처럼 서울시의 문화통계 체계가 수요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게 생산·축적된다면,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과 실행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문화정책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임

2)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의 대상과 범위

-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의 범위
 - 현재 서울시 문화통계는 예술장르에 집중되어 있으나 문화기본권 차원에서 문화란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어디까지를 문화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서울시 문화통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전문가 조사 결과, 10명 중 8명(84.8%)은 서울시 문화통계의 범위를 협의의 문화개념(예술활동)보다는 광의의 문화개념(생활문화, 지역문화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 이 연구는 문화통계의 범위를 협의의 문화영역(예술)을 포함하여 광의의 문화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다만 광의의 문화영역이 어디까지인가는 철학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함
 - 또한, 이 연구는 문화의 범위를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문화영역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향후에는 관광 및 여가, 스포츠 영역 등 문화관련 영역까지 확대 고려가 필요
-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의 대상
 - 문화통계의 대상을 서울시 거주민으로 할 것인지 생활인구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서울서베이에서는 통계 대상을 '서울 거주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수'로 하며, 서울시 생활인구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광, 쇼핑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로 함. 문화영역은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문화 통계 대상을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에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4.4%가 서울 거주민 중심의 문화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5.6%가 서울거주민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방문객 등 문화통계 대상을 다양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응답함

- 이 연구는 서울시 문화통계의 대상을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시 생활인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

○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 구축 주기

- 서울시 문화통계는 기본적으로 정부통계와의 호환성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통계가 있으면 생산주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법령이나 조례상에 구축주기가 명시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2_서울시 문화분야 필수통계

○ 서울시가 문화분야에서 우선 구축해야 하는 필수통계는 〈서울시민문화활동조사〉,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 〈문화다양성실태조사〉, 〈서울예술인활동조사〉 등 4가지임

- 〈서울시민문화활동조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진행 가능. 조사 범위는 예술 활동 중심에서 문화활동으로 확대하며, 현재 참여내용뿐 아니라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포함함. 또한 예술활동의 범주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문화예술진흥법상 지정된 예술장르 대부분만이 아니라 장르별 세부장르까지 확대하여 구체적인 참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거주민에서 생활인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 역시 모색 필요

-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실태조사, 「2030 서울문화플랜」의 서울문

화생태조사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 유사한 형태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문화지표〉를 생산하고 있음. 주요 조사 내용은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활용 조사, 생활문화시설 현황 및 활용 조사, 자치구별 문화시설 운영현황, 자치구 분야별 문화예산 등임. 지역문화실태조사는 매 5년, 문화시설 실태조사와 서울문화생태조사는 매 3년 조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문화지표〉는 매 2년 조사되고 있어서 조사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매 3년 조사를 실시하되, 향후 지역문화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문화다양성실태조사〉는 「2030 서울문화플랜」에서는 3년 주기 생산을 제안하고 있으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보호와증진에관한조례」에서는 모두 2년 주기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2년 주기 생산을 기준으로 하며, 주요 조사 내용은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현황,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환경, 관련 정책과 제도, 서울시민의 인식, 침해(또는 우수) 사례 등임
- 〈서울예술인활동조사〉는 정부의 「예술인실태조사」 주기(3년)와 일치함. 조사 대상은 예술장르별 실연가, 창작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무대인력 등 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까지 포함함. 주요 조사내용은 활동 장르, 창작 환경, 활동공간분포, 생활여건, 예술계와 사회에 대한 인식, 예술 커리어 이동경로 등임
- 필수통계 외 서울시 주요 문화정책과 관련된 필요통계도 구축 필요성이 높음. 필요통계의 예로는 〈서울축제통계〉, 〈서울문화예술교육통계〉, 〈서울생활문화활동통계〉 등이 있음
- 필수통계(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생산 중인 문화향수조사를 제외하고)와 필요통계는 지표설정 및 데이터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한 초기 단계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해 조사체계를 갖추어갈 필요가 있음. 향후 통계 생산이 안정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서울문화재단이나 (가칭)서울문화통계센터 등과 통계 생산주체 설정을 추가로 협의할 수 있음

[표 5-1] 서울시 문화분야 필수통계(안)

통계명	영역	주요내용	수행 기관	조사 주기	비고
서울시민 문화활동 조사	소비(인식, 참여)	· 예술중심에서 문화활동으로 범위 확대 · 서울시 생활인구로 범위 확대 · 장르별 세분 · 시민 문화인식 · 문화예술 소비지출	서울 문화 재단	2년	· 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의 확대
서울예술인 활동조사	창작	· 예술인 활동 장르 · 창작환경 · 활동공간분포 · 생활여건 · 예술계와 사회에 대한 인식 · 예술인 이동경로	서울 연구원	3년	· 신규조사 · 창작자뿐만 아니라 예술기획, 무대인력 등 예술활동 관련자 포함
서울 문화생태 지표조사	창작, 유통	·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활용 조사 · 생활문화시설 현황 및 활용 조사 · 자치구별 문화시설 운영현황 (장르, 프로그램 등) · 자치구별 문화활동 공간 · 서울시 자치구 문화예산 (분야별)	서울 연구원	3년	· 문화자원 실태조사 개편 및 정례화 · 문화생태 관점에서 창작, 민간, 지역문화 영역 포괄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포괄
서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소비 (인식)	·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 지역사회내 문화다양성 환경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 사회적 인식 · 침해사례	서울 연구원	2년	· 신규조사

- 통계법상에서는 승인통계여야 외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함. 하지만 승인통계 작성 기준이 국가 단위에 맞춰 있어서 지자체 수준에서 반영하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전문가는 승인통계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직성이 있음을 언급함. 이에 필수통계필수통계와 필요통계의 안정적·체계적 생산체계 구축을 우선적 목표로 하며, 안정적 생산체계가 갖추어진 이후 필수통계의 승인통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의 문화분야 필수통계와 필요통계가 구축되면, 기존에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계에 의존하던 서울시 문화통계가 보완되어,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순환주기	분야	공연	미술	문화산업	지역문화
창작			서울예술인활동조사		
생산		공연예술실태조사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		
유통 (보급·전시·발표·전송)			문화예술교육통계		
					축제통계
소비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시민문화활동조사	문화지출실태조사	생활문화활동조사
		서울서베이			
인프라			서울문화생태지표조사		
			서울예술인활동조사		
			문화다양성실태조사		
			문화예술의 활용 및 협력 조사		

기존 통계

필수 통계

필요 통계

[그림 5-2]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에 기반한 서울시 문화통계

-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을 중앙정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와 비교하면, 문화참여, 문화생태(기반), 예술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표 5-2]와 같음

[표 5-2]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

분야	중앙 (서울시 전체 방향)		서울시 (자치구별·동별 비교가능)	
문화 참여	문화향수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관람 실태(대장르 구분) · 예술발표회 참여 실태 · 문화예술교육 경험 실태 · 문화예술시설 이용실태 · 문화자원봉사 및 기부 	서울시민 문화활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관람 실태(세부 장르 구분) · 생활문화 참여실태(동아리, 문화예술교육, 문화자원봉사 등) · 지역문화시설 이용실태 · 지역문화정책 수립 참여 및 의견 ·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 · 지역문화환경에 대한 인식 (문화시설, 프로그램별)
문화 생태 (기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예연감 공연예술실태조사 미술시장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예회관 등) 운영 현황 - 기본 현황 및 운영인력 - 평균 가동률 - 총 관람객수 - 공연·전시건수, 매출액 	서울문화생태 지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예회관 등) 운영현황 · 창작생태(인력, 창작공간, 창작물) ·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 · 문화활동공간 실태 ·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현황(세부장르별, 관람객 수) · 문화예산(세부장르별, 시설별)
예술인	예술인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분야 및 내용 ·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 수입·지출 및 복지 	서울예술인 활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분야 및 내용 ·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 창작환경(창작공간, 창작형태, 창작물 등) · 공공예술사업 참여실태 및 인식 · 예술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 · 기획인력·예술활동 관련분야 인력 포함
문화 다양성 실태 조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지자체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 소수자 실태조사 · 서울시·자치구 지원정책과 제도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환경 ·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현황 · 침해사례(우수사례)

3_통계구축체계와 역할 분담

1) 문화정책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정책 기관(정책주체)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인식에 따라, 정책성과 관리보다는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지표 체계를 설계·조사·운영해야 함. 다만, 각 지역의 문화정책 기관끼리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김해보, 2016)
- 따라서 서울시-서울연구원-서울문화재단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은 통계의 시계열성(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는 문화통계의 근거법령과 예산을 마련하여 문화통계의 지속성과 정기성을 확보하고 보고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문화재단은 조사통계를 생산하되, 기초문화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연구원은 문화분야 통계의 데이터 설계 및 관리, 정책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수집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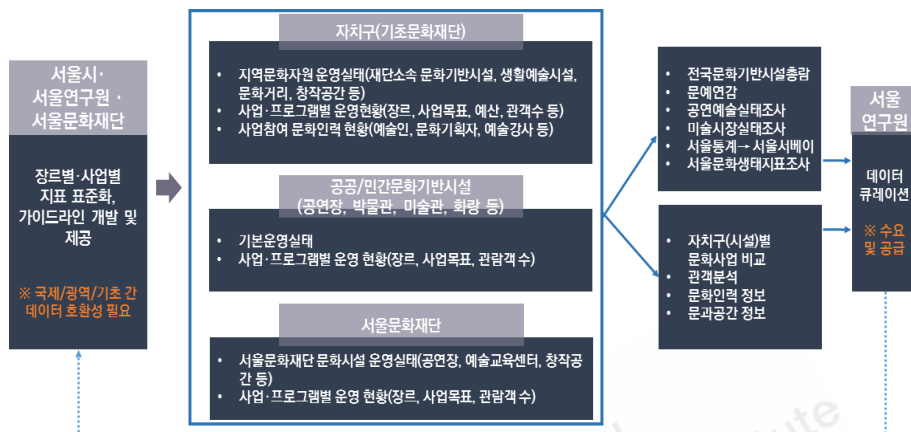


[그림 5-3] 서울시-서울연구원-서울문화재단 간 협력 체계

- 자치구(기초문화재단)와의 협력체계 구축
 - 현재 자치구 문화행정에서 필요한 통계는 문화기반시설 운영현황(장르별, 프로그램별 자치구간 비교), 관객(수요계층) 분석, 문화정책사업대상자 DB (예술가, 예술 강사, 문화기획자, 생활문화사업 참여자 등),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장르별·사업별 투입 예산임. 현재는 필요에 따라 자치구별로 조

사를 개별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데이터 구축과 공유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서울연구원과 서울문화재단이 광역단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관리하고 기초단위에서는 조사 시행 및 생산하는 협력체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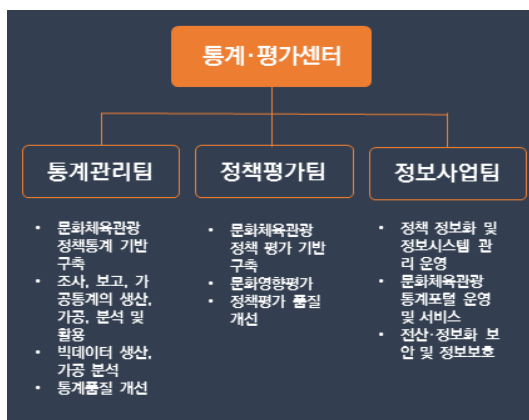
- 자치구(기초문화재단)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하여 상향식 데이터 형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절차는 [그림 5-4]와 같음



[그림 5-4] 상향식 데이터 형성체계

2) (가칭) 서울문화통계센터의 설립

- 정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통계·평가센터]를 두고 통계생산 및 관리, 데이터제공과 평가의 허브로 운영
- 통계평가센터는 통계관리팀, 정책평가팀, 정책사업팀으로 구성되어 문화통계의 전반적 관리를 하고 있음. 통계평가센터의 건립으로 이용자는 자료 접근과 분석이 편리해지고 활용도가 높아짐



[그림 5-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 조직도

- 서울시는 통계수요 변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데이터 축적, 공유, 활용 등에서 어려움을 느낌. 따라서 서울연구원 또는 서울문화재단에 문화통계의 조사 설계에서부터 관리까지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담체계, 즉 (가칭) 서울문화통계센터 설치가 필요함. 또한 기초자료 통계를 생산하는데 아카이빙 자료, 정성 자료를 가공하고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 노력 또한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이 필요함. 또한 (가칭) 서울문화통계센터는 서울시민 전체의 문화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야 함
 - 같은 통계를 생산하더라도 지역 내 시민의 문화향유 실태수준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보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함(김해보, 2016)
- 이에 광역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시 및 데이터 축적과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문화통계 관련 데이터 설계에서부터 데이터 큐레이션¹⁵⁾까지 통계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 기초 차원의 데이터 생성은 기초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함



[그림 5-6] (가칭) 서울문화통계센터의 역할

15) 큐레이션(Curation)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구분, 검증, 구성하고 설명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데이터 큐레이션(Data Curation)란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 즉 연구데이터를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지칭함.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란 생산 직후부터 데이터를 평가 또는 선별하고 보존 및 저장활동을 통해 후속연구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가공·변환하는 활동을 포함함(진보라윤유라, 2017)

4_수요자 친화적 문화통계 큐레이션

1) (가칭) 서울시 문화정보플랫폼 구축

- 문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우선,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관련 교육인, 학교 등의 정보는 개인 또는 조직에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캐나다의 예술 및 학습 네트워크(CNAL: Canadian Network for Arts & Learning)의 사례¹⁶⁾를 참조할 수 있음
 - CNAL은 전통적인 ‘회원모델(membership model)’이 아닌 캐나다 전역의 예술 및 학습에 대한 공동 포부를 중심으로 견고한 ‘네트워크 모델(network model)’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임. CNAL은 캐나다 전역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힘을 주며, 유지하게 한다”라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둠
 - CNAL은 인식 개선, 네트워크 및 브랜드 구축, 예술가를 비롯해 교사, 예술단체, 연구자, 대학 등을 포함한 회원 확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국단위의 회의 주최, 관련 연구수행, 자원 수집 및 대중의 이용성 증진에 힘씀. 최근에는 캐나다 전역의 예술과 학습을 대표하는 디지털 지도(digital map)를 구축하고 있음
 - CNAL의 참여는 무료로 진행되며, 예술가, 교사, 학생, 연구원, 행정가 등 예술 및 학습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음. 캐나다 예술 및 학습은 캐나다 전역의 예술 및 학습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회원가입은 예술가(개인) 및 교육자, 예술단체, 학교라는 3가지 유형별로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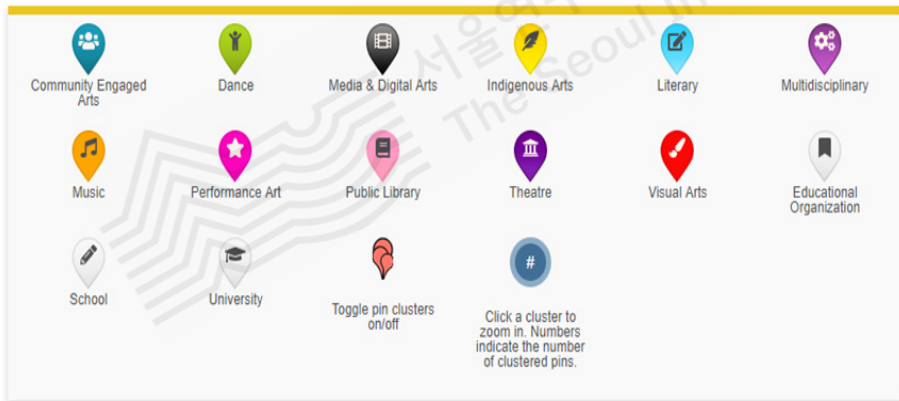
¹⁶⁾ <https://www.eduarts.ca/>

[표 5-3] 회원 가입 절차

구분	가입시 작성 목록
예술가 및 교육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 예술분야, 언어, 멘토 필요 유무, 멘토 추천 여부, 개인 레슨 필요 여부, 그룹 레슨(수업) 필요 여부, 학교에 서비스 제공 여부, 타 도시 학교로 이동 여부, 이동 가능한 범위(이동거리),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어떤 집단을 교육하고 싶은지 여부, 교육 경험 기간 등
예술단체	예술분야, 프로그램의 가격(시간당 비용), 조직 유형, 학교 서비스 제공 유무, 학교 프로그램 유형, 지역사회 프로그램 유형, 언어, 장소의 접근성(엘리베이터, 휠체어석, 청력보조장비 등), 어느 집단(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유무, 멘토십/레지던트 기회 제공 여부 등
학교	주소, 총교사 수, 학생 수, 평균 학급 크기, 예술전문학교 여부, 풀타임 예술직원 고용 여부, 예술인력 고용 여부, 직원을 위한 전문예술 개발 제공 여부, 학교 위치 특성, 언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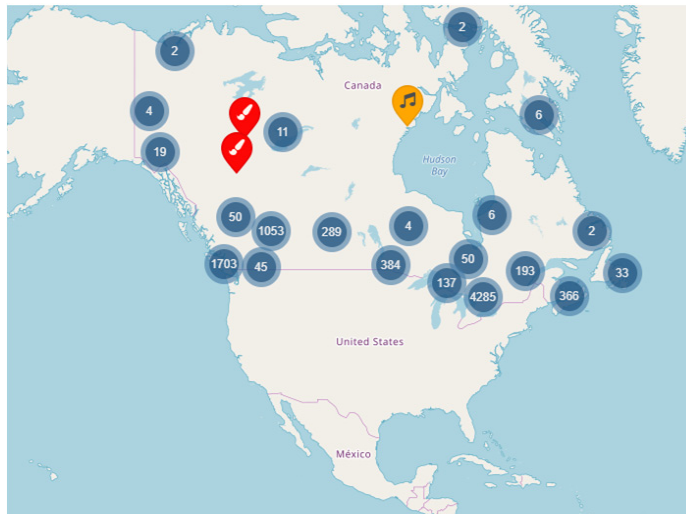
출처: <https://www.eduarts.ca/>

- CNAL의 정보는 키워드 및 지역검색으로 확인 가능하며, [그림 5-7]과 같이 지역참여 예술, 댄스, 미디어 및 디지털 예술, 음악, 공공 도서관, 극장, 교육 기관, 학교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7] CNAL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축적된 자료는 캐나다 전역의 지도에서 확인 가능함. 지도를 통한 자료 제공의 목적은 첫째, 지식 교환, 연구 및 우수사례를 활용한 네트워킹, 파트너십,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지도자 및 교육자 간의 지식과 사례를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함. 둘째, 실행가, 조직, 교육자 및 대중 간 위치 및 연결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함. 따라서 회원 가입 시 그 조직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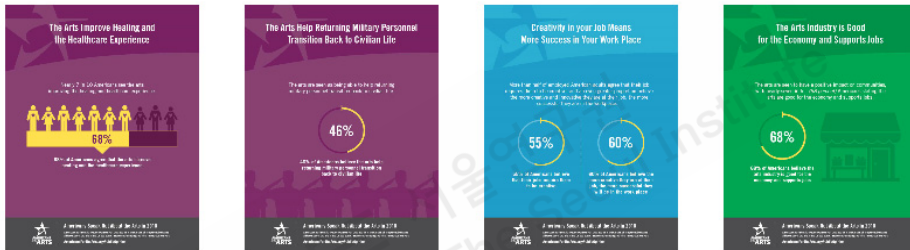
[그림 5-8] CNAL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지역별 정보

2) 기초통계 또는 빅데이터와 연계 분석

- 문화통계와 여타 기초통계 간 연계분석으로 데이터 설명력 확대
 - 문화통계와 여타 기초통계 간 연계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설명력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가령, 문화활동과 사회적자본형성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서울시민문화활동조사에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서울서베이의 사회인식 조사를 병합할 수 있음
 - 또 다른 예로 문화지출구조를 파악하려면 문화예술실태조사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소비 통계(카드데이터, 쇼핑물 사용금액 등)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예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을 가능하게 함. 다만 소비통계 등과 같이 민간의 데이터는 기업 자산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라는 법제도 개선이 동반되어야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민간의 플랫폼과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통계를 통한 데이터 연계는 서로 다른 데이터 파일에서 유사한 성향을 가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전 처리 과정-데이터 연계 사전평가-데이터 연계-데이터 연계 사후평가-분석이라는 5단계를 거침. 통계적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연계 후 생성된 공통 파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평가는 정확성, 예측성, 대표성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음(박근화, 2018)

3) 문화 이슈(트렌드) 리포트

- 서울시민의 문화 이슈와 트렌드 분석과 제공
 - 문화통계는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다. 문화통계의 활용방법으로는 문화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하여 문화정책의 방향과 이슈를 선도하는 것이 있음. 즉,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해 문화정책의 방향과 트렌드를 읽어주는 것
 - 가령,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Americans speak out about the arts는 4년에 한번 18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뿐만 아니라 [그림 5-9]와 같이 예술과 건강, 문화 시민의 삶, 직장에서의 창의력과 성공, 예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그림 5-9] Americans speak out about the arts의 인포그래픽

5_향후 과제와 연구의 한계

- 이 연구는 문화통계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문화범위 6개(역사문화 유산, 공예기술, 시각예술, 문학예술, 영상예술, 디자인 및 창의적 서비스)에 한정함. 따라서 관광, 여가, 스포츠를 제외하여 검토하고 통계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함. 향후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에서 다루는 전 범위를 포괄한 문화분야의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광의의 문화를 통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등을 포함하여 문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 핵심통계의 실행 주체와 순서를 설정하는 연구, 문화통계 지표의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문화 관련 법령과 각종 조사 등에서 사용하는 문화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상향식 통계 형성을 위해서는 문화의 범위와 지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
- 표준화 과정에서는 정부의 문화지표 및 조사와 일치 또는 연계를 고려해야 함. 정부는 현재 지역문화통합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전국의 기초단위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임. 이는 서울시 차원의 문화정보플랫폼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지역통계 관점에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통계생산체계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함. 서울시는 지역통계 논의 및 구정연구단 등 문화분야를 넘어서는 관계 부처,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함. 지속가능한 문화정보플랫폼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향후 지속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고정민, 2010, 「주요국가 문화예술통계 실태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민규, 2019, 「문화정책 데이터란 무엇일까」.
- 김소영 외, 2010, 「문화예술분야 통계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김해보, 2016, “문화생활, 얼마나,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공공정책에 문화예술을 입히다”, 대전문화재단 상반기 정책세미나 (2016.6.30.) 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박근화 외, 2013, 「종합문화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 연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센터.
- 박근화, 2018, 「문화·체육·관광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생산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백선혜·라도삼·이정현, 2015,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서울연구원.
- 변미리, 2015, 「서울문화지표 체계구축 연구」,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2013, 「세계도시 문화리포트 서울 2013」.
- 서울문화재단, 2016,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8, 「2017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 서울시·서울연구원, 2017, 「2018 서울서베이 분석편」.
- 서울시, 2016,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 안인자, 2002, “문화예술 통계자료의 체계적 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 6: 147-163, 한국비블리아학회.
- 양혜원 외, 2011,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미술시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이동연 외, 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이충화·김수경, 2018, 「문화관광 통계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세길·신지연, 2016, 「전라북도 문화통계 체계구축연구」, 전북연구원.
- 진보라·윤유라, 2017, “데이터 큐레이션 구현을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집」, 7(6): 767-776,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최영화·김창수·민경선,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문예연감 2017」(<http://www.arko.or.kr/yearbook/>).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다양성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Darren Henley, 2018, 「Cultural democracy in practice」, Arts council England
- Jean-Louis Mercy & Marta Beck-Domžalska, 2016, 「Culture Statistics」, Eurostat.
- McCarthy, Kevin F. and Jinnett, Kimberly, 2000, 「A New Framework for Building Participation in the Arts」, RAND
- Statistics Canada, 2011, 「Classification guide for the Canadian framework for culture statistics」(from <https://www150.statcan.gc.ca/n1/en/catalogue/87-542-X>).
- UNESCO·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9,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홈페이지(<http://www.kopis.or.kr>)
-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tat.mcst.go.kr>)
- 미국 문화통계 홈페이지(<https://www.arts.gov>)
- 미국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census.gov>)
- 미국 미국인을 위한 예술 홈페이지(<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
- 서울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s-for-digital-culture-media-sport>)
-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ons.gov.uk>)
- 유네스코 문화발전지표 홈페이지(<https://en.unesco.org/creativity/activities/cdis>)
- 캐나다 예술 및 학습 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www.eduarts.ca/>)
-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statcan.gc.ca>)
- 호주 국립 문화 및 여가 통계센터 홈페이지(<http://www.abs.gov.au/ausstats>)
- 호주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ustraliacouncil.gov.au)
-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abs.gov.au>)

부록: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1차)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에서는 서울시의 문화 분야 관련 통계들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를 재설계하고자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문화 분야 연구자, 기초·광역문화재단 담당자, 문화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및 서울시의 문화통계 활용여부, 서울시 문화통계의 기본철학과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10분** 내외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전체 통계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서울연구원

수행
기관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책임: 백선희

연구원: 박민진

S1. 귀하는 문화 관련 분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 또는 근무 하셨습니까?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S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I 문화통계의 활용도

다음은 중앙정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 분야의 통계 목록입니다.

- 문화예술 관련 연감: 보고/가공통계
 -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예술 관련 실태(설문)조사: 조사통계
 - 문화향수 실태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 공연예술 실태조사
 - 예술인 실태조사
 - 미술시장 실태조사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문1. 귀하는 위에 제시된 중앙정부 문화통계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1-1로 이동) ② 없다 (문 1-3으로 이동)

문1-1. 중앙정부 문화통계 가운데 귀하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통계는 어떤 것입니까?

참고하시는 순서대로 1(가장 많음)~9(가장 적음)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순위
1)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	
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3) 문화향수 실태조사	
4) 국민여가활동조사	
5) 공연예술 실태조사	
6) 예술인 실태조사	
7) 미술시장 실태조사	
8)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문1-2. 귀하가 활용하시는 중앙정부의 문화통계 가운데 가장 유용한 통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용한 통계명	
이유	

문1-3. 위에 제시된 문화통계 이외에 참고하시는 또 다른 통계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시오.

통계명	
-----	--

다음은 서울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 분야의 통계 목록입니다

-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서울서베이): 가공/보고통계
-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지표: 가공/보고통계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조사통계
- 서울연구원,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 조사통계

문2. 귀하는 위에 제시된 서울시 문화통계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2-1로 이동)

② 없다 (문 2-3으로 이동)

문2-1. 서울시 문화통계 가운데 귀하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통계는 어떤 것입니까?

참고하시는 순서대로 1(가장 많음)~4(가장 적음)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시시오.

	순위
1) 도시정책지표(서울서베이)	
2) 서울문화지표	
3)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	
4)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	

문2-2. 귀하가 활용하시는 서울시 문화통계 가운데 가장 유용한 통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용한 통계명	
이유	

문2-3. 위에 제시된 문화통계 이외에 참고하시는 또 다른 통계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시오.

통계명	
-----	--

Ⅱ 서울시 문화통계의 장단점

문3. 중앙정부와 타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현재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와의 비교	
타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	

문4. 중앙정부와 타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와의 비교	
타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	

Ⅲ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

문5. 서울시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문화 분야의 통계를 생성한다면,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6. 서울시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문화 분야의 통계를 생성한다면, 서울시 문화통계가 가져야 할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7. 서울시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추가 생성해야 할 **문화통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8. 타 광역지자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통계 중 서울시에서도 **향후 생산할 필요가 있는 통계**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요

IV 문화통계 생산목록

문9.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 분야 통계가 있습니까?

① 있다 (문9-1로 이동)

② 없다 (문10으로 이동)

문9-1.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 분야 통계는 무엇입니까?

문9-2. 앞서 제시된 4가지의 문화통계 외에,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화 분야 자료로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면 유용한 통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무엇입니까?

문10.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문화 분야 통계가 없다면, 향후 구축할 계획이거나 준비 중인 문화통계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10-1로 이동)

② 없다 (문11로 이동)

문10-1.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계획 중이거나 준비 중인 문화통계는 무엇입니까?

문11. 서울시가 향후 문화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
입니까?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귀하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



부록: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2차)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에서는 서울시의 문화 분야 관련 통계들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를 재설계하고자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문화 분야 연구자 및 활동가, 기초·광역문화재단 담당자, 문화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문화통계 활용여부, 서울시 문화통계의 기본철학과 방향, 분야별 문화통계 생성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5분 내외**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 구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7월

서울연구원

수행
기관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책임: 백선희

연구원: 박민진

S1. 귀하는 문화 관련 분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 또는 근무 하셨습니까?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S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 도시문화정책과의 적실성 확보					
도시간 국제 문화비교지표로서의 위 상 확보					
서울시민의 문화수요와 활동을 포괄 하는 통계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의 다양한 현 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현장성을 담보하여 정책결정자, 기업,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문4. 다음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문화 분야 통계를 생성한다고 할때, 서울시가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들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체크해 주십시오.

	중요도					시급성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중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 하다	⑤ 매우 중요 하다	① 전혀 시급 하지 않다	② 시급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시급 하다	⑤ 매우 시급 하다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 단 위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 통계										
서울시의 사회문화적 특성 이 드러날 수 있는 통계										
생활권 단위의 문화시설 범주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자치구 문화기관 및 자원,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치구별 문화예술 및 공공 시설, 문화시설 통계와 맵										
공공문화예술시설과 프로 그램의 대시민 접근성, 홍 보, 안내 등이 이루어지는 조사방식										
보고통계 보다는 직접조사 (실태조사 등)에 기반한 통계										

문5. 다음의 서울의 문화통계의 방향성에 관한것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선호하시는 의견에 체크해 주세요.

문5_1 서울시 문화통계는

① 협의의 문화개념(예술활동) 중심이어야 한다	② 광의의 문화개념(생활문화, 지역문화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

문5_2 서울시 문화통계는

① 공공부문 중심의 통계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②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통계생산까지 확대해야 한다
--------------------------	---------------------------------

문5_3 서울시 문화통계는

① 서울 거주민 중심의 문화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서울거주민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방문객등 문화통계 대상을 다양하게 구축해야 한다
----------------------------	---

문5_4 서울시 문화통계는

① 서울시 문화 인프라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문화 인프라 통계까지 구축해야 한다
---------------------------	--

문5_5 서울시 문화통계는

① 문화시설 내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②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 미문화시설의 활동까지 포괄해야 한다
-------------------------	-------------------------------------

문5_6 서울시 문화통계는

①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 중심이어야 한다	② 문화역사경관 및 문화거리등 지역적 관점으로 확대해야 한다
------------------------	-----------------------------------

문5_7 서울시 문화통계는

① 문화시설수, 이용자수 등에 대한 엄밀한 실태조사이여야 한다	② 시민의 문화소비와 욕구 등에 대한 문화트렌드를 파악해야 한다
------------------------------------	-------------------------------------

문5_8 서울시 문화통계는

① 중앙정부 통계자료와 중복성을 피하며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중앙정부 통계자료와 연동하여 비교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

--

[illegible][illegible]

	필요성					시급성				
	①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② 필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 하다	① 전혀 시급 하지 않다	② 시급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시급 하다	⑤ 매우 시급 하다
문화정책사업 대상자 DB 구축 (예술창작, 예술교육, 생활문화지 원사업 등 참가자)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 예산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태										
문화 분야 공유경제 현황조사										

문6-4-1. 위에서 제시된 통계 목록 이외에 서울시 자체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통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7. 귀하는 다음의 문화통계중에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통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3순위()

- ①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 ② 여가실태조사
- ③ 문화다양성 조사 ④ 문화예술소비 지출조사
- ⑤ 서울 예술인 실태조사 ⑥ 서울 예술기획자 및 활동가 실태조사
- ⑦ 공공과 민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 ⑧ 공공과 민간의 생활문화시설 현황조사
- ⑨ 공공과 민간의 창작공간 현황조사 ⑩ 서울 축제 통계
- ⑪ 서울예술사업체 실태조사 ⑫ 문화산업 및 콘텐츠 조사
- ⑬ 서울 출판 및 미디어 조사 ⑭ 문화정책사업 대상자 DB 구축
- ⑮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투입 예산 ⑯ 문화유산 활용사업 실태
- ⑰ 문화 분야 공유경제 현황조사 ⑱ 서울문화생태지표 조사
- ⑲ 기타()

IV 문화통계 운영 및 협력체계

문8. 서울시 문화 분야 통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입니다. 각 항목의 필요성을 체크해 주십시오.

	①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② 필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 하다
문화통계 연구 활성화를 통한 자료구축체계 정비 및 분석					
자치구-서울시 간 조사 협력체계 구축 (자치구 기초문화재단, 구정연구센터와 연계)					
서울시-서울문화재단-서울연구원 간 조사 협 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문화온라인플랫폼 구축으로 통계 데이터의 공 유 및 활용도 제고					
(가칭)서울시 문화통계센터의 신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귀하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a Cultural Statistics System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nhae Baik · Inchol Shin · Do-Sam Na · Minjin Park

Since 2000, Korea has actively promoted cultural policies, which has led to a continually increasing demand for cultural statistics. However, since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culture is comprehensive and statistics are produced according to the viewpoints and demands of institution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re have been many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develops and implements policies on culture and the arts, the “policy usefulness” of cultural statistics is important, meaning these statistics can be used in policy analyses and the policy-making process. Nevertheless, as the existing system is focused on the current state of the arts and culture, its policy utilization remains low.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overall review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ultural statistics and use the knowledge gained to build a comprehensive cultural statistics system. Since this is an early study of cultural statistics, the scope is limited to the cultural domain of the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We investigate the shortcoming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ultural statistic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ultural statistics, including those maintain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le also collecting the

opinions of cultural experts on the topics and methods of constructing cultural statistics through surveys and FGIs. As a result, the basic direction for establishing cultural statistics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adop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cope should not be limited to art, but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the general cultural lives of citizens; second, the target group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Seoul citizens but also its de facto population; and third, it should be simultaneously compatible with government statistics and specific enough to be utilized at the district level.

In conclusio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statistics system that responds to the diverse cultural policy demands of Seoul was set as a goal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garding its cultural statistics. In order to achieve this, three strategic directions were suggested: the production of statistics reflecting Seoul's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cultural statistics system, and the curation of demand-friendly cultural statistics. In addition, four essential statistics were suggested: the Seoul Citizen's Cultural Activity Survey, Seoul Artist's Activity Survey, Seoul Cultural Ecology Index Survey, and Seoul Cultural Diversity Survey. Furthermore,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e Information Platform> to facilitate data generation in the future.

Establishing a cultural statistics system will allow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secure basic data to support the direction and validity of its cultural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presenting and verifying the socio-cultural values and effects of Seoul's cultural policy.

01 Introduction

- 1_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2_Research Question and Method

02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ultural Statistics

- 1_International Cultural Statistics
- 2_Domestic Cultural Statistics
- 3_Implications

03 Examining Cultural Statistic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1_Indicators and Surveys on Culture and the Arts
- 2_Current Status of Construction of Cultural Statistics Websites
- 3_Ordinances and Plans on Cultural Statistics
- 4_Sub-conclusion

04 Opinion Gathering to Improve the Cultural Statistics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 1_FGIs and Expert Consultations
- 2_Expert Surveys
- 3_Sub-conclusion

05 Basic Direction and Tasks for Building the Cultural Statistics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1_Basic Direction for Cultural Statistics
- 2_Demand for Cultural Statistics
- 3_Statistics Building System and Role Division
- 4_Curation of Demand-Friendly Cultural Statistics
- 5_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과 과제

서울연 2019-BR-09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19년 9월 1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437-9 9330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